

2018 경기 문화유산 학교

경기도 역사와 문화유산 교양강좌

Contents

PROLOG 경기 천년, '경기문화유산학교를 열며' 004

01 | 경기 천년과 고려 009
박종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02 | 태조왕건의 고려건국 이야기 027
노명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3 |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 문화유산 043
이광표 동아일보 논설위원

04 | 고려시대 사원의 기능과 공간구성 069
이승연 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05 | 고려 불교의 본산, 경기의 사찰 095
장일규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06 | 능묘에 담긴 고려인의 삶과 죽음 099
이희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07 | 고려시대 길 121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2018 경기문화유산학교

일 시 8월~12월 오후 3시
(매월 1~3주 수요일)

장 소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읽어보기 고려의 찬란한 도자문화, 경기에서 시작되다 ... 140
임진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활용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4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조사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공하고,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올해부터는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으로 <경기문화유산학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와 유적 답사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2018년은 고려(高麗)건국 1,100년이 되는 해이면서,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생겨난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강의 주제는 ‘경기 천년’에서 찾는 ‘고려’의 흔적으로 정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경기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경기인의 마음 ▲한반도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국가를 세운 태조 왕건이 경기도에 남긴 이야기 ▲지금은 남북 분단 현실로 다가갈 수 없지만 옛 고려 황도(皇都) 개성에 남겨진 고려 문화유산 이야기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사통팔달 경기의 고려 옛길 ▲고려 왕실과 귀족의 지지를 받았던 불교 사상 ▲천년의 땅 속에서 깨어난 고려건축문화의 아름다움 ▲고려인의 영원한 안식처인 무덤 출토 자료로 살피는 고려인의 생활이야기 등을 흥미롭게 만날 것입니다.

나태주의 시(詩)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삶의 주변에 퍼져있는 경기문화유산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옛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오래 보아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향기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도민과 더불어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를 찾고 그 가치를 드높이며 새로운 경기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힘을 보탬 것입니다. 경기문화유산학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를 거듭해 경기문화유산의 새로운 주제를 찾고 다듬으며 그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강좌를 통하여 경기도의 고려문화유산이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경기 천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18. 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원장 김 성 명

2018

경기 문화유산 학교



경기도 역사와 문화유산 교양강좌

- 01 경기 천년과 고려
- 02 태조왕건의 고려건국 이야기
- 03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 문화유산
- 04 고려시대 사원의 기능과 공간구성
- 05 고려 불교의 본산, 경기의 사찰
- 06 능묘에 담긴 고려인의 삶과 죽음
- 07 고려시대 길



01

경기 천년과 고려

박종기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2018년은 고려왕조(918~1392년) 건국 1,100주년이다. 또한 경기도가 1018년(현종 9) 처음 자기 이름을 가진 지 천 년이 되는 「경기 천년」의 뜻깊은 해이다. 백년 만에 찾아온 고려 건국 1,100주년과 경기 정명(定名) 천년의 해를 맞이해 그 역사적 의의를 성찰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

1. 경기 정명(定名) 천년

고려왕조가 건국된 지 백년이 지난 1018년(현종 9)은 왕조 최대의 위기였던 30년간의 고려 거란 전쟁이 종식되어, 왕조가 새로운 출발을 한 중흥(中興)의 해이다. 이 해 수도 개경에 주변 12개 군현을 소속시켜 경기(京畿)라는 특별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경기라는 이름이 1018년에 처음 정해진 것이다. 왜 수도 개경과 여기에 소속된 군현지역을 묶어 경기라는 행정명칭으로 불렀을까?

1) 경기(京畿)의 개념

(1) ‘경기’는 이미 중국사에서 일찍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경기는 천자가 거주하는 도성(궁성)이 있는 ‘서울[京]’과 ‘서울의 주변 지역[畿]’으로, 천자가 직접 관할한 도성 주위 천리의 땅을 기(畿)라 했다. 또한 왕기(王畿)·기전(畿甸)·기내(畿內) 등으로 불렀다(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출입말과 다른 命名 원리). 중국의 고대 봉건사회로부터 유래한 경기는 군주가 거주하는 도읍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돕기 위해 설정한 군주(천자)의 직할지였다. 또한 경기지역을 통치 운영하는 방식을 경기제(京畿制)라 한다. 중국 당(唐)나라의 경우 도성 안쪽 지역 혹은 경도(京都)가 다스리는 곳을 경현(京縣, 赤縣), 도성 밖 주변 지역은 기현(畿縣)으로 구분하여 통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제도와 했다.

(2) 경기제의 이념적 기초는 『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주례(周禮)』 등의 문헌에 보인다. 『서경』 우공(禹貢) 편에서는 천하를 제도(帝都)의 땅이라 할 왕기(王畿) 및 기주(冀州)와 주변 사방을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 등 5백리 단위로 나누는 오복제(五服制)로 구분하여 영역 개념을 세우기도 했다.

(3) 『주례』에 따르면, 왕[천자]이 다스리는 천하 사방의 영토를 9기(畿)라 하고 9기(畿)의 중심에는 왕이 거주하는 왕성(王城)이 있으며, 왕성 주위 사방 1천리의 땅을 왕기(王畿), 방기(邦畿) 또는 국기(國畿)라 하여 왕의 직할지로 설정했다. 나머지 영역은 왕의 직할지 바깥 사방으로 봉작(封爵)의 순서에 따라 제후들의 분할 봉토지를 5백리 단위로 9기(九畿 혹은 九服)로 서열화하여 구분했다(5백리 단위/후기(侯畿), 전기(甸畿), 남기(男畿), 채기(采畿), 위기(衛畿), 만기(蠻畿), 이기(夷畿), 진기(鎮畿), 번기(蕃畿)). 9기(畿)의 바깥 사방에는 오랑캐 나라인 번국(蕃國)을 설정했다.

(4) 왕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확대되는 영역 설정 관념은 대내적으로는 작위(爵位)제도에 따른 군신 및 천자제후 관계의 질서체계를, 대외적으로 천자국과 제후국 사이의 조공책봉(朝貢冊封) 관계라고 하는 신분질서 의식을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2) 고려시기 경기제 시행 과정

경기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고려 때였다. 고려인들은 경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경기는 사방(천하)의 근본지역이다. 수도인 왕경(경기지역)과 왕실을 지키고 보호하는 관료들을 위해 과전(전시과)을 지급하여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 [京畿 四方之本 宜置科田以優士大夫 凡居京城衛王室者 不論時散 各以科受].”

『고려사』 권78 食貨1 祿科田 공양왕 3년 5월조

경기는 전략적으로 왕실을 지키는 지역이며, 경제적으로 왕조에 봉사하는 댁가로 관료 등 지배층에게 지급된 토지(*과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때문에 국왕과 왕실, 핵심 지배층이 살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지역인 점에서 경기를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이라 했다. 경기는 고려 초기부터 그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조 2년)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개주(開州)라 하고, 궁궐을 세웠다 [定都于松嶽之陽 爲開州 創宮闕].”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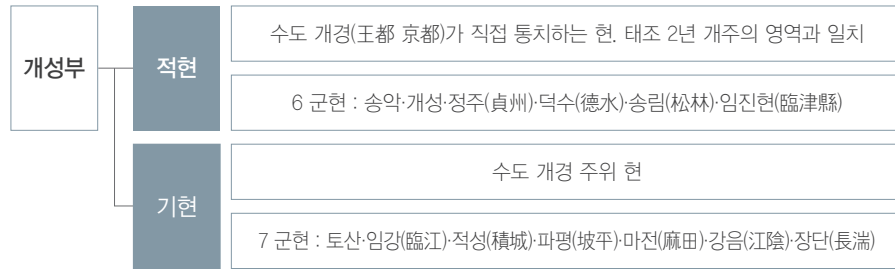
(1)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태조 2년(919년) 통일신라기 송악군(영현 강음현과 송림현 포함)과 개성군(영현 덕수현과 임진현 포함)을 묶어 개주라고 이름을 고치고, 고려의 수도로 삼았다. 이 해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 개경의 영역을 왕조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확장했다.

“(성종 14년) 개주를 개성부로 이름이 고쳐졌다. (개성부는) 적현(赤縣) 6개 군현과 기현(畿縣) 7개 군현을 관장하게 했다[改開州爲開城府 管赤縣六 畿縣七 成宗十四年].”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

(2) 성종 14년(995년) 개성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 6개의 적현과 7개의 기현을 관할

하게 했다. 이로써 개성부는 적현과 기현의 13개 현으로 구성되어, 수도 개경의 영역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즉, 개성부가 설치되고 특별구역인 적현과 기현을 관리 통제하는 경기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수도 개경의 영역을 알려주는 적현과 기현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종 9년(1018년) 개성부가 폐지되고, 개성 현령관(縣令官)이 설치되었다. 그 아래 정주·덕수·강음현의 3개현을 관할하게 했다. 또 장단 현령관이 설치되었다. 그 아래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의 7개현을 관할하게 했다. 개성 장단 현령관은 모두 상서도성에 직속시키고, 이 지역을 경기라 했다
[顯宗九年 罷府置縣令 管貞州 德水 江陰 三縣 又長湍縣令 管松林 臨津 兔山 臨江 積城 坡平 麻田 七縣 俱直隸尚書都省 謂之京畿].”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

(3) 수도 개경은 지방 행정단위에서 중앙이 직접 관할하는 경기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다. 경기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 사용되었다.

- 한편 송악군은 해체되고, 경중(京中) 5부(部)로 편제된다. 이 때 경기의 범위는 성종 14년 적현, 기현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결국 성종 14년의 개성부는 송악군을 포함한 경중 5부와 개성과 장단 현령관이 관할하는 10현으로 나뉘었다. 두 현령관은 중앙의 상서도성에 직속되는데, 개성 장단의 두 현령관이 관할한 12현(개성과 장단의 2현 포함) 지역이 「경기(京畿)」가 되었다.
- 또한 이 해(1018년) 경기제 실시는 물론 고려시대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

다. 4개의 주요 군사 거점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8개 대도시를 목으로 지정했다. 그 하부에 군과 현 및 진 등 군사와 행정의 거점 단위를 신설했다. 이를 거점으로 이후 점차적으로 개경 이남에 5도(서해·교주·양광·전라·경상)와 국경지대에 북계와 동계의 양계(兩界)가 설치된다. 전국을 크게 경기, 5도, 양계라는 광역의 세 권역으로 구성된 지방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3원적인 행정체제는 조선 전기에 8도체제로 재편된다.

- 천 년 전 1018년(현종 9)은 고려왕조가 건국된 지 백년이 되는 해이며, 고려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 해이다. 이 해 20만 군사를 거느린 고려군 사령관 강감찬이 소손녕의 10만 거란 대군을 패퇴시켜, 993년(성종 12) 거란의 첫 침입 이후 약 30년 간 지속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종결된다. 건국 후 닦친 왕조 최대의 위기가 마침내 해소되었다.
- 사학(私學)을 일으켜 문치(文治)주의를 부활시켜 해동의 공자(孔子)라 칭송받은 고려전기 최고의 학자 최충(崔冲, 984~1068년)은 현종의 치세를 직접 체험한 인물이다. 그는 거란전을 수습해 위기의 왕조를 바로 잡은 국왕 현종을 중흥(中興)의 군주라고 평가했다.

“문종 16년(1062년) 개성부가 다시 설치되었다. 상서도성에서 관장한 11개현이 개성부에 다시 소속되었다. 또 서해도 평주 소속의 우봉군을 떼어 내어 개성부에 편입시켰다 [文宗十六年 復知開城府事 都省所掌十一縣 皆屬焉 又割西海道平州任內牛峯郡 以隸之].”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

(4) 문종 16년(1062년) 개성부가 다시 설치된다. 개성현과 장단현에 속했던 10현과 함께 새로 서해도의 우봉군이 편입된다.

- 개성과 장단이 각각 3개 현과 7개 현을 관할하던 지역에다가 우봉군을 추가시켜, 개성부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의 경기 지역으로 재편되었다.
- 이는 경기 통치기구의 일원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된 것은 서경에 별도의 경기, 즉 서경기(西京畿)가 설치되면서 경기 지배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개성부는 경기지역을 왕실의 경제기반으로 하는 한편 관료들에게 과전 및 시지(柴地)를 지급해 이를 직접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 문종 23년(1069년) 경기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양광도·교주도·서해도의 39개 주현이 경기로 소속이 변경되어 경기는 모두 52개 현이 된다. 현재 학계는 이 기록을 사실로 보지 않고 있지만, 문종 30년의 양반전시과의 시지(柴地)가 지급된 46개 군현과 같은 규모여서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공양왕 2년(1390년)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나눈다. 그리고 좌도와 우도에 각각 도관찰출척사가 파견되고, 수령관(首領官)이 그를 보좌하게 했다
[恭讓王二年 分京畿左右道 ... 各置都觀察黜陟使 以首領官 佐之].”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

(5) 공양왕 2년(1390년)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각 도의 책임자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고, 그 보좌관으로 수령관(首領官)을 두었다.

- 수령관은 도관찰출척사를 보좌하는 관원이다.
- 기존의 경기를 구성했던 13현에 31개 현이 추가된 44개 현이 되어 경기지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 과전경기(科田京畿)의 원칙이다. 즉 과전법 시행과 함께 관리들의 과전은 경기지역에만 지급한다는 원칙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경기지역이 확대 개편되었다.
- 조선왕조의 건국과 함께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되면서, 경기는 왕실과 수도 개성의 보장처이자 경제적 직할지라는 개념에서 지방 행정구획의 하나인 도(道)의 개념으로 그 개념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 1414년(조선 태종 14) 경기 좌, 우도를 다시 ‘경기’로 통합한다. 『경국대전』(1485)에 수록된 ‘경기’를 구성한 군현의 숫자는 모두 38개 군현이다.

3) 경기제 실시 배경과 의의

경기는 신분 질서를 지역(영역)질서로 구분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개념이

다. 중국 역대 왕조는 이러한 차등적인 질서론의 명분에 따라 경기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하게 대우하여 왕실과 왕권의 권위를 확보하려 했다. 그런 사실은 당(唐)나라 육지(陸贄)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경읍 주변지역인) 왕기(王畿)는 사방의 근본이다.
(황제가 거주한) 경읍(京邑)은 또한 왕기의 근본이 되는 지역이다.
그 형세는 마땅히 경읍은 몸과 같이, 왕기는 어깨와 같이,
사방은 손가락과 같이 부리는 것이다. (중략) 부역은 가까운 곳을 가볍게 부과하고 먼 곳은 무겁게 부과한다.
은혜와 교화[惠化]는 가까운 데를 기쁘게 함으로써 먼 곳에 있는 자를 오게 한다
[王畿者 四方之本也 京邑者 又王畿之本也 其勢當令京邑
如身 王畿如臂 四方如指 (中略) 其賦役 則輕近而重遠 其惠化 則悅近以來遠也].”

(1) 중국 역대 왕조에서 운영된 경기제의 취지, 즉 수도 왕경과 왕실을 도우는 직할지 성격의 경기제라는 그 원래 취지를 한국사에서 가장 충실하게 수용하여 시행한 왕조는 고려왕조였다. 경기는 고려왕실과 왕조를 방어하는 전략 요충지이며, 경제적으로는 직할지로서 이곳의 생산과 노동력은 핵심 지배층을 유지하는 경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왕실의 팔과 다리로서, 지방과 왕실 및 중앙정부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 고려왕조가 경기제를 시행한 이유는 중국의 경기제를 도입하여 국왕의 거주 공간인 수도 개경을 방어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왕권 강화와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데 있다.

(3) 한편 경기제 도입의 또 다른 배경은 고려왕조의 국가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고려왕조는 한국사의 역대 왕조 가운데 천자국(황제국) 체제를 수용해 운영했다.

고려왕조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천자국(황제국)으로 인정하고 국왕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등 제후국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대내적으로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제도와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같이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국왕이 황제(천자)로서 처신한 점이 조선과 다른 고려왕조의 특성이다. 그것은 관청 용어에도 반영되어 있다.

고려	▶	조선
3성(省) :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 상서성(尙書省)		의정부(議政府)
6부(部) :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部		6조(曹) :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曹
개경(開京), 서경(西京), 남경(南京)		개성부(開城府), 평양부(平壤府), 한양부(漢陽府)
조서(詔書), 제서(制書), 칙서(勅書)		교서(敎書)
황도(皇都), 황성(皇城), 원구단(圓丘壇)		

• 고려가 천자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강렬한 문화적 자존의식(自尊意識) ② 삼한(三韓) 일통의식(一統意識)

(4) 고려 말 조선왕조 이후 행해진 경기제는 고려와는 다른 성격이다. 조선시대 경기는 수도 한양과 구분되는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서, 8도 체제의 일부에 불과했다. 따라서 조선왕조 이후 경기의 의미는 크게 변화되었다.

2. 경기 천년의 의미

경기 천년의 의미를 어떻게 새겨야 할까?

첫째, 고려왕조는 거란의 침입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어 국왕 현종(1009~1031년 재위)은 공주, 전주, 나주로 피난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거란전이 끝난 후 국왕 왕실 관료 등 핵심 지배층이 거주하는 수도 개경에 대한 방어와 핵심 지배층에 대한 경제적 보장, 즉 군사, 경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이 같이 경기는 왕실과 조정의 보장처로서 설치되었다. 1018년 경기 설치에 이어, 1020년(현종 11) 개경 주변에 나성(羅城) 축조가 시작되어 1029년(현종 20)에 완성된다. 전쟁의 위기가 이같이 수도 개경을



서희 영정(표준영정 95호)

새롭게 변화시켰고, 왕실과 조정의 보장처로써 경기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또한 경기 설치의 건국 후 백년 만에 맞이한 왕조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

고 왕조를 중흥(中興)한 상징성을 갖는다.

둘째, 경기는 고려전기 정치 주도세력을 배출한 중심지였다. 왕경과 경기지역 일대를 '근기(近畿)'지역이라 한다. 근기는 왕도 및 경기와 가까운 지역을 뜻한다. 혹은 그보다 넓은 지역을 뜻하기도 한다. 고려 전기 지배세력을 본관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전체 60% 정도가 근기지방 출신이었다. 삼남지방(지금의 경상·충청·전라도) 출신이 과거합격자의 70~80%를 차지해 지배세력의 대대적인 변동과 교체가 이루어지는 고려 후기 이전에는 근기지방 출신이 정치를 주도했다.

거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근기 출신 인물들이 정치의 주도층으로 등장한다. 건국 초기 정치 주도세력은 과거제와 관료제도 등 선진의 중국 문물제도(華風)를 수용해 왕조 체제를 정비한 최승로, 최량, 이몽유, 김심언, 최지몽 등 6두품 출신 신라 및 후백제계 출신 유교 관료층이다. 거란이 침입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당시 민심은 성종의 화풍 중심 정책에 등을 돌린다. 이를 계기로 박양유, 서희, 이지백, 한언공 등 근기출신 정치세력이 정국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거란에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割地)론자들을 제치고, 팔관회 등 전통행사를 부활하여 민심을 결집시켜 압록강 이동 지역을 확보하는 등 거란전과 왕조 중흥을 주도했다. 경기가 설치된 것도 이 무렵이며, 이들이 경기 설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문벌귀족층이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고려전기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특히 안산 김씨 김은부는 두 딸이 현종의 비가 되어 처음으로 왕족 간의 근친혼 관례를 깨고 이성(異姓)이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두 비는 각각 고려 전성기를 열은 덕종과 정종, 문종을 낳았다. 문종은 인주 이씨 이자연의 세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으며, 이자연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일



청자상감포류수금문돈



청자음각국화문잔과 잔탁

의 첫째 딸 인예태후는 순종, 선종, 숙종의 세 국왕과 유명한 학승 대각국사 의천을 낳았다. 인주 이씨 일문은 이자겸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일곱 국왕을 배출하는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으로 지위를 유지했다.

셋째, 근기출신 인물들의 정치 주도권 장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물론 이들의 등장이 유교 관료층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 정치이념은 중국의 선진문물 수용을 촉진하여 왕권강화와 왕조를 새롭게 하는 여전히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근기세력의 등장은 민심의 호응을 받은, 건국 전후 성행한 불교, 도교, 낭가사상과 풍수지리 등의 전통사상인 국풍(國風 혹은 土風)이 새로운 주목을 받아 사상과 문화의 다양화와 다원성을 열어 놓았다. 이는 하나의 사상과 문화가 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고려 문화와 사상의 지형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고려전기 문화를 대표하는 청자, 나전칠기, 대장경, 인쇄기술, 고려지 등은

고려 문벌귀족층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에 따라 생산되었다. 이들 제품은 송, 거란, 여진 등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았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은, 오늘의 첨단 신소재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대장경, 나전칠기는 물론 초기 청자와 고려지 생산의 중심지였다. 특히 대장경은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인쇄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문화재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제품은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의 취향과 수요가 없다면 생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고려 전기 문화는 근기호족과 그 후신인 문벌귀족의 후원과 지원없이 불가능하다. 고려시기 경기지역이 갖는 역사적 위상은 이같이 매우 높았다.

3. 경기 천년의 과제

경기 천년을 맞이해 경기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성찰해야 할까? 경기가 지향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천년 경기의 비전은 고려시기 경기의 위상과 관련시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경기가 왕조의 정치엘리트 층원 다양한 문화, 군사,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듯이, 현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첫째, 2015년 경기연구원의 「미래비전 원탁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을 상대로 경기도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다양성, 위성도시 등을 주요 이미지로 들었다. 다음 경기의 특색과 장점으로 수도권(37%), 넓은 면적(13%), 도농복합(11%), 북한, 중국과 인접(6%),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6%), 다양성(6%)을 들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경기도의 이미지와 특색은 수도권(위성도시)이다. 현재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군은 경제, 교통, 의료, 산업생산의 여러 측면에서 비대해진 수도 서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두 지역이 상호 보완과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자칫 경기도가 서울의 위성도시 내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차별되는 새로운 비전과 위상 정립을 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한편 위 보고서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개념이 다양성이다. 다양성 속에는 도농 복합도시, 풍부한 산업과 관광 인프라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하여 경기도

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느냐 하는 것도 천년 경기의 또 다른 과제이다.

둘째, 천 년 전 경기지역은 상감청자, 인쇄술, 고려지, 나전칠기 등의 제작에 동아시아 세계의 호평을 받은 첨단기술을 발전시킨, 고려 전기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였다.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ggsymbol-brand>)에 따르면 경기도의 슬로건은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이다. ‘첨단 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핵심 전략개념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수원과 파주의 삼성과 LG 전자단지, 이천의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첨단 융합기술의 중심지이다. 경기도 주변은 항공, 항만 시설 등 첨단제품을 세계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핵심지역이 경기도이다. 이 같은 특성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경기도의 장점이다. 경기 천년의 미래 비전은 천 년 전 고려와 같은 수준의 첨단 융합기술의 발전 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셋째, 경기도는 넓은 지역이 북한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긴장과 대결 상황은 경기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는 경기도가 당면한 과제이며, 경기도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기여해야 할 역할도 매우 크다. 한편 한반도에 실질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 고려의 역사와 경기 천년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도 남북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화해와 평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이 경기 천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4. 고려 건국의 의미

고려왕조는 통일신라 이후 두 번째로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세운 왕조이다. 한반도 첫 통일국가는 668년 삼국을 통일한 신라왕조였다. 그러나 892년과 901년 각각 견훤과 궁예가 국가를 세우면서, 첫 통일국가는 약 220년 만에 사실상 붕괴되고 다시 한반도는 후삼국시대로 분열된다. 최초 통일왕조 신라는 진골귀족 중심의 폐쇄적인 정치

로 옛 고구려와 백제의 풍부한 인적 문화적 자원을 배제하여, 통일 후 백년이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후백제 건국 이후 약 50년간의 후삼국 통합 전쟁은 통일국가 수립에 실패한 역사의 참혹한 대가였다. 고려의 후삼국 통합으로, 70년 전 분단되기 전까지, 한반도에 약 천 년 간 통일국가가 유지되었다.

해방 이후 통일국가 수립의 실패와 분단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론과 한반도 전쟁 불사론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빚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고려왕조의 후삼국 통합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려왕조는 신라와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으면서 한반도를 통일했고, 통일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왕조가 운영되었다. 조선의 패망까지 한반도에 천년의 통일국가를 유지한 저력은 고려왕조가 이룩한 개방과 역동, 통합과 포용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덕목이자, 더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해야 할 시대 과제이다.

고려왕조가 이룩한 이러한 전통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태조 왕건은 소왕국의 군주와 같은 호족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협조로 새 왕조를 건국했다. 분열된 지역과 민심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지방 세력과 타협과 공존의 포용정책을 통해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타협과 공존에 기초한 포용과 통합은 진골귀족이 독점한 승자 독식의 통일신라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등 다양한 사상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했다. 문화에서 청자, 금속활자 등 세련미의 중앙문화와 철불, 석불 등 역동성의 지방문화가 함께 어울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다. 옛 삼국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해 나간 저력이 통일왕조를 건국하고 이후 천 년 간 유지할 수 있었다.

대외무역 장려 등 적극적 개방정책은 ‘코리아’라는 호칭으로 한반도를 서방세계에 처음 알리게 했다. 왕조에 필요한 인재는 국적과 종족을 가리지 않고 관료로 등용했다. 외국인이 재상이 된 경우는 고려왕조가 유일하다. 개방의 힘과 효과를 믿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하층민의 신분상승과 정치진출이 역시 가장 활발했던 때가 고려왕조였을 정도로 사회는 역동적이었다.

고려왕조 원형질이자 DNA인 개방과 역동, 통합과 포용의 다원사회 전통은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산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은 개방과 역동의 고려 역사전통을 현재의 대한민

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삼국 통합전쟁이 빚어낸 분열과 대립을 극복해 사회통합을 이룬 고려의 포용과 통합 정책은 미래 한반도 통일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5. 다원사회 고려왕조의 특성

고려왕조의 이러한 여러 특성은 국가체제를 천자국 체제로, 사회성격을 다원(多元)사회를 낳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원사회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이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독립된 실재(實在)를 인정하고, 그것에 의해 근본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세계관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원론적 세계관과는 반대의 뜻이다. 고려왕조의 역사는 다양한 질서와 원리, 즉 다원주의에 기반한 다원적인 사회였다. 다원사회는 다양한 개별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유지되면서도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사회적인 통합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 점이 다원사회의 강점이다. 이와 달리 골품제의 원리로 운영된 통일신라와 성리학의 원리로 유지된 조선왕조는 일원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 다원사회의 특성

다음은 다원사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과 통합성

고려시대에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등 다양한 사상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했다. 문화에서는 상감청자, 금속활자, 나전칠기, 불화(佛畵) 등 중앙의 고급 문화와 은진미륵불, 제비원석불 등 지방 세력의 투박하면서 역동적인 거대한 석불(石佛)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옛 삼국의 근거지에 뿌리를 내렸던 석탑문화와 목탑문화의 전통을 존중하고 포용하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팔관회(八關會)와 같은 국가적인 의례질서 속에 통합, 다양성이 지닌 개별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옛 삼국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해 나간 저력이 통일왕조를 건국하고 이후 천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정치와 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

수도 개경의 벽란도를 비롯해 서해안 일대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서 송나라, 거란, 여진뿐만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이곳에 와서 교역을 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호칭 ‘코리아(Korea)’는 ‘고려(Corea)’의 명칭에서 유래하였다. 왕조에 필요한 인재는 국적과 종족을 가리지 않고 관료로 등용했다. 외국인이 재상이 된 경우는 고려왕조가 유일하다. 개방의 힘과 효과를 믿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하층민의 신분상승과 정치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때도 고려왕조였을 정도로 사회는 역동적이었다.

한편 다원사회의 특성은 사회구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왕조 건국에 협력한 다양한 성향의 지방 세력에게 왕조정부는 그들에게 성씨(姓氏)와 함께 그들의 근거지를 본관(本貫)으로 삼게 했다. 또한 본관 지역의 중요성 즉 행정, 교통, 전략 생산의 조건에 따라 그곳을 다시 주현과 속현으로 편제하는 한편, 개간으로 신설된 촌락을 지배질서에 포섭하고 국가가 필요로 한 물품생산을 위해 향과 부곡, 소 같은 특수 행정구역의 설정했다. 주현과 속현으로 구성된 군현영역과 향, 부곡, 소 등으로 구성된 부곡영역 등 다양한 영역 구성은 마치 수많은 별집방이 모여 하나의 별집을 이룬 별집구조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 사회구조의 특성이자 다원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다원사회의 기원

다원사회가 형성된 원인은 고려왕조 성립 과정상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왕조는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하여 성립된 왕조이다. 예를 들면, 왕조 성립 이후에도 옛 백제 지역에는 백제식 목탑양식이, 신라 지역에는 신라식 석탑양식이 그대로 조성되었다. 옛 고구려 지역도 마찬가지로, 왕조 건국에 협조한 옛 삼국 출신 지방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 정책 때문이다. 지방 세력의 눈치를 보아야 할 정도로 중앙의 왕권이 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원사회가 형성된 또 하나의 원인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은 죽기 직전 자신의 통치 철학이자 왕조의 정책 방향을 담은 유명한 <훈요십조(訓要十條)>

十條》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가 고려왕조 건국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 절이 마구 지어지고 승려가 정치에 관여하는 등 불교의 폐단을 오히려 더 경계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 도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유교 윤리에 입각한 문물과 제도의 확립을 강조했다. 우리는 흔히 고려에서는 불교, 조선에서는 유교가 국교라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은 조선왕조의 법이나 제도가 유교 이념에 근거한 사실에 빗대어 상대적으로 불교가 중시된 고려왕조를 그렇게 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태조 왕건은 이같이 〈훈요십조〉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풍수지리 등 다양한 사상의 공존을 밝혔다. 실제로 고려왕조의 공식 행사에서 불교, 도교, 유교, 제천의식이 거리낌 없이 시행되었을 정도로 고려왕조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다. 고려왕조의 특성인 다원사회는 이같이 고려왕조 건국 시에 이미 그 기초가 닦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고려사 연구의 진흥을 위해

고려왕조가 이룩한 개방 통합 포용의 다원사회의 역사 전통은 곧 우리시대가 본받고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과 경기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는 일은 고려사 연구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다원사회 전통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한 근기호족과 그 후예 문벌귀족들의 정치와 사회, 문화적 역량은 정명 천년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이를 역사적으로 성찰하여 경기 천년의 비전과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건국 1,100주년과 경기 천년의 사업은 향후 고려왕조사 연구의 진흥이라는 큰 틀 위에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현재의 영남과 호남 일부지역에 영토가 걸쳐있는 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역사문제를 정책과제로 삼는 일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가야사가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동서 화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남북 화해와 통합 역시 우리역사에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 화해와 통합은 우리의 생존문제이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해결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에 천년의 통일국가를 수립한 고려왕조의 역사를 성찰하는 일은 남북 화해, 평화,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고려왕조가 우리역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왕조는 일반 국민은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잊혀진 왕조로 남아있다. 특히, 고려왕조사 연구가 매우 부진한 것도 그러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참고로 2015~16년 한국사 연구 성과 가운데 고려사 연구 성과는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자 숫자 등 연구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 남북 화해와 통합의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고려왕조사 연구 역시 가야사에 못지않은 중요한 분야이다. 그를 위해 후속 연구자 양성과 연구의 심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해 고려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중세사학회는 지난 백년 간의 고려사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고려사 연구의 미래를 진단하는 연구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기 각종 금석 및 문헌 자료를 새롭게 정리, 판독하여 종합적인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두 가지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남과 북에 각각 소장된 고려왕조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전시하고 고려 문화와 예술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남북 공동 학술회의도 준비 중에 있다. 고려왕조 건국의 참 의미를 새기는 전국 순회의 대중학술 강연 등 여러 가지 학술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참고 문헌

-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 「고려시대 남경지역의 개발과 경기제」, 『서울역사박물관논집』 1, 2003
- 홍영익, 「고려 경기제의 성립과 경기의 위상」, 『경기학연구』 창간호, 2017
- 심승구, 「경기를 통해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 58, 2015
- 박종진, 「고려전기 開城府의 변천과 지리적 범위」, 『東方學志』 157, 2012
- 정학수, 『高麗前期 京畿制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사진 출처

- 서희 영정(표준 영정 95호) / 서희 테마파크
-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일 / 경기도박물관
- 청자상감포류수금문돈 / 경기도박물관
- 청자음각국화문잔과 잔탁 / 경기도박물관

02

태조왕건의 고려건국 이야기

노명호 | 서울대 명예교수

1. 고려 태조 왕건이 활동한 시대상황

태조 왕건(王建, 877~943년; 재위 918~943년)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여, 후삼국으로 분열된 혼돈 속의 천하를 통일하고 새로운 시대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황제국 체제와 ‘해동천하(海東天下)’(후술)의 형성에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후삼국 통일은 많은 연구들로 일찍이 밝혀진 바이나, 황제국 체제와 해동천하는 근래의 연구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왕건이 활동한 시대는 신라 각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 무정부 상태의 약탈과 살육이 광범한 지역을 휩쓸며 구체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던 난세(亂世)의 후반기였다. 극심한 혼란의 한 편에서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다.

난세의 혼란은 동아시아 일대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당(唐) 나라는 망하여 중원(中原)에 반세기 동안 다섯 차례 왕조가 바뀌기를 거듭하고, 중원 외곽은 분열하여 열왕조가 일어나 경쟁한, 이른바 오대십국(五代十國)의 시대였다. 발해(渤海)도 정치적 혼란에 빠진 후 헤어나지 못하고, 북방족 신흥세력 거란(契丹)에게 망하였다.(925년)

발해가 망한 후 거란의 군사력은 고려를 위협하게 되었다. 거란의 지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만주 동부의 생여진(生女眞) 집단들과 발해유민들은 변동성이 큰 자치적인 상태에서 거란 세력의 위협을 받았다.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구체제인 골품제를 고집한 신라는 정치적 현안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점점 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왕건이 13살이었던 889년(진성여왕 3)에는 밀린 세금을 독촉하자 생존의 한계선에 내몰린 농민들의 전국적인 지방 반란이 일어나 신라의 통치력은 왕경과 그 주변에 국한되었다. 이후 곳곳에 무정부 상태의 약탈전·살육·납치가 횡행하였다. 최치원이 남긴 금석문에는 곳곳마다 전란과 굶주림으로 죽은 시체가 벌판에 가득 널려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한 승려는 “사람들이 짐승 같았다.”고 하였다. 해적들에 납치된 신라인들은 바다 건너 중국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보호해 줄 실력자들을 찾아 그 아래 모여들고 있었다. 여러 지역에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지방호족들이 등장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얻고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발휘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결집하여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전국적 지방 반란이 일어난 지 10년 정도 후에는 대소의 여러 군웅(群雄)들이 각지에 자리 잡고, 그들 중에는 독자적인 나라를 선포한 두 세력도 등장하였다. 견훤(甄萱)의 후백제(後百濟)와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가 등장하여, 신라와 대립하는 후삼국시대가 되었다.

상주(尙州) 사람인 견훤은 서남해(西南海)를 지키던 신라의 하급 무관인 비장(裨將) 지위를 발판 삼아 무리를 모아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먼저 신라 왕경 서남방 지역을 공략하여, 이르는 곳마다 호응을 받아 무리가 급증하여 5천 인이 되었다. 이에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를 함락시키고, 왕(王)이라 칭하였다. 이어서 전주(全州)로 나아가 세력을 더 키운 다음 900년에 후백제(後百濟)의 건국을 선포하고, 뒤이어 오월(吳越)과도 외교관계를 열었다.

궁예는 신라 왕실의 서출(庶出)로서 어린 나이에 권력에 희생될 위기를 겪었다. 그는 벽촌에 숨어 성장하여, 세달사(世達寺)의 승려가 되었다가 난세를 평정할 뜻을 품고 환속하였다. 그는 북원(北原; 지금의 원주)의 양길(梁吉) 휘하에 들어가 지휘하게

된 1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으로 공략해 나아가 894년에는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에 이르렀다. 그사이 따르는 무리는 계속 늘어 3,500명이 되었다. 그 후 동북쪽으로 진출하여 철원까지 격파하며 세력을 떨치니, 신라 북서부 지방인 패서(溍西)의 호족들까지 그에게 귀부하였다. 896년에는 철원을 도읍으로 삼아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왕건 집안은 이 무렵 그에게 귀부한 후,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지금의 경기 지역과 충주·청주까지 판도를 넓히고, 901년(효공왕 5)에 후고구려(後高句麗)를 정식으로 개국하였다.

2. 시대적 당면과제와 후삼국의 통일

1) 궁예와 견훤의 실패

후삼국 시대의 가장 시급한 시대적 당면과제는 신라의 지배력의 붕괴를 초래한 두 가지 사안의 해결이었다. 하나는 신라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붕괴시킨 농민반란의 원인이 된 민생파탄을 수습하고 그렇게 만든 수취체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수취체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농민반란 후 각지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인 호족세력들을 통합하고 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두 현안의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란과 패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견훤과 궁예는 혼란기에 대세력을 형성하여 나라를 세우고 신라의 구체제를 무너뜨렸으나, 이러한 시대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질서와 체제 모색에는 실패함으로써 점차 내부 정치적 문제와 갈등이 증폭되며 약화·도퇴되는 길에 들어섰다.

궁예는 초기에 사줄과 고락(苦樂)을 함께 하고 공정무사(公正無私)하게 통솔력을 발휘하여, 휘하의 신망을 얻었다. 승려 생활의 불교 경험을 가진 그는 미륵신앙(彌勒信仰)을 전파하며 이상향(理想鄉)의 도래를 설파함으로써 난세에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하층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으로 왕이 되기에 이르렀지만, 시대가 당면한 현실의 큰 문제들에 직면해서는 국왕으로서의 경륜(經綸)과 통치능

력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는 현실 문제의 사실들을 파악하여 해법을 찾기보다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세워 정치적 한계를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쌓아 온 통치력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당시 여론의 향배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불교계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목숨이 위험해 직언(直言)을 못하고 거짓을 아뢰게 된 조정 신료들은 그의 통치를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직언을 하는 그의 왕비와 아들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고립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불신하며 역모를 의심하다가, 왕건을 추대한 정변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타도되었다. 이로써 918년 6월 병진(丙辰; 음력 15)일 고려 태조가 즉위하여 고려 왕조가 세워졌다.

건훤은 신라 정규군의 조직을 경험한 현실의 형세파악에 뛰어난 지략가였다. 그는 현실적 지략가로서 국내에서 세력을 키우는 데는 물론 대외적 외교활동에도 기민하게 공략할 틈을 찾아 재빠르게 움직인 능력자였다. 그러한 능력자인 건훤은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으나, 그 발전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후백제와 고려의 군사적 충돌은 925년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후백제가 우세하였으나, 929년 고창(古昌) 전투 이후에 점차 형세가 역전되어 갔고, 934년 운주(運州; 지금의 홍성) 전투에서 후백제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였다. 건훤이 군사적 지략이나 병력에서 열세인 것은 아니었다. 건훤은 “병력은 북군(北軍; 고려군)의 갑절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불리하니, 아마 하늘이 고려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¹⁾ 고려의 군사력은 남쪽의 후백제와 대결하는 동시에 북방의 거란이나 여진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북면 쪽에도 크게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병력 수에 대한 건훤의 말은 사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군과의 대결에서 외형은 열세가 아니었으나, 건훤의 군대는 점차 처음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설득과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훤의 정치 방식에 후백제는 설립자 당대에 이미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커지며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35년 끝내 건훤은 장자 신검(神劍)에 의해 유폐되었

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투항하였고, 태조 19년(936년) 신검의 후백제도 건훤이 앞장선 고려의 원정군에 망하고 말았다.

2) 호족연합체제-용현(用賢)·취민유도(取民有度)

왕건의 정치는 시대적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설득·타협에 비중을 둔 점에서 건훤이나 궁예와 다른 면이 나타난다. 그의 정치는 시대의 현안들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현실 문제의 핵심과 밀착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각된 각 지역의 호족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설득과 타협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단순한 현실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질서로 발전해 갈 정책 실행의 기준 및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 그 기준 내지 방향 설정에 그가 많이 의거하였던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정치문화의 중심요소인 유교 정치이념이었다.

왕건은 918년 6월 즉위 초부터 학사(學士)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며²⁾,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松嶽; 지금의 개성)으로 옮긴 919년 정월 경에는 새로운 성격의 관부인 내의성(內議省)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³⁾ 내의성은 왕에게 정치적 고문 역할을 하고, 간쟁(諫爭)을 담당하여, 유교이념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구였다. 태조 재위기간을 통해 내의성의 기능은 계속 커지게 되는 바,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그 전의 왕조들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였다.

왕건의 고려가 추구한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것들이 호족연합체제와 용현 그리고 취민유도였다. 그것은 호족들이 통치하는 지방들로 분열된 천하를 새로운 질서의 통합된 국가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호족연합체제는 태조 왕건이 각지의 호족들을 새로운 국가의 지배층으로 인정하고 참여하게 설득하고 포섭한 결과로 성립하였다. 그는 즉위하자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예물과 겸손한 말로 포섭하려 하였는 바, 귀부(歸附)하는 자가 과연 많았다

2) 『고려사』 권127 반역 환선길전. 같은 책, 권1 세가 태조 원년 6월 경신일. 경신일은 즉위 후 4일 째 되는 때이다.

3) 종래의 연구들에서 내의성은 대체로 태조 초부터 재위 13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신수정은 개경 천도에 결합된 기사내용의 새로운 해석과 장관인 내의령 임명 사례가 태조대에 있었음을 밝히며 내의성 설치 시점을 태조 2년 경으로 보았다.(2015 『고려 초기 내의성의 성립과 운영』 『사학연구』 117)

1) 『삼국유사』 권2 후백제 건훤. 민현구는 건훤의 이 말이 운주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였을 것으로 보았다.(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上 일조각)

고 한다. 그의 후비(后妃)는 29명에 달하였는데, 고려 건국 이후에 정략적 목적으로 납비(納妃)된 유력 호족들의 딸들이 많았다. 왕건은 후백제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에 대해서도 유화책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⁴⁾

귀부나 혼인관계를 통해 포섭된 호족들은 고려국왕에 대해 충성하는 대신 그들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호혜적(互惠的) 관계의 충성과 지배권 인정의 실제 내용은 초기에는 고려 중앙정부의 힘이 지리적 원근 등에 의해 호족들의 지역에 미치는 차이가 컸던 만큼 일률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가 후백제와의 세력 대결에서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고, 다시 후삼국을 통일한 단계에 이르면서, 호족들의 충성과 지배권 인정의 내용은 확고한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조정되어 왕건이 제시한 방향과 기준에 따라 점차 정형화되고 제도화되어 갔다.⁵⁾

지방관의 파견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지방의 호족들의 기존 통치권은 그들이 고려 국가의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형태로 조정되어 인정되었다. 그들의 기존 통치권은 중앙정부의 통솔을 받는 자치권으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호족들의 기존 행정조직이나 군사조직 등도 대부분 존속되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인정되었다. 단, 지방과 중앙의 지배층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관리의 발탁이나 임명에는 인품·경륜·학식을 갖춘 유능한 인물인 현인(賢人)을 등용한다는 용현(用賢)의 기준이 있었다. 왕건이 즉위 후 공포한 첫 번째 인사발령 조서(詔書)의 서두에 발표된 것이 “용현이 급한 일이다”였다. 용현이라는 관리

임용의 기준은 왕건이 중요시하여 계속 추구한 원칙이었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어 과거제의 도입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갔다. 통합된 국가의 지배층이 형성되고 정부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관리인사 원칙이 수립됨으로써 왕건은 정치적 질서와 힘을 점차 강화할 수 있었다.

왕건은 지방 호족을 포함한 고려의 지배층에게 백성에 대한 수취(收取)는 법도(法度)에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즉위 조서에서부터 백성들의 요역의 빈번함과 부세의 과중함을 개혁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수취율 자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키지 않고 초과하는 수탈이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 후 정치적인 중요한 계기에 내린 조서에서도 계속 취민유도를 강조하였다. 그 법도는 유교이념의 이상적인 세율인 10분의 1세였다.⁶⁾ 지배층의 일원이 된 지방의 호족들이나 중앙의 관리들은 취민유도의 기준을 지키도록 점차 통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역시 후대의 왕들에 의해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의 수취율로 자리잡게 되었다.

취민유도를 주축으로 한 민생안정책은 후삼국 통일 전쟁 기간에도 부단히 추구하고 있었다. 그 민생안정책에 의해 서서히 사회가 안정되어 감으로써 정치적 질서의 회복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정예화된 힘을 키워, 후삼국 통일의 대업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다.

신라중앙귀족의 눈으로 보면, 왕건은 변방출신에 불과했다. 그러한 왕건이 시대적 현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유교정치이념의 이상적인 제도를 참고하며 먼 후대까지도 남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그를 돕고 뜻을 모은 경륜 있는 훌륭한 신료들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왕건 자신이 당대의 유능한 현사(賢士)들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소양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왕건은 송악군(松嶽郡; 지금의 개성)에 뿌리를 둔 호족 출신이었다. 그는 지방을 이끈 호족가문에서 성장하여 호족과 지방민의 실태를 가깝게 접하며 깊이 인식하였다.

4) 궁예만이 반신라정책을 폈고, 견훤도 왕건과 마찬가지로 친신라정책을 썼다는 견해도 있다.(신호철, 2000 『후백제 견훤 왕의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 『후백제와 견훤』, 백제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견훤이 신라왕에 대한 “존왕(尊王)”을 표방한 것 등에서 말로는 그러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 정책을 드러내는 신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 그가 후삼국시대의 신라가 지배하는 성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이나, 왕경을 급습하여 왕과 왕비 등을 죽인 것은 그의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보여준다. 그의 신라 왕경 급습은 박씨왕 정권인 경애왕(景哀王)의 친고려 정책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김상기, 1961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pp.30~31), 경애왕의 친 고려정책도 견훤의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왕건의 신라에 대한 유화책의 결과였다. 심지어 견훤이 즉위시킨 경순왕조차 고려 쪽으로 돌아선 것 역시 같은 동기에 의한 결과를 잘 보여 준다.

5) 태조대의 정치체제는 호족연합체제가 아니라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왕국체제라는 견해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왕건의 통치권의 상태는 지역별 시기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후기, 특히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 왕건의 왕권은 후대의 왕들과 비교해서도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왕권은 후대의 왕권과 비교할 때 어린 왕의 재위도 가능할 정도로 갖추어진 왕국의 제도와 체제가 밀반침하는 부분이 적고, 태조 왕건 자신의 호족 및 신료들에 대한 개인적 신망과 경륜에 기반한 부분이 컸다. 호족연합체제적 상태를 탈피하여 왕국체제를 정비하여 갖추는 것은 광종대 개혁 이후의 일이라고 보는 기존 통설이 타당하다.

6) “고제(古制)”나 “구제(舊制)”의 해석을 신라 고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이견도 있으나, 그 용어의 용례로 보아 1/10세인 유교경전에서 말하는 이상적 제도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방학교의 보급이나 불교 사원의 승려 등을 통한 한학교육에 의해 지방에도 유교정전을 중심으로 한 한학적 소양을 갖는 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송악군은 광대한 황해연안 항로의 요지이자, 한반도 전역과 대륙을 오가는 육상교통로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각종 물자·서적·인물·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고려사』의 왕건 선대 전설에 의하면, 그의 선대는 송악의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해상(海商) 활동을 통해 부(富)를 쌓은 지방 호족세력이기도 하였다. 교역을 통해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그의 집안은 그곳을 오간 국제적인 선진 문물, 국내외의 정세와 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인물에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은 지방출신이었던 왕건이 유교정치문화 등 당나라 선진문물과 함께 국제정세를 포함한 시대 상황에 대해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추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황제국체제와 북방정책

남방에 위치한 후백제나 신라와 달리, 고려는 북방의 대륙과 연결된 정세에 바로 대처해야 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고려의 인접한 북변에 해당하는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일대는 발해 멸망을 전후하여 힘의 공백 지대로 남겨져 있었다. 발해 멸망 후 거란의 지배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만주(滿洲) 동부와 한반도 북변에는 자치 상태의 발해 유민집단들과 생겨진 집단들이 분산된 정치적 집단들로 존재하였다. 또한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대하는 동아시아의 초강대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란(契丹)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고려는 근본적인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왕건은 평양 일대 등 북변지역이나 자치 상태의 발해 유민집단 및 생겨진 집단에 친취적인 북방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란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동맹적 세력권을 결집하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책과 직결된 것이 황제국체제와 고려 중심의 소천하였다.

1) 고구려계승의식·대발해유민정책·북방경영

건원과 궁예도 난세의 평정과 후삼국통일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은 통일신라의 판도 내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한 왕

건의 후삼국통일은 단지 통일신라의 회복이 아니었다. 왕건은 즉위한지 네 달 만에 황폐된 채 방치되었던 평양을 대도호부로 삼았다가 곧 서경(西京)으로 격상시켰다. 남방의 백성들을 사민(徙民)시켜 충실하게 하고, 성을 쌓아 당제(堂弟) 왕식렴(王式廉)에게 지키게 하였다. 왕건은 서경에 자주 순행하였으며, 태조 15년(932년)에는 군신(群臣)에게 서경 경영에 대해 이르기를 “삼한을 평정하고 장차 이곳에 도읍(都邑)을 정하려 한다.”고 하였다. 왕건은 적극적인 북방경영의 뜻을 분명히 천명하고 그것을 실행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또한 북변의 진성(鎭城)을 설치하며 개척해 나갔다.

왕건의 적극적인 북방경영의식은 “고려”라는 국호에서도 나타나는 국초 이래의 고구려 계승의식과도 연관되었다. 궁예가 초기에 국호를 잠시 고구려의 이칭인 “고려”라 한 것은 지역주민의 고구려 유민의식에 편승한 정략적인 면이 강하고, 본인의 고구려 계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곧 마진(摩震), 태봉(泰封) 등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왕건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그가 자라난 지역문화의 토양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송악군이 포함된 한반도 서북부 옛 고구려지역에는 동명신앙(東明信仰) 등 고구려계의 토속문화가 민간에 뿌리박고 고려 말기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동명 신상(神像)과 지모신(地母神) 성격의 유화(柳花) 신상이 사당에 안치되어 숭배되고 있었다. 동명신앙은 민간에 널리 분포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가적 제례 대상이기도 했다. 이규보의 진술에 의하면, 동명신앙이 민간에 뿌리박은 가운데 동명신화는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사회 하층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동명신상 등 고구려계통의 신상은 옷을 입히는 나체상 양식으로, 동아시아 일대에서 제례용 신상으로는 특이한 것이었다. 왕건의 아들인 광종대에 제작된 태조 왕건 동상이 고구려 신



착의형 나체상으로 제작된 태조 왕건의 동상

상양식인 것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연결된 주목할 사실이다. 그 왕건 동상은 고려 말까지 국가적 최고의 신성한 상징물로서 숭배되었다.

역시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발해가 망하고 오랜 후에도 발해유민 중에 동명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도 주목할 사실이다. 그 발해를 왕건은 “친척의 나라”라 하여 일종의 동족의식을 나타낸 바 있다. 태조 17년에 발해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발해유민을 대규모로 이끌고 내투하였을 때, 왕건은 그에게 왕실의 성인 왕씨를 사성(賜姓)하고, 발해의 종묘 제사를 받들게 하는 등 신라왕 김부와 후백제왕 견훤에 준하는 최고의 예우를 하였다. 대광현이 이끈 집단 외에도 대단히 많은 발해 유민집단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려에 내투해 들어 왔는데, 여진족이나 거란족 등의 다른 종족과 달리 그들은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것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승되었다.

2) 황제제도의 시행과 고려 중심의 천하

고려태조 왕건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황제제도나 그 후 점차 형성된 고려 중심의 천하와 관련된 사실들은 근래에 밝혀지고 있는 고려 역사의 왜곡되지 않은 모습이다. 고려 역사의 중요한 모습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조선 초의 주자학 이념의 사대명분론(事大名分論)에 따른 역사편찬의 영향이 컸다. 사대명분론은 경직성을 띠는 주자학이념 외에도 동아시아의 새로운 유일 최강대세력인 명(明) 나라가 조선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 압박하는 국제적 형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편찬된 『고려국사(高麗國史)』의 편찬에서 정도전 등은 사대명분론에 어긋나는 고려의 황제제도를 제후국의 제도로 바꾸어 황제·천자를 왕으로 바꾸어 서술하는 등의 ‘개서(改書)’ 방식을 취하였다. 그것을 보완하여 다시 편찬한 변계량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황제제도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실들이 제대로 서술될 수 없었고, 역사적 사실들의 왜곡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역사서술 방식의 구조적인 큰 문제로서 당시의 관료들 속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대명분론적 이념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변계량 등은 끝까지 개서를 관철하려 하였다. 이에 치열한 논쟁과 함께 고려 역사를 거듭 다시 편찬하며 반세기가 흘렀다.

그 논쟁을 종결시킨 세종은 고려의 황제제도를 비판하더라도 사실은 그대로 서술하는 ‘직서(直書)’를 지시하였는데, 그 결실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이다. 그러나 그

‘직서’ 원칙은 황제·천자 등의 위호나 고려가 중심이 되는 천하 등 황제제도의 핵심적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황제제도의 관제 등 부수적인 사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직서였다. 그 결과 고려의 황제·천하 등이 삭제되거나 왕 등으로 개서됨으로써 태조 왕건대 이래로 시행된 고려의 황제제도는 『고려사』 등에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최근까지 역사학계에서는 『고려사』 등에 적용된 ‘직서’가 온전한 직서라고 잘못 파악함으로써 고려 황제제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없었다.

태조 왕건은 즉위한 첫 날,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황제제도에 따라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으며, 즉위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그가 황제제도를 시행한 주요 동기는 무엇보다도 고려가 중심이 된 천하를 결집시켜 거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북방경영의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황제제도는 성종대 이후 잠시 중단되지만 대체로 후대의 왕들에 계승되어 13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926년에 세운 동단국(東丹國)이 928년 요양(遼陽)으로 철수하자, 동만주 일대에는 거란에 항거하며 자치 상태에 들어간 발해유민이나 생여진(生女眞) 집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 왕건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정복팽창을 멈추지 않는 거란에 대한 방비는 고려에게도 국가의 흥망이 걸린 중요 현안이었다. 이러한 공동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고려가 중심이 되어 생여진·발해유민 집단들을 규합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갔다.

발해가 망하기 전에도 고려의 북변에는 발해의 지배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여진집단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이 태조 왕건대 초기부터 고려의 ‘번(蕃)’으로 지칭되는 여진집단들이었다. 왕건은 이들과의 관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다. 즉위 두 달 뒤에는 궁예를 피해 북변으로 들어가 골암성주가 되어 흑수번중(黑水蕃衆)을 이끌던 윤선(尹瑄)이 귀부하였다.

재위 3년(921년)에는 여진의 사정을 잘 아는 유금필과 군대를 파견하여 북변 골암진(鵝巖鎭) 일대를 침입하는 여진 추장 300명을 복종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고려인 3천여 명을 귀환시켰다. 발해멸망 후 특히 928년 동단국이 요양으로 옮겨 간 후, 동만주에는 자치 상태에 들어간 생여진 집단들이나 발해 유민집단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려의 선무(宣撫)는 계속되어 고려에 귀부하는 집단들이 확대되었다. 태조 19년(936년)의 후백제를 정벌한 통일전쟁에는 유금필의 통솔

하에 흑수·달고·철록 등 '제번(諸蕃)의 기병'이 9,500명이나 동원되고 있었다.⁷⁾

당시 황제제도가 시행되었는바, 생여진 집단 등은 고려에 찾아와 방물을 바치는 형태의 교역을 하기도 하고, 그 수장은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였다. 이 고려를 중심으로 한 생여진·발해유민 집단의 규합은 군사적으로는 대거란 동맹의 성격을 띠었다. 그들은 실제로 성종대와 현종대에 거란의 고려 침입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란군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첩보를 알려 오기도 하였고, 거란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다.⁸⁾ 거란도 이러한 고려가 중심이 된 여진 집단들·발해 유민집단들의 대거란 동맹을 잘 인식하였다.⁹⁾

거란은 이미 태조 왕건대부터 이러한 대거란 동맹에 대처하고 와해시키려는 계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태조 왕건은 넓은 안목으로 그 계책을 간파하고 잘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은 927년 고려와 대결을 벌이는 후백제와 바다를 통해 연결하고 있었다. 이 밀회는 사신이 탄 선박이 풍랑을 만나 중국 후당(後唐)에 표류함으로써 후당의 통보로 고려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고려가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꾀하는 거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후, 거란은 937년, 939년, 942년에 걸쳐 자주 사절을 파견하였다.¹⁰⁾ 이는 전에 없던 일이며, 특히 942년에는 30명에 달하는 많은 사신 일행과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왕건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화친을 약속하고, 갑자기 배반하여 멸망시킨 무도(無道)한 나라이어서 교린(交隣)할 수 없다고 하고 사신은 모두 바다의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개경 외곽 만부교(萬夫橋) 아래에 매어 놓아 굶어 죽게 하였다.

친선 사절을 유배 보내고 살생이 죄악시되는 불교신앙을 가진 왕건이 죄 없는 낙타를 오랜 시간에 걸쳐 죽게 만든 이 사건은 만주의 발해 유민과 여진 집단들을 놓고 거

란의 계략에 맞서는 상황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국통감』에서는 당시의 정세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을 태조의 발해를 위한 복수라고 보고, 결맹을 요청하러 온 사신을 죄준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 당시의 정세와 관련하여 성호(星湖)는 이 사건이 발해 때문이 아니라, 의(義)를 들어 장차 강토를 다투려 한 것이라고 하고, 발해의 유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¹⁾

이 무렵 고려를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던 동맹세력들은 거란의 사절 파견 공세에 의해 양국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동맹세력들이 더 이상 고려를 믿고 대거란 동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거란의 사절공세가 있었던 기간 동안 『요사』 본기의 기록에는 여진 집단의 거란에 대한 조공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940년과 941년에는 고려의 북변에 인접한 압록강여진까지 거란에 조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가 중심이 된 대거란 동맹에 발생한 이완현상 내지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개성지도의 낙타교

7) 김광수, 1977 「고려건국기의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사충』 제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8) 『宋史』 外國傳3 高麗傳에는 “大中祥符 3년(1010)에 거란이 대거 침입하니, 詢(고려 현종)이 여진과 더불어 공격하여 거란군을 거의 다 죽였다”고 하였다. 이 기사는 1018년 구주대첩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9) 거란 흥종(興宗)의 신임을 받았던 소한가노(蕭韓家奴)는 고려 원정에 대해 언급하는 중에 “발해유민, 여진, 고려가 합종연횡(合從連橫)하였다”고 하였다. 『遼史』 열전33 蕭韓家奴傳

10) 『遼史』 本紀3 太宗 上 天顯12년(937) 9月 辛未條. 같은 책 本紀4 太宗 下 會同2년(939) 春正月 乙巳條. 『고려사』 세기1 태조 25년 동10월조.

11) 『星湖僊說』 권21 經史門 渤海. 『동사강목』 제6 상 (고려 태조) 壬寅 25년 동10월조에도 성호의 글을 인용하였다.

남진 팽창을 계속하는 거란의 동맹 요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확고히 말하고 있는 왕건이 여진의 동향과 관련하여 거란의 사절 파견에 담긴 계락을 간파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피할 수 없는 거란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유지를 위해 동맹세력들에게 고려의 대거란 대결의지를 공개적으로 뚜렷하게 보여 주어야만 되었다. 거란 사절의 유배도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 개경을 오간 내외국인들을 통해 만부교 아래에 묶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간 거란 사절의 낙타페 이야기는 세간의 화제가 되어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부교는 이름이 바뀌어 조선 후기 고지도에까지 “낙타교”로 표시될 정도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세간에 알려지는 것이 왕건이 의도한 바였던 것이다. 이 사건 후 여진이 거란에 조공한 기록은 급감하며, 여진이 거란의 변경을 공격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고려가 중심이 된 대거란 동맹이 다시 힘을 찾게 된 것이다.

왕건이 시작한 황제제도는 이러한 대거란 동맹에서 고려가 맹주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성종대에 송(宋) 나라만이 진정한 천자국이라고 본 화이론자(華夷論者)들이 집권한 후 별다른 외압도 없는 상태에서 이념에 따라 송과의 사대관계만을 중시하여 고려의 황제제도를 제후제도로 바꾸는 바, 고려를 중심으로 한 대거란 동맹 역시 해체되고 만다. 고려의 황제제도는 현종의 즉위 후 복구되어 가는 바, 현종 3년(1012년)에는 여진 모일라(毛逸羅) 등이 30성(姓) 부락을 이끌고 와서 결맹(結盟)을 요청하므로, 고려가 중심이 되는 광범한 여진 집단들과의 동맹이 복원된다.¹²⁾

당시 황제국인 고려는 생겨진 집단들을 제후 또는 그 제후의 강역이라는 의미의 “번(蕃)·북번(北蕃)” 등으로 불렀다. 황제국인 고려와 그 주변의 북번 등을 아우르는 범위는 고려가 중심이 된 천하로 관념되기도 하였다. 『제왕운기』에서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며, “요하(遼河) 이동에 별도의 천지(즉 천하)가 있다”는 것도 그러한 천하의 관념을 서술한 것이다.

12) 30성 여진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진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여 함경남도 일부지역의 여진으로 보는 일본인 학자의 견해도 있으나, 이동복은 30부여진의 전반적인 활동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 북변에서 간도지방 및 수분지역과 阿什河 유역에 이르는 여진집단의 총칭으로 보았다.(1986, 『동북아시아사연구: 금대여진사회의 구성』 일조각, 2장 2절 30부여진의 문제)

참고 문헌

- 김광수, 1977 「고려건국기의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사총』 제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 김용선 편, 2008 『궁예의 나라 태봉 : 그 역사와 문화』, 일조각
- 노명호, 1998 <고려지배층의 발해유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 《산문사학》 8
- 노명호, 1990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 노명호, 2014 「고려사의 ‘僭擬之事’와 ‘大赦天下’의 ‘以實直書’ : 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출판문화원
- 노명호, 2011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 황제제도·고구려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 문경현, 1987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 민현구, 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上, 일조각
- 백제연구소 편, 2000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 이동복, 1986 『동북아시아사연구: 금대여진사회의 구성』, 일조각
-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 추명엽, 2002 <고려전기 ‘藩’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사진 출처

- 착의형 왕건 동상 / 노명호
- 조선 후기 개성지도의 낙타교 / 노명호

03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 문화유산

이광표 | 동아일보 논설위원

1. 개성과 고려

서울에서 약 80km, 승용차로 불과 한 시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나서면 바로 거기 북한 땅 개성(開城)이 나온다. 개성은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 수도가 된 이래 강화로 수도를 옮겼던 기간(1232~1270년)을 제외하고 440여 년 동안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다. 고려시대 때 개성의 이름은 개경(開京)이었다.

고려 수도 개성은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다. 비 오는 날 개성에서 서쪽의 예성강까지 처마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도 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올 정도였다. 고려 때 예성강 하류에는 벽란도(碧瀾渡)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다. 고려와 무역을 하기 위해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벽란도항에 드나들었을 만큼 벽란도는 크게 번창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알려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고려의 경제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 년 전 그 때의 영화(榮華)는 보이지 않고 지금은 분단의 아픔이 쓸쓸히 남아 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모습

그럼에도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려의 흔적은 개성 도처에 여전히 남아 있다. 고려의 왕궁이었던 만월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수도를 지켜냈던 나성,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무덤, 애뜻한 사랑으로 널리 알려진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무덤, 불교국가 고려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영통사와 같은 사찰, 고려 탑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불일사 5층 석탑과 현화사 7층 석탑,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고려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선죽교, 독특한 모습으로 승탑의 파격적인 미락을 구현한 화장사 지공선사 승탑, 하늘의 천문을 관측했던 고려 침성대 등등.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힘입어 개성의 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적인 개성 성곽(고려 말~조선 초), 개성 남문(조선), 만월대, 침성대, 성균관, 숭양서원(조선), 선죽교, 표충비(조선), 왕건릉, 7왕릉, 명릉, 공민왕릉의 12개 개별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적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고려의 유적·유물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개성이 고려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북한 땅 개성은 남북 갈등과 남북 화해의 현장이다. 분단의 상흔이고 또한 통일과 희망의 상징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후 2004년 개성공단을 가동했고 2007년 12월엔 개성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2016년 2월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남과 북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만월대를 공동 발굴했다. 만월대 터 가운데 서쪽 지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해 수많은 건물의 흔적과 유물을 발굴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5년엔 고려시대 금속활자 한 점을 발굴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후 남북공동발굴은 2016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채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는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때 남북공동발굴 특별전 <하나된 고려, 하나되는 남과 북-고려왕궁 개성 만월대>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엔 특히 남북 화해 분위기와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성이 다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 수도 개성은 우리에게 매우 각별한 곳이다. 개성의 고려 문화유산은 통일시대 경기의 소중한 역사문화의 당당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개성의 고려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까닭이다.

2. 오백년 도읍지, 고려왕궁 만월대

1928년 서울 단성사(團成社)에서 신파극단 취성좌(聚星座)의 공연이 열렸다. 여배우 이애리수가 막간을 이용해 무대에 등장해 새로 나온 가요를 불렀다. 곡조는 구슬뿔고 가사는 애잔했다. 신곡 「황성옛터」였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황성옛터」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月色)만 고요해 / 폐허의 설은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 잠 못 이뤘 /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저요.’

고려의 옛 궁터 만월대의 달 밝은 밤, 그 영화(榮華)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역사



만월대 터 전경



만월대 모형 / 고려역사박물관 소장

의 무상함만 짙게 내려앉았다. 이 쓸쓸한 가사가 애수 어린 곡조와 함께 식민지 시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설움과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1932년엔 레코드로 발표됐고 무려 5만 장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레코드에 적혀 있는 공식 이름은 「황성(荒城)의 적(跡)」이었다.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의 흔적 가운데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역시 고려왕궁 만월대(滿月臺)의 터다. 만월대는 송악산을 북쪽에 배경으로 두고 남쪽의 구릉 지대에 널찍하게 펼쳐져 있다. 흙을

높이 돋운 뒤 건물들을 세웠다. 송악산 자락의 지기(地氣)를 훼손하지 않고 동시에 건물을 높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고려왕조와 왕궁의 위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만월대는 동서 길이 373m, 남북 길이 725m, 둘레 2170m에 이르며 북한 국보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다.

만월대라는 명칭은 당초에는 높은 축대를 쌓고 지은 정전(正殿)인 회경전(會慶殿)의 앞뜰을 가리켰는데, 훗날 궁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만월대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때인 1530년에 펴낸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등장한다. 만월대라는 명칭도 처음부터 만월대였던 건 아니었다. 왕궁 안에 망월대(望月臺)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그 망월대의 이

름을 따 망월대 망월대 부르다가 만월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만월대는 개성에 있는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법궁(法宮) 역할을 했다. 만월대는 외곽의 황성과 내부의 궁성으로 이루어졌다. 궁성 권역은 크게 정전인 회경전 중심의 외전 일곽과 장화전(長和殿) 중심의 내전 일곽, 서북쪽의 침전 일곽으로 이뤄져 있었다. 건축물을 남북 중심축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축을 다르게 하여 자유롭게 배치했다. 만월대의 건물 배치는 고구려 왕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구려를 계승하려 했던 고려의 정신을 왕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궁성을 보면, 남문인 승평문(昇平門)을 들어서면 구정(毬庭, 격구 경기를 하는 넓은 마당)이 나오고 구정을 지나면 다시 신봉문(神鳳門)이 나온다. 신봉문과 이어 창합문(闔閤門)을 지나면 궁궐의 중심 전각인 회경전(會慶殿)이 나온다. 회경전은 33단으로 된 4개의 돌계단 위에 꾸며져 있었다.

회경전은 만월대의 정전이다. 회경(會慶)이라는 한자 의미에 걸맞게 고려의 정치 의례와 같은 주요 의전을 거행했던 공간이다. 특히 기우제와 같은 국가 행사, 중국 사신의 접대 등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렀다. 그러나 현재 회경전의 건물이 단층(單層)이었을지 중층(重層)이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그 구조를 밝혀줄 만한 결정적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경전 서쪽에는 임금과 신하가 조회를 하는 건덕전(乾德殿), 임금의 집무 공간인 선정전(宣政殿), 임금이 기거하는 중광전(重光殿) 등이 모여 있었다. 이 서쪽 구역이 바로 남과 북의 역사학계가 7차례에 걸쳐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이다.

만월대는 원래 후삼국의 하나인 태봉국(후고구려)의 왕궁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에 고치고 확장해 지은 것이다. 그 후 1232년 몽골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던 39년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고려의 왕궁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현종 때 거란의 침입,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고종 때 몽골 침입 등으로 인해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며 시련을 견뎌냈다. 하지만 1361년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와 만월대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폐허로 변해 버렸다. 지금의 만월대의 폐허는 그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만월대의 웅장했던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빈 터와 함께 주춧돌, 계단들만 남았다. 폐허가 된 만월대 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궁궐의 중심 건물인 회경전에 오르는 33

계단의 장대함이다. 쓸쓸함과 웅장함이 교차하는 그 모습 속에 고려왕조 오백 년의 영욕(榮辱)이 고스란히 교차한다. 북한은 현재 개성의 고려역사박물관에 만월대의 모형을 전시해 놓았다.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으로 만월대가 크게 훼손되자 공민왕 후반부터 고려 왕들은 수창궁(壽昌宮)에서 집무를 보았다. 만월대가 범궁이었다면 수창궁은 여러 이궁(離宮) 가운데 하나였다. 수창궁은 조선의 태조가 즉위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창궁의 건물도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이곳에 학생소년궁전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있던 용머리 조각은 만월대 회경전 앞 용머리 조각과 함께 개성 성균관 대성전 뜰에 옮겨 놓았다.

3. 고려의 꿈이 묻힌 곳, 왕릉

1) 태조 왕건릉

개성시를 중심으로 판문군과 개풍군 일대에는 고려 왕과 왕비, 왕족들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다. 17개의 고려 왕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정확하게 조사 연구되지는 않았다. 개성의 왕릉이나 왕족의 무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무덤이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만수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왕건



| 태조 왕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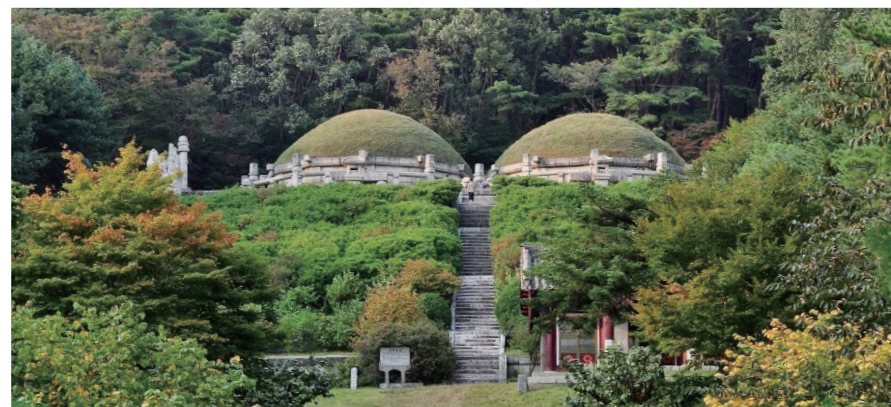
릉 현릉(顯陵)은 고려의 태조 왕건과 신혜왕후 류씨(神惠王后 柳氏)를 함께 묻은 합장릉으로, 현재 북한 국보 제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덤의 높이는 6.26m, 지름은 11.56m이다.

왕건릉은 943년 조성되었지만 이후 고려시대에 네 차례나 자리를 옮겨야 했다. 거란 침입과 강화 천도 때 이장(移葬)과 환장(還葬)을 거듭하다 충렬왕 때인 1276년에 지금의 위치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려를 건국한 왕이었기에 전란이 있을 때마다 역대 왕들은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능에 안치했기 때문이다. 1906년엔 도굴을 당하기도 했으며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가 1954년에 복구했다. 북한은 1992년 태조 왕건릉을 발굴 조사했고 이후 무덤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발굴 조사 당시 무덤에서는 등신(等身) 청동상이 나왔는데 대체로 태조 왕건상으로 추정한다. 또한 무덤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벽에는 매화나무·참대·청룡(靑龍)이, 서벽에는 소나무·매화나무·백호(白虎)가, 북벽에는 현무(玄武)가, 천장에는 8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2) 공민왕릉

태조 왕건릉에서 서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봉명산 기슭에 공민왕릉이 있다. 공민왕의 무덤은 2개의 봉분으로 이뤄져 있다. 공민왕이 묻혀 있는 현릉(玄陵)과 왕비 노국



| 공민왕릉



공민왕릉 내부 벽화

대장공주의 무덤인 정릉(正陵)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는데, 이 둘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공민왕릉이라 부른다. 고려 왕릉에서 이렇게 왕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이 바로 옆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공민왕릉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민왕릉은 고려 말기의 왕릉 제도를 완성하

고 나아가 조선 왕릉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알려진 고려 왕릉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좋다. 봉분 하나의 높이는 약 8m, 지름은 약 13m이다.

1365년 공민왕의 왕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공민왕은 그 무덤을 직접 만들었다. 1372년에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무덤을 미리 만들었고 1374년 신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그곳에 묻혔다. 공민왕은 자신의 무덤의 석실과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의 석실에 구멍을 뚫어 두 무덤을 연결시켰다.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혼이 이 구멍을 통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죽어서도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하고 싶었던 공민왕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 왕릉이다.

공민왕릉을 비롯한 고려 왕릉은 대부분 돌로 석실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뒤 흙으로 봉분을 쌓은 석실봉토분(石室封土墳)이다. 태조 왕건릉과 공민왕릉처럼 내부에 벽화를 그려놓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석실 내부 벽화는 공민왕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공민왕릉인 현릉의 석실 내부엔 동벽, 서벽, 북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려 놓았다. 12지상이 한쪽 벽에 4구씩 그려져 있고 천장에 복두칠성과 해와 달 등이 그려져 있다. 12지상은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오색구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다. 손으로 홀을 들고 있으며 동물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다. 이 12지상을 공민왕이 직접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벽화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56년 공민왕릉 내부를 수리할 때였다.

공민왕릉은 일제강점기인 1905년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1920년에 일부 수리 공사를 진행했고 1956년 다시 수리 및 내부조사를 실시했다. 공민왕릉은 규모나 내부 벽화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 등으로 보아 고려 왕릉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4. 고려 선비의 정신, 선죽교와 성균관

1) 선죽교

비극적인 사연이 담겨 있는 선죽교(善竹橋)도 빼놓을 수 없는 개성의 고려 문화유산이다. 고려의 명운이 다한 1392년, 고려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년)는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조선 태종) 일파에 의해 이곳에서 무참하게 피살되었다. 선죽교는 개성 남문 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다. 길이 8.35m, 너비 3.36m의 화강석 돌다리로, 현재 북한 국보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죽교의 이름은 원래 선지교였다. 그러나 정몽주가 죽고 난 뒤 그 자리에 참나무무가 자랐다고 해서 대나무 죽(竹)자를 넣어 선죽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고려에 대한



선죽교

정몽주의 변함없는 절개를 기리기 위해 후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선죽교에 아직까지 정몽주의 핏자국이 남아 있고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선죽교에 빗물이 붉게 흐른다고 한다. 선죽교라는 명칭이나 핏물에 관한 이야기는 고려 충신 정몽주의 붉고도 뜨거운 일편단심(一片丹心)을 기억하고픈 후대인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선죽교는 121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오며 1480년 이전에 다시 세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선죽교를 보면 난간이 둘러쳐져 있다. 조선 후기 1780년경에 정몽주의 후손들이 선죽교를 보호하기 위해 난간을 둘러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고 대신 그 옆에 새로운 돌다리를 세워 그곳으로 다니도록 했다고 한다. 선죽교 옆에는 선죽교라고 쓴 석비와 정몽주의 절개를 기리는 표충비가 세워져 있다. 이 선죽교 석비의 글씨는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韓石峯)이 쓴 것으로 전해온다.

2) 개성 성균관

개성시 부산동에는 성균관(成均館)이 있다. 성균관이라고 하면 서울 성균관대학교 경내에 있는 성균관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성균관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었기에 서울 뿐 아니라 개성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북한 국보 제127호인 개성 성균관은 992년에 세운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관료 양성과 유교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다. 이곳이 처음부터 성균관 건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건물이 처음 세워진 것은 11세기로 당시엔 고려 왕궁의 별궁인 대명궁으로 조성한 건물이었다. 대명궁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하거나 유교 경전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089년 다른 곳에 있던 고려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이곳 대명궁으로 옮겨왔다. 국자감이란 귀족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992년 세운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후 국자감은 1298년 성균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304년에 건물을 늘려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일신하고 위용을 갖추었다. 그리곤 1308년 성균관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개성에 있는 성균관은 고려말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 1342~1398)과 같은 당대 최고의 신진 사대부 학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수도 한양에 새로운 성균관을 만들자 개성의 성균관 건물은 지방의 유학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성균관 대성전

지금의 건물은 모두 조선시대 때인 1602년에서 1610년 사이에 옛 모습대로 다시 지은 것이다. 개성 성균관은 크게 명륜당(明倫堂)을 중심으로 한 강학(講學) 구역과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한 배향(配享) 구역으로 나뉜다. 성균관은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 5칸 측면 3칸의 명륜당이 나온다. 명륜당 건물은 단순하고 별다른 장식 없이 단출하면서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명륜당 앞에는 유생들의 숙소였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좌우에 있다. 명륜당을 지나면 대성전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선대 유학자들의 신위를 모셨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 앞에는 만월대 터에서 출토된 석조 용머리 조각과 수창궁 터에서 출토된 석조 용머리 조각을 배치해 놓았다.

북한은 1989년부터 개성 성균관을 개성 고려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려역사박물관은 모두 3개의 진열관으로 이뤄져 있다. 제1진열관에는 고려시대 개성의 옛 모습을 그린 지도와 만월대 모형, 만월대에서 출토된 막새들과 꽃무늬 벽돌, 철제투구와 갑옷, 철제 화살촉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2진열관에는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활자를 비롯해 고려청자, 목판, 천문학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 중이다. 제3진열관에는 불일사 5층 석탑에서 나온 소형 금동탑, 적조사 철불 좌상, 고려 화폐 등이 전시되어 있

다. 적조사 철불은 원래 개성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 회랑에 전시되었다가 다시 개성으로 옮겨진 불상으로, 고려시대 유행했던 철불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고려역사박물관에는 공민왕릉 모형도 마련해 놓았다.

고려역사박물관에는 야외 전시장도 있다. 여기엔 고려 개국사 석등(10세기), 불일사 5층 석탑(10세기), 현화사 7층 석탑(11세기), 현화사비(11세기) 등과 같은 석조물을 원래 위치에서 옮겨와 전시하고 있다.

5. 불교의 나라, 사찰과 석탑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은 고려를 불교의 나라로 천명했다. 불교진흥을 국가의 주요 방향으로 삼아 활발하게 불사(佛事)를 진행했다. 이에 힘입어 수도 개성에는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영통사(靈通寺)를 비롯해 관음사(觀音寺), 불일사(佛日寺), 현화사(玄化寺), 개국사(開國寺), 화장사(華藏寺), 연복사(演福寺), 안화사(安和寺), 흥왕사(興王寺) 등등. 그러나 대부분 모두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다행히 영통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도움으로 2005년 건물들을 복원했다.



영통사 동(東)3층 석탑

1) 영통사

개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려 사찰 가운데 하나는 영통사(靈通寺)다. 이 사찰은 개성시의 북동쪽인 용흥리 오관산 남쪽 영통골에 있다. 고려 초기인 1027년에 창건된 영통사는 왕실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으면서 크게 번창했다. 여러 왕들이 자주 참배했고 각종 왕실 법회가 열릴 정도로 규모도 컸다. 또한 인연을 맺은 왕들의 진영(眞影)을 모시는 진영각(眞影閣)이 있었다. 영통사는 고려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

1055~1101년)이 화엄의 교리를 배우고 탐구해 천태종을 개창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통사는 조선시대 들어 16세기경 불에 타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영통사 5층 석탑(북한 국보 제133호), 영통사 서(西)3층 석탑, 영통사 동(東)3층 석탑, 영통사 대각국사비(북한 국보 제155호), 대각국사 승탑, 영통사 당간지주 등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우리의 대한불교 천태종과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함께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10월 영통사 전각의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영통사가 위치한 영통골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화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그린 산수화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다. 경기도 안산에 주로 살던 강세황은 18세기 중반 당시 개성을 여행한 뒤 그 풍경을 화폭으로 옮겨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을 남겼다. 그 화첩에는 <영통동구도(靈通洞口圖)>라는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개성의 오관산 영통동(영통골)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은 매우 특이하다. 영통골 입구의 커다란 바위덩어리 여러 개를 화면 한가운데에 과감하게 배치하고 원근에 따라 바위에 명암을 두어 처리함으로써 서양화법을 그림에 도입했다. 18세기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바위에 붙어 있는 초록빛 이끼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개성 영통골의 웅장하면서도 시원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2) 영통사 대각국사비

영통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화유산으로는 고려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의 업적을 새긴 석비를 꼽을 수 있다. 이 석비는 의천이 입적하고 24년이 지난 1125년에 세워졌다. 높이 2.9m이며, 비석 앞면의 윗부분에 ‘증시(贈諡) 대각국사비명’이란 제목이 새겨져 있고 그 좌우에 봉황과 보상화문(寶相華文, 모란과 연꽃을 함께 넣은 문양)을 양각했다. 당대의 명문장가인 김부식(金富軾)이 비문을 지었고 글씨는 고려 전기에 유행하던 구양순체(歐陽詢體)



영통사 대각국사비

로 되어 있다. 특히 봉황 무늬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고려시대 석조 미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북한의 국보 제155호로 지정되어 있다.

3) 불일사 5층 석탑



불일사 5층 석탑

불일사(佛日寺) 5층 석탑은 10세기 경에 세워진 개성의 대표적인 고려 석탑이다. 원래 개성시 판문군 보봉산 남쪽 기슭의 불일사 터에 있던 것을 1960년 지금의 장소인 개성 성균관의 고려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내성동 공원)으로 옮겼다. 불일사는 고려 4대 임금인 광종이 951년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사찰이다.

불일사 5층 석탑의 높이는 약 8m이다. 석탑의 1층 탑신에서는 작은 금동탑과 석탑, 사리함 등이 발견되었다. 이 탑은 단순 소박하지만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탑은 또 고구려의 길이 단위인 고구려 자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250여 년이 지났지만 불일사 5층 석탑을 만들었던 고려 석공은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 돌을 다듬고 길이를 재고 돌을 쌓아 올려 탑을 세웠던 것이다. 고구려를 이어가고자 했던 고려인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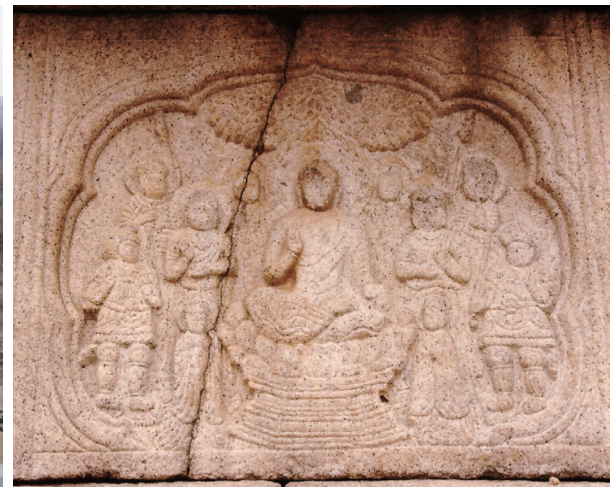
4) 현화사 7층 석탑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영추산 밑의 현화사(玄化寺) 터에 있던 11세기 고려 석탑이다. 높이는 8.64m이다. 현재는 개성 성균관 고려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내성동 공원)으로 옮겨 놓았다. 현화사가 창건된 시기를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1018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2년 뒤인 1020년에 이 탑이 세워졌다.

현화사 7층 석탑은 기단부가 특이하다. 기단부는 육면체 모양으로 작게 다음은 돌



현화사 7층 석탑



현화사 7층 석탑 탑신

을 마치 벽돌처럼 쌓아 만들었다. 이런 모습은 전통 석탑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단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이 기단부가 고려 때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후대에 보수하면서 기단부만 새로 조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탑은 날렵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각 층의 탑신에는 불상과 연꽃을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 현재 현화사는 없어지고 이 탑과 현화사비, 당간지주(幢竿支柱) 등만이 남았다.

5) 개국사 석등

개국사(開國寺)는 935년 고려 초에 세운 사찰로 고려 10대 사찰의 하나였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폐사(廢寺)로 변해버렸다. 고려 초기의 석등으로 원래 개성시 덕암리 개국사 터에 있었으나 지금은 개성 고려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겨 놓았다. 이 석등은 높이 4m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등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6) 화장사(華藏寺) 승탑

개성시 용흥동 보봉산 중턱의 화장사(華藏寺) 터에 있는 고려 말기의 승탑(僧塔)이다. 승탑은 스님들의 사리를 안치한 탑으로 부도(浮屠)라고 부르기도 한다. 1370년경



화장사 지공선사 승탑

제작된 이 승탑의 높이는 1.94m이다. 이 승탑은 탑신 앞면에 지공정혜영조지탑(指空定慧靈照之塔)이라고 새겨져 있어 원나라 선승인 지공(指空)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통의 승탑이 탑이나 석등 모양인 것과 달리 이 승탑은 독특하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다. 반구형(半球形)의 몸돌 위쪽에는 큼직하게 두 겹으로 연꽃잎을 새겼다. 조각이 섬세하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아름다움을 잘 갖추었다. 파격적인 미(美)를 구현한 고려 석조불교미술의 걸작으로 꼽힌다.

6. 고려 과학의 흔적, 첨성대

첨성대(瞻星臺) 하면 우리는 경주에 있는 신라의 첨성대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개성에도 고려시대의 첨성대가 있다. 개성시 송학동 만월대 서쪽에 있는 고려 첨성대이다.

그러나 개성 첨성대는 우리가 흔히 보아온 첨성대와 다르다. 개성 첨성대는 그 자체로 별을 관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측기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첨성대의 받침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인지 경주 첨성대에 비하면 웬지 엉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첨성대(북한 국보 제131호)는 고려시대 천문학의 발전 모습을 실물로 밝혀주는 귀중한 천문관측 시설이다. 이 첨성대는 고려 건국 직후 개성에 궁궐을 조성하면서 함께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주춧돌 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ㅁ'자형 틀을 짠 다음 판석(板石)을 깔아 만든 형태로 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잘 다듬은 화강암 5개를 기둥으로 세웠다. 동서남북에 맞게 4개를 세우고 한가운데에 다시 돌기둥 하나를 세웠다. 그리고 기둥 위쪽에는 널찍한 판석을 깔아 평평한 공간을 만들어 그 위에 천문기기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월대는 송악산 앞쪽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공간에 조성된 고려의 왕궁이다. 남쪽

으로 탁 트인 곳이어서 천문을 관측하기엔 제격인 공간이다. 게다가 왕궁을 조성할 때 지기(地氣)를 살리고 위엄을 부각시키기 위해 땅을 높게 다져서 건물을 지었다. 그곳에서 천문기기를 첨성대에 올려놓고 천문을 관측했으니, 만월대야말로 천문 관측에 적절한 장소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만월대라는 이



첨성대

름이 망월대(望月臺)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 것을 보면, 고려인들이 천문관측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천문대를 왕궁 바로 옆에 배치한 것은 고려 왕조가 천문관측을 그만큼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7. 고려 나성과 연복사 종

1) 개성 나성

서울에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이 있듯 고려시대의 개성에는 수도를 둘러쌌던 나성(羅城)이 있다. 나성은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는 성곽을 말한다. 개성 나성은 개성의 북쪽 송악산에서 남쪽의 용수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조성한 고려 성곽이다.

고려는 1020년 장강찬 장군의 건의에 따라 나성을 쌓기 시작했으며 1029년에 완공했다. 둘레는 약 23km다. 이는 서울의 한양도성(18km)보다 5km가 긴 것으로, 고려 나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래 동쪽에는 숭인문(崇仁門), 서쪽에는 선의문(宣義門), 남쪽에 회빈문(會賓門), 북쪽에 태화문(泰和門)이 있었지만

이 성문들은 모두 없어진 상태다.

개성에는 나성 외에 후고구려의 성을 이어 고려 초기 축조한 황성(皇城)이 있다. 후고구려 때 왕건이 송악산 남쪽에 발어참성(勃禦塹城)을 쌓았고 이 발어참성을 이용해 다시 쌓은 성곽이 황성이다. 이 황성은 1020년 나성을 축조할 때까지 고려 개성의 도성 역할을 했다.

2) 연복사 종



연복사 종

개성에는 조선초인 1393년 완성한 내성(內城)이 있다. 이 내성에는 조선시대 건축물인 남문이 있는데 이 위치가 지금의 개성의 중심 지역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 문을 남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서울로 치면 숭례문(崇禮門, 일명 남대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남문에 고려시대 말기인 1346년에 주조한 연복사(演福寺) 종의 걸려 있다. 연복사라는 사찰은 고려 초에는 이름이 광통보제사(廣通普濟寺)였으며 그 규모가 대단했다고 한다.

이 종은 조선시대 중기인 1563년에 연복사가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인근 남문으로 옮겨 남문의 누각에 걸려 있다. 높이는 3.24m, 아래쪽 입지름은 2m에 무게는 14톤이다. 그런데 이 종은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 우리나라 전통 종과 다른 중국 종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상부를 보면, 종을 매다는 고리인 용뉴가 두 마리의 용(雙龍)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음통(音筒)은 사라졌다. 우리 전통 종은 음통이 있고 용뉴는 한 마리 용(單龍)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연복사 종은 몸통 중앙에는 가로로 여러 줄의 띠를 둘렀고 그 위아래의 공간도 사각형으로 나누어 그 안에 여러 불상과 문구를 새겨 넣었다. 우리의 전통 종은 몸통 가운데에 가로로 띠 줄을 새겨 넣지 않는다. 연복사 종은 아래쪽 입구의 선도 과도하게 물결치듯 마감했다. 우리 전통 종의 부드러운 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물결의 위쪽에는 건·곤·감·이와 같은 주역의 팔괘(八卦)도 새겨 넣었고 용, 봉황, 기린과 같은 영험한 상상의 동물들도 표현했다.

연복사 종의 윗부분에는 연꽃 봉우리 대신에 삼존불을 새겼다. 우리 전통 종은 윗부분에 사각형의 공간 4개를 구획한 뒤 그 안에 연꽃 봉우리를 9개씩 새겨 넣었다. 이 연꽃 봉우리를 연뢰(蓮蕾)라고 사각형의 공간을 연곽(蓮廓)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 전통 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연복사 종에는 이 연뢰와 연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종의 아랫부분의 사각형 공간에는 종의 제작 배경 등에 관한 글을 새겨 넣었다. 이 명문(銘文)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 이곡(李穀)이 지었고 글씨는 성사달(成士達)이 썼다. 종을 만들게 된 과정과 원나라 황제를 축수하는 내용, 종을 제작한 원나라 장인의 이름과 시주자 등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다. 명문에 따르면, 연복사 종은 강공금강(姜公金剛)과 신후예(辛候裔)라는 중국 원나라 장인이 주조했다. 이들은 원 황제의 명을 받들어 금강산에서 종을 만들고 돌아가다 충목왕과 공주의 발원으로 이 종을 만들었다. 당시 고려에 계속되는 전란과 기근으로 종을 만들 주조 장인이 부족해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런 연유로 고려 말기 연복사 종은 전체적인 형태나 무늬, 분위기에서 우리의 전통 종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중국 원나라의 간섭기에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제작한 종이어서 보는 이를 씁쓸하게 한다.

8. 고려 유산을 지켜낸 개성상인들

1) 박물관 맨 3인방

개성의 문화유산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개성상인들과 그들의 문화후원 정신이다. 개성상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다.

일제강점기 개성지역에서 일제에 의한 문화유산 약탈은 극심했다. 특히 무덤을 도굴해 고려청자를 약탈해 가는 일이 빈번했다. 야외에 있는 석탑을 해체해 일본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의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보존하고 연

구할 수 있는 박물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힘입어 1931년 개성부립박물관이 건립되었다.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개성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성지역의 유지들이 적지 않은 건립비용을 부담했다. 그들의 기부가 없었다면 개성부립박물관은 태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33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인천 출신의 고유섭(高裕燮, 1905~1944년)이 개성부립박물관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고유섭의 영향을 받아 개성에서 미술사학자와 박물관맨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술사학자 최순우(崔淳雨, 1916~1984년), 동국대 총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을 지낸 불교미술사학자 황수영(黃壽永, 1918~2011년), 이화여대 교수와 이화여대 박물관장을 지낸 불교미술사학자 진홍섭(秦弘燮, 1918~2010년)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개성 3인방”이라고 부른다.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3인은 훗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이해 보존 및 후학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에 한 평생을 바친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개성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개성인(開城人)으로서 고려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개성 3인방은 개성과 고려의 전통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개성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문화재 수집의 세계로 이끌기도 했다.

2) 수집가 3인방



이홍근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과 정신을 지켜내는데 헌신한 개성상인도 꼭 기억해야 한다.

1981년 2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홍근(李洪根, 1900~1980년)의 자택에선 유물 인수 및 반출 작업이 한창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원들은 유물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정성스레 포장한 뒤 트럭에 조심해서 옮겨 실었다. 이홍근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그가 30년 넘게 수집해온 수천 점의 문화재 명품들이 그의 자택을 떠나 경복궁 내 국립중앙박물관(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으로 옮겨지는 상황이었다.



강세황 작 <영통동구도> (18세기 후반) / 이홍근 컬렉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홍근의 장남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1980년 12월과 198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94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유산 기증이라는 것이 낯설던 시절, 아버지가 30여 년 간 모아온 고품격의 문화재를 송두리째 국가에 내놓은 것이다. 4,941점의 문화재는 질과 양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압도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고학과 미술사학 연구 발전 기금으로 은행 주식 7만여 주를 내놓았으니, 이홍근 컬렉션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은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개성에서 태어난 이홍근은 간이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곡물상회, 양조회사, 보험사 등을 이끌다 1960년 동원산업을 설립해 큰 돈을 벌었다. 이홍근은 1950년대 6·25전쟁 이후부터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수집을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문화재가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난 1960년대부터 이홍근은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과 어울렸다.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수집품을 함께 감상하고 품평했고 전문 지식과 안목을 배우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번은 이홍근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수집 문화재는 단 한 점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세 분께서 앞으로 밥을 짓든 죽을 쑤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주십시오.” 평생 모은 문화유산 명품 4,9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하라는 유지를 남기고 1980년 5월 세상을 떠났다.



| 이회림

동양제철화학(현재의 OCI) 회장을 지낸 이회림(李會林, 1917~2007)도 개성상인이다. 개성에서 태어난 이회림은 14살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잡화도매상 사환 생활을 거쳐 사업을 시작했다.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양제철화학 등 유수의 기업을 일궜다. 이회림은 1960년대 당대 최고의 컬렉터 이흥근의 집을 드나들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과 열정을 키웠고 1970년대엔 동향 출신의 최순우와 활발하게 교류했다. 고향 개성

덕분에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회림은 일본인들이 빼가는 우리 문화유산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6·25전쟁 때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겸재 정선(謙齋 鄭澈)의 그림과 고려청자를 구입하면서 수집의 길로 들어섰다.

이회림은 50여 년 동안 모은 문화유산 8,400여 점과 그것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던 인천 송암미술관을 통째로 인천시에 기증했다. 당시 기증품에는 2001년 4월,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서 7억 원에 낙찰 받았던 겸재 정선의 <노송영지도(老松靈芝圖)>가 포함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7억 원은 당시 국내 미술품경매 사상 최고가였다. 미술품



| 정선 作 <노송영지도> (1755)
/ 이회림 컬렉션,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소장

경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미약하던 시절이었기에 ‘고미술 7억 원 경매’는 세상의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4년 뒤 조건 없이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또 한 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회림은 문화유산 기증에 관해 “개성상인의 신용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 윤장섭

1922년 개성에서 태어난 윤장섭(尹張燮, 1922~2016)은 개성상업학교 시절, 개성부립박물관장 고유섭의 특강을 듣고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해 눈을 떴다. 그는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1970년대부터 고려청자 등 문화유산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성 출신의 최순우, 황수영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배웠다. 해외로 유출되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유물을 수집할 때는 최순우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꼼꼼하게 유물 수집목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윤장섭은 1981년 사재를 출연해 성보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유물의 소유권을 재단으로 넘겼다. 지금은 서울 신림동과 도산대로에 호림박물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윤장섭이 수집한 문화유산은 명품이 즐비하고 윤장섭이 설립한 호림박물관은 간송(澗松)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과 함께 국내 3대 사립박물관으로 꼽힌다.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과 이흥근, 이회림, 윤장섭. 이들은 우리시대 최고의 미술사학자이자 최고의 수집가들이다. 특히 이흥근, 이회림, 윤장섭 3인이 메세나 정신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수도 개성의 위대한 문화유산 전통을 어려서부터 체득했기 때문이다. 바로 고려 수도 개성의 DNA였다.



| 백자청화매화대나무무늬항아리(국보 제222호, 15세기)
/ 윤장섭 컬렉션, 호림박물관 소장

9. 통일의 꿈, 개성의 고려 문화유산

개성에 있던 고려시대 석조물 가운데 개성을 떠나 서울에 있는 것들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현화사 석등, 남계원 7층 석탑(국보 제100호), 경천사 10층 석탑(국보 제86호)이 바로 그들이다. 현화사 석등과 남계원 7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 전시되다가 분단으로 인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것들이다. 개성시 부소산에 있던 경천사 10층 석탑은 1907년 일제에 의해 무단으로 해체되어 일본으로 약탈된 뒤 1919년 훼손된 채 국내로 돌아온 석탑이다. 이후 경복궁에 방치되다 1960년 보수를 거쳐 경복궁 야외에 전시되었으나 또다시 10년간 해체 보수·보존처리를 거쳐 2005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 전시 중이다.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내로 옮겨 전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최대한 원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천사 10층 석탑, 현화사 석등, 남계원 7층 석탑은 통일이 되어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그것이 고려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좀 더 온전히 보존 전승하고 좀 더 제대로 기억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렇듯 개성 지역에 전해오는 고려 문화유산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아닐 수 없다.

참고 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북한문화재해설집Ⅰ—석조물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북한문화재해설집Ⅱ—사찰건축 편』
김동욱, 1997, 「11,12세기 高麗 正宮의 건물구성과 배치」, 『건축역사연구』 1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박종진, 2001, 「개성의 문화재」, 『역사비평』 54호, 역사비평사
양정필, 2014, 「상업의 터전 위에서 꽃피운 개성상인의 문화재 수호」, 『다시 쓰는 예술사』, 글항아리
이광표, 1997,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문화유산』, 동아일보사
이광표, 2009, 『명품의 탄생—한국의 컬렉션 한국의 컬렉터』, 산처럼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호림박물관, 2012, 『호림, 문화재의 숲을 거닐다』, 놀와

사진 출처

-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모습 / 이광표
- 만월대 터 전경 / 이광표
- 만월대 모형 / 고려역사박물관 소장, 이광표
- 태조 왕건릉 / 이광표
- 공민왕릉 / 이광표
- 공민왕릉 내부 벽화 / 이광표
- 선죽교 / 이광표
- 성균관 대성전 / 이광표
- 영통사 동(東)3층 석탑 / 이광표
- 영통사 대각국사비 / 이광표
- 불일사 5층 석탑 / 이광표
- 현화사 7층 석탑 / 이광표
- 현화사 7층 석탑 탑신 / 이광표
- 화장사 지공선사 승탑 / 이광표
- 첨성대 / 이광표
- 연복사 종 / 이광표

- 이흥근(개성상인 컬렉터) / 이광표
- 강세황 作 <영통동구도> (18세기 후반) / 이흥근 컬렉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이광표
- 이회림(개성상인 컬렉터) / 이광표
- 정선 作 <노송영지도> (1755) / 이회림 컬렉션,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소장 / 이광표
- 윤장섭(개성상인 컬렉터) / 이광표
- 백자청화매화대나무무늬 항아리(국보 제222호, 15세기) / 윤장섭 컬렉션, 호림박물관 소장 / 이광표

04

고려시대 사원의 기능과 공간구성

이승연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고려 건국과 동시에 개경에는 10개의 사원(법왕사, 자은사, 왕륜사, 내제석원, 사나사, 천선원, 문수사, 원통사, 지장사, 신흥사)이 창건되었고, 개경을 중심으로 대규모 願刹(홍왕사, 불일사, 귀법사, 현화사, 안화사, 국청사)이 건립되었다. 風水圖識說(산천·수로의 모양을 인간생활의 吉凶禍福과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각종 예언을 만들어냄)과 裨補寺塔說(기가 부족한 곳에 절이나 탑을 세워 보강해야 한다는 설)은 전국 각지에 사찰들이 세워지는 지리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1~12세기에 불교는 왕실이나 귀족은 물론 일반 서민에게도 절대적인 신앙이 되면서, 기존 사원들의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원찰(현화사, 불일사, 안화사, 국청사)들이 속속 건립되었다. 많은 사원들이 왕실이나 개인의 기복을 비는 원찰로 화합에 따라 많은 불교행사(팔관회, 연등회, 무차대회, 인왕도장, 나한재 등 80여종)¹⁾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찰에는 수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넓은 내·외부 공간이 필요했다.²⁾ 중심영역을 둘러싸던 고대가람의 회랑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건물이 건립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다. 또한 선사상의 영향과 지방호족의 지원에 힘입어 고대 규범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조영되었고, 다양한 교리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구성을 이루어나갔다.

13~14세기는 무신집권 후 종파와 산문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 결사불교가 유행한 시기다.³⁾ 무신집권 초기에 귀법사, 영통사, 홍왕사, 부석사, 부인사 등 전통적인 대찰은 무신세력에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좌절되었고, 선종을 종지로 한 수선사와 천태종을 이은 백련사를 중심으로 수행과 절제를 강조하는 결사운동이 전개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순천 송광사(수선사)와 강진 백련사는 조선후기 모습이지만 다원식 가람 속에 수많은 승방과 수행공간이 발달한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슷한 가람구성을 보이는 곡성 태안사의 13세기 문서⁴⁾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사원은 예불 공간(금당, 나한전, 대장전), 수행공간(승당), 독립된 승방공간(유나방·상원주청·장주방채·입실방채·별감방채 등), 기타 생활건물(목욕방채·곳간채·수가 등) 등 수많은 전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글은 이제까지 연구성과와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사원의 다양한 기능과 공간구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고대 불교사원이 중세 불교사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2. 고려시대 사원의 기능

고려시대 들어서 불교는 왕실이나 지배층은 물론 서민에게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 태조가 943년(태조 26)에 내린 ‘訓要’⁵⁾와

1) 무차대회는 승려나 속인을 가리지 않고 귀천 차별 없이 대중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나누어주는 행사였으며 인왕도량은 보통 100개의 불상을 모시고 100명의 법사가 불법을 강론하였다. 이 때는 대궐에서 1만 명의 승려에게 음식을 내려주고 전국 사찰에서 2만 명의 승려에게 공양을 베풀었다. 그밖에 나한제는 16나한 또는 5백나한을 공양하는 행사로 국왕이 절에 행차하여 5백나한재를 여는 경우가 잦았다.

2) 김동욱, 2007, 앞의 책, 서울: 기문당, p.135.

3) 허흥식, 1997,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4)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자선사종창당시불상간각』, 『태안사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5) 『高麗史』 卷第2, 世家, 태조 26년(943) 4월.

의종이 1168년(의종 22)⁶⁾에 내린 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가 고려 개국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종교적 기능 외에 부가적 기능을 통해 국가통치·운영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훈요의 첫 번째 내용인 ‘우리나라의 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護衛하는 힘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므로 禪敎寺院을 창건하고 住持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그 業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보아 ‘왕이 불교를 보호하면[外護], 부처님의 힘에 도움을 받아 국토를 수호[護國]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종과 교종사원을 지어 주지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원 운용과 통제를 통해 개경과 지방의 통치에 힘을 기울이게 하였다. 두 번째 내용인 ‘모든 사원들은 모두 道誥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開創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는 기록을 통해 裨補寺와 願堂의 목적으로 사원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의종이 나라를 교화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으로 내린 교서에는 조상 때 開創한 裨補寺社와 예부터 상례로 의식을 거행해온 사원, 특별히 복을 기원하는 사원[祈恩寺社]를 수리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裨補寺社와 祈恩寺社, 불교행사를 거행한 사원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종교적 기능

7세기 후반~8세기는 원효와 의상에 의해 불교 교리가 확대되고 다변화하는 시기로 종파가 형성되기 전이다. 7세기 후반에 들어 신라는 통일 직후 당나라와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추진함에 따라 가람배치부터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의 세부 처리까지 당나라의 제도와 기법을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경주(사천왕사, 망덕사, 감은사)에서는 금당 앞 좌우에 2기의 탑을 나란히 세운 ‘쌍탑식 가람배치’가 나타났다. 가람의 중심이 불사리를 봉안하여 부처님을 상징하던 탑에서 불상을 모신 금당이 된 것이다. 이는 『法華經』에 등장하는 釋迦如來와 多寶如來가 나란히 존재하는

6) 『高麗史』 卷第19, 世家, 의종 22년(1168) 3월.

‘二佛竝坐 형식’의 건축적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쌍탑식 가람은 중국에서 그 실례가 남아있지 않지만 唐代에 작성된 문헌과 7세기 후반 이후 신라와 일본 절터에 많이 확인된다. 8세기 중반이 되면 두 탑이 서로 다른 형태(경주 불국사·남산동사지)로 건립되기도 하다가, 9세기에 들어 선종이 도입되면서 쌍탑의 규모가 축소(장흥 보림사지, 남원 실상사지)되거나, 두 탑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독자적으로 세워지는 변화(울주 간월사지)가 일어난다.

이밖에 선종도입 전부터 신라에는 전국의 명산에 山寺가 지어져 山號가 寺名으로 통용되었다. 그 예로 迦耶山寺·小伯山寺·浮石山寺·深源山寺·桐裏山寺·普賢山寺·五冠山寺가 있다. 이제 불교는 도성 주변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실을 호위하는 호국사찰만이 아니고, 신라 귀족층을 위시한 폭넓은 계층의 신앙대상으로 퍼져 갔다. 불교교리의 확대와 다변화는 사원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교리를 담는 구성으로 변하였고, 산간에 조성된 사원은 정형성 있는 도시사원과 달리 자연지세를 살려 불규칙하게 배치되었다. 기존에 도시의 교중사원이 예불을 위한 불전 중심의 가람이었던 데 비해, 산속 선종사원은 승방과 수행용 공간을 위주로 한 수도원으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엄격한 가람 형식의 틀이 해체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란으로 사회가 혼란하던 신라말에 중국에서 흥기한 禪宗은 중국 유학승을 통해 도입되어 하나의 종파로 자리잡아갔다. 이들은 中國禪宗寺院制度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으나 시대상황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원을 창건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대부분 기존 사원(터)에 건물을 부분적으로 해체·수리해 가면서 선종사원을 開創해 나갔다. 선종은 直指人心·心印 등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師弟間의 佛法傳授를 통한 철저한 계승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이러한 계승관계의 중요성은 선종사원의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法堂과 方丈·影堂’으로 구성된 ‘上院’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이끌어 냈다. 곧, 선종에서 가장 위계가 높고 상징적인 건물인 法堂을 고대사원의 講堂에 이입하고, 그 좌우건물에 方丈·影堂을 배치하는 上院領域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원영역의 형성과 분화는 한국 선종사원 배치의 주요한 특색으로, 기존 질서가 남아있는 고대사원의 배치 위에 선종을 대표하는 중심건물이 移入되어 變化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선종사원건축과 차별성을 갖는다.⁷⁾

2) 願刹

고려시대 王室과 佛教 세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왕이 건립한 사원 대부분이 원찰이었으며, 여기에 王이나 王妃의 眞影을 모신 眞殿[願堂, 眞堂]이 세워졌다. 왕실원찰은 도성 내에 주로 분포하며, 도성 외곽의 경우 능 주변에 건립되었다. 많은 사찰들이 왕실이나 개인의 기복을 비는 원찰로 화합에 따라 팔관회나 연등회 외에도 무차대회, 인왕도장, 나한재 등 대규모 불교법회나 행사가 사찰 내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願堂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원에 대해 창건·중수·시납 등으로 관련을 맺게 된 개인이나 친족 혹은 집단이 그 사원에서 발원을 위한 불사를 열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왕실원당은 父王과 母后의 원당을 중심으로 경영되었으며, 광종대에 원당(奉恩寺·佛日寺·崇善寺)이 창건되기 시작하였고, 현종대부터 인종대까지는 부왕과 모후를 위한 원당을 새로이 창건하여 지정하였다. 인종 이후 원종까지는 새로운 원당이 창건되지 않았고, 기존의 사원이 이용되었다. 고려후기에는 신흥사, 묘연사, 민천사, 운암사 등을 중창한 외에는 새로운 사원이 창건된 적 없이 기존사원이 원당으로 지정되었다. 원의 압제 하에 들어간 충렬왕대에는 鮮馬國이 된 만큼 元 公主 출신의 父王을 위한 원당이 함께 지정되었다. 태조-봉은사, 목종-숭교사(유가종), 현종-현화사(유가종), 문종-흥왕사(화엄종), 순종-흥원사(화엄종), 숙종-천수사(천태종), 예종-안화사(선종)로 이어지는 원당 건립은 조상숭배시설이자 교단 통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⁸⁾

3) 裨補寺社, 資福寺

태조는 도선의 山水順逆에 기준을 둔 ‘裨補寺社’를 건립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개경에 10寺를 포함하여 25寺를 창건하였는데, 이들 사원 중 개경의 水德을 비보하기 위한 사원으로 상류에 廣明寺, 日月寺, 歸山寺, 法王寺를, 합류 또는 중류에는 興國寺와 普

7) 이승연, 2011,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法堂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pp.220~262.

濟寺, 內水口 方面에는 開國寺를 건립하였다.⁹⁾ 도선의 裨補寺塔說은 지방 각지에 새로 절이나 탑을 세우는 이론적 방편이 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형세를 배와 저울에 비유하여 배가 균형을 잡아야 안전하고 저울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듯이 한반도도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을 배의 키로 보아 이곳에 절과 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변두리에 치우쳐 있는 경주 대신 개성이나 평양 등 반도 중심부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고 전한다. 이런 주장에는 이미 절이 들어차 있는 경상도 일대와 전주에서 아직 사찰 건립이 미약한 전라도 일대의 사찰 건립을 부추기는 의도가 담겨있다.¹⁰⁾

裨補寺社는 定期 佛教儀禮를 행하였는데, 국가차원의 정기 불교의례는 대부분 개경 일대 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國王祝壽·燃燈會·經行·仁王般若道場·飯僧 등은 지방의 중심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행해졌는데 이 사원을 資福寺라고 하였다. 공양왕대에 국가이념으로서의 비보사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났고, 조선 태종 5년과 6년 사원의 경제기반을 박탈하는 제반 조치에 따라 자복사는 철폐되어갔다. 자복사는 불교를 통한 국가의례를 수행함은 물론 숙박, 시장의 기능도 갖추어 읍민을 결집하고 구휼하였으며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4) 院館寺院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역로망은 대체로 성종(981~997)~현종대(1009~1031)에 걸쳐 정비되었는데, 당시에 정비된 역로망은 傳舍이나 사신 영송 등 공적 역할이 중심이었으므로 모든 여행자들에게 실질적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¹¹⁾ 이에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 객관을 갖춘 사원을 건립하고 불교계의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객관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관사찰들은 현종대에 처음 출현하여 13세기 초까지 활발히 건립·운영되었는데, 특히 수도 개경 주위 및 남부지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몽골항전기 및 원 지배기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공민왕은 육상교통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역관을 다시 정비, 발전시키려 하였다. 공민왕대 이후의 원관은 이전의 원관사찰과는 달리 佛事의 기능은 없는 순수한 객관의 성격을 띠었다¹²⁾

원관사원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길이 험하고 별다른 시설이 없어 인적이 드물어 도적과 호랑이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건립하였다. 개경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개경-장단-적성-양주-남경, 개경-파주-고양-남경)이 주요 교통로에는 원관사원이 여러 설치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원관사원은 일반 사원과는 달리 별도의 객관영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사원영역과는 별도로 여행자들이 머무는 客室과 馬廐, 부속시설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구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5) 군대주둔지·훈련장소, 정치회합의 장소

군대 주둔지나 훈련장소로 활용된 사원은 開國寺·國淸寺·興王寺 등으로 대부분 開京 나성 밖에 위치하여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공간이 군대의 수용에 용이하게 이용되었다. 개경성 밖의 사원들은 城이나 망루·식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경의 보호시설로서 기능하였다. 또 지방과 연결되는 관문적 시설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이들 사원이 개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사원이 군사적으로 이용된 것은 수도 근처에 존재했기 때문이지만 국가의 공공기관과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¹³⁾

정치회합의 장소로 이용된 사원으로는 왕궁 및 兵部에 가깝게 위치한 興國寺를 들 수 있다. 홍왕사는 충렬왕 때 원에 대한 모반사건을 국문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후에는 우왕에 대항하는 모임을 가질 경우 사원이 이용되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왕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질 때에도 사원을 이용하였다.

9) 李丙養, 1980(1947),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0) 김동욱, 1998,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1) 鄭扶根,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2~48.

12) 최연식, 2016, 「고려시대 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제52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p.7, p.29.

13) 박윤진, 1998,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p.118.

3. 고려시대 사원의 공간구성

최근까지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사원 건물지의 성격은 영역 내 위치, 배치상 주변 건물지와 관계(위계, 기능), 규모, 평면구성(간수와 주간 구성), 유구의 가공 정도, 내부 시설, 배치의 변화정도 등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1) 上院領域

사제간의 직접적인 불법 전수를 통해 철저한 계승관계를 유지했던 선종사원에서 法堂과 方丈, 影堂으로 이루어진 上院領域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 몇몇 사료의 내용과 유구의 구성을 종합해 볼 때, 10~11세기가 되면 이러한 방장과 영당은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당 좌우에 있던 건물에 이입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장과 영당이 법당과 동일한 영역 내에 나란히 위치하게 되자, 선종사원에는 ‘上院’이라는 독특한 영역이 형성되었다.

(1) 法堂[禪堂, 禪法堂, 選法堂, 善法堂, 說法殿], 講堂

法堂은 선종사원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로 주지가 부처를 대신하여 說法하거나 入寂하는 장소로 불상을 안치하는 불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다. 새로 사원을 개창한 禪僧들은 가장 위계가 높고 상징적인 법당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는데, 중국에서 경험한 선종사원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사원 講堂에 이입하였다. 이는 강경을 위주로 하는 강당과 설법을 위주로 하는 법당의 성격과 불전 뒤에 위치하는 배치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당이 이입되기전 고대사원의 강당은 講說 외에 대규모 법회나 제사와 같은 공적인 기능도 겸행했던 곳이다.

9~10세기에 법당은 불전 뒤에 놓였던 기존 강당 자리에 들어서되(강설과 대규모 법회가 이루어지던 강당과 달리) 설법 위주의 법당으로 바뀌면서 규모도 축소되고 점차 장방형에서 방형평면으로 변해간다. 선종사원에서는 소재도량이나 기우제를 지내거나 왕의 축수를 기원하는 법회를 연 경우는 매우 드물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개경의 사원이나 궁궐 내에 선사를 초청하여 법회를 여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즉 선종사원의 법당에서는 더 이상 강당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공적 기능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선승들을 위한 설법 공간으로만 기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개경 주변의 사원에서는 대규모 불교의례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선종사원에서는 승려들이 수행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더 컸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의 축소는 기능을 담는 건물 규모 축소를 가져왔다.

(2) 方丈[上房, 上方]

方丈은 주지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주지가 거처하는 곳으로 說法·接客·入寂·喪禮 공간으로도 등장한다. 중국이나 일본 선종사원의 일반적인 구성은 法堂 뒤쪽으로 중심축선상에 內方丈과 方丈을 배치하고, 법당 좌우에 祖師堂과 土地堂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선종사원은 건립배경이 달라 가람배치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방장은 중국선종사원과 달리 법당 옆에 위치하며, 9~10세기에는 ‘上房(方)’ 또는 ‘上院’이란 용어 속에 종종 내포되어 있다. 無着道忠(1653~1744)이 편찬한 『禪林象器箋』에는 ‘上房은 본디 山上佛寺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住持를 일컫는 말로 上方이라고도 하며, 사원 내 가장 높고 깊은 처소를 上方이라고도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의 금석문에 등장하는 ‘上房’과 ‘上方’도 용례상 ‘주지’ 또는 ‘주지가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으며, 사원 내 법당과 더불어 방장이 위치한 가장 높은 위계의 영역을 ‘上院’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선사는 880년에 장흥 보림사 上房에서, 통효대사는 889년 강릉 굴산사 上房에서 입적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 동진대사는 947년에 입적하기 전 옥룡사의 房前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마당에 나아가 유혼을 남긴 뒤, 房으로 들어가 입멸하였는데, 이곳이 ‘上院’이라 기록하고 있다.¹⁴⁾ 여기서 ‘房’은 ‘繩床’이 놓여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方丈’임을 짐작할 수 있고, ‘上院’은 ‘方丈이 위치한 가장 높은 위계의 院’으로 추정된다. 고려 광종은 원종대사가 왕성을 떠나 고달사로 돌아가자(949~958년 사이 기록) 송덕사를 지어 보냈는데,¹⁵⁾ 그 시구 속에도 원종대사 또는 그가 머무르는 곳

14) 「玉龍寺洞眞大師碑」(958), 『조선금석총람』.

15)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조선금석총람』.

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上房’이 등장한다. 또한 도선국사는 태안사의 上方에 머무를 때 도적이 침입했으나 禪座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¹⁶⁾ 기록도 있다. 선좌는 대개 법당에 놓이는 가구이므로, 상방은 ‘法堂과 方丈이 포함된 上院’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의 내용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법당과 방장은 한 영역에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1390년 대지국사 입적시 방장의 서쪽 남은 땅에 자신의 壽堂을 짓도록 하여 준공하였다는 기록¹⁷⁾이 있다. 이는 고려말 기록이지만 ‘壽堂’이 ‘影堂’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당이 방장의 서쪽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준다.

(3) 影堂[祖堂, 眞堂, 壽堂]과 塔碑(碑)의 위치 또는 관련 전각에 관한 기록이 없음

‘影堂’은 9~12세기에 선종사원 내 六祖慧能이나 開山祖, 입적한 高僧의 眞影을 모신 祠堂을 말하며, 14세기 후반에는 ‘眞堂’·‘壽堂’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나말려초의 유학승들은 선사의 유적을 순례하면서 그들을 모신 影堂을 참배하였으며, 국내 선사들은 고승의 유해를 답사하며 眞影을 추모하며 弟子之禮를 펴거나 사원 내 조사를 숭배하기 위해 影堂을 건립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였다.

당나라로 유학 갔다 돌아와 신라에 선종을 전한 신행선사(704~779)가 斷俗寺에서 입적하자, 이름난 장인을 불러서 影幀을 그리고 浮圖를 만들어 사리를 모신 것으로 기록¹⁸⁾되어 있어, 단속사에 신행선사의 영당을 건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감선사가 9세기 중반(840년 이후~850년)에 창건한 玉泉寺[雙溪寺]에는 六祖影堂을 건립하였고, 聖住寺에는 像殿과 影堂을 개창했다는 기록¹⁹⁾이 있다. 성주사 영당도 성주산문의 개산조인 낭혜화상이 건립하였으니, 옥천사와 마찬가지로 육조 혜능의 영당일 가능성이 높다. 진공대사는 874년 이후에 陳田寺에 들러 도의선사의 유해를 답사하고 선사의 진영에 추모하며 제자의식을 폈다는 기록²⁰⁾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陳田寺에도 도의선사의 영당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림사홍각선사비」(886) 말미

에 실린 시구²¹⁾를 보면 홍각선사 입적(880) 후 碑를 세우고 그의 眞影을 모신 전각이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억정사대지국사지감원명탑비」(1393)에는 대지국사가 1390년에 문인에게 입적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며 方丈 西隙地[서쪽 남은 땅]에 자신의 壽堂[죽기 전 살아있을 때 자기의 影閣을 짓는 것]을 짓도록 하여 준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말의 기록이지만 영당이 방장의 서쪽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회암사 영당지(14세기 후반~16세기)는 설법전지의 좌측에 온돌방 2칸과 부엌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서쪽에 대응되게 위치한 조사전지는 내부에 마루를 깔고 수좌료지와 구분되는 벽체를 축조하였다.²²⁾ 영당지에는 온돌이 깔려 있는데, 이는 이후 용도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법상종 사원인 법천사의 부도전지는 지광국사현묘탑지와 지광국사현묘탑비를 둘러싸고 전면에 문지를 포함한 회랑 및 이를 둘러싼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건물지의 용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고승의 탑비와 부도와 함께 독립된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고승의 영정을 모시고 기리는 영당과 부속전각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배치는 삼각산 삼천사 대지암지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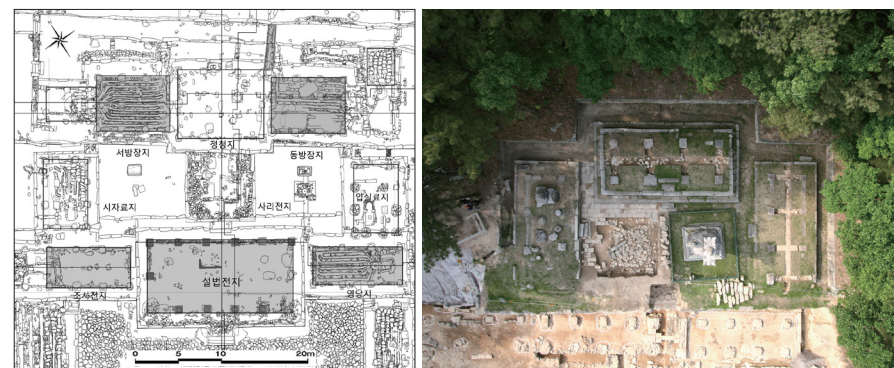


그림 1. 회암사 설법전지·방장지·조사전지·영당지



그림 2. 법천사 부도전지

16) 「大安寺廣慈大師碑」(950), 『한국금석전문』.

17) 「億政寺址大智國師塔碑」(1393), 『조선금석총람』.

18) 김현정, 「단속사신행선사비」(813), 『조선금석총람』.

19) 최치원,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890), 『조선금석총람』.

20) 최언위, 「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939), 『조선금석총람』.

21) 김원, 「사림사홍각선사탑비」(886), 『조선금석총람』.

22)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檜巖寺 II-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4) 浮圖[層冢]

고려시대 선종사원에서는 주지의 입적에 따른 상례 공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료를 통해볼 때 이러한 기능은 禪室에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禪室’은 9~10세기 비문 속 용례를 통해 볼 때 法堂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禪院清規』 제7권 『尊宿遷化』에 존속의 장례에 관한 내용²³⁾을 참고해 보면 상례 공간이 더욱 법당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주사 낭혜대사는 888년 11월 22일에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는데, 3일 후에 유체를 받들어 임시로 禪室에 빈소를 정하였다. 이때가 수행 정진하는 결재 중이어서 해제할 때까지는 선실에서 假葬禮를 행하였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서 돌을 다듬어 層冢을 봉하였는데(越二年攻石封層冢), 僧俗이 함께 시호를 내려줄 것과 塔銘을 지어줄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²⁴⁾ 고달사 원종대사해진탑의 경우 건립위치와 건립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像法’이라 규정하고 있다. 부도는 서북쪽에 산기슭에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승탑의 위치는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서)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또한 國工이 돌을 다듬었다하니, 부도양식을 통해 사원이나 법맥, 장인집단 등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주장²⁵⁾은 좀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비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승이 方丈(또는 法堂)에서 입적하면 3일 후 화장하여 수습한 사리와 유골을 龕室에 넣어 빈소인 禪室(法堂)에 안치하고, 부도를 세울 북쪽 산기슭으로 옮겨서는 石戶를 설치하여 遺骨을 封閉한 후 부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23) 만약 이미 坐化하였으면, (시신을) 方丈 가운데에 두어 香花 供養하며, 遺誡와 偈頌을 牌 위에 붙이고 靈筵의 좌우에 건다...3일 후에 入龕함은 亡僧의 법과 같다. 入龕할 때에는 尊宿一人을 청하여 靈座를 든다. [마땅히 法語 있을 지어다] 法堂의 西間에 龕을 두고, 東間에는 臥床·衣架·隨身受用의 具를 鋪設하며, 法座에는 진영을 건다. 법당에는 素幕·白花·燈燭·供養의 物을 쓰며, 진영 앞에는 도량을 펴서 法事한다. 小師는 龕幃 뒤의 幕下에 자리 하되 孝服을 갖추어 龕을 지킨다. 법당에 安排가 끝나면 喪主 이하는 진영에 禮한다.

24) 최치원,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890), 『한국금석전문』

25) 엄기표, 2014, 『고달사지승탑과 원종대사해진탑의 양식과 의의』, 『高達寺址 Ⅲ』, pp.223~224, p.233.

2) 中院領域

(1) 佛殿[像殿]

불전의 평면은 구조적 해결 속에 교리 및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됨에 따라 불단의 위치나 후불벽의 구성,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다.

영암사 금당지(9세기 중엽~고려후기, 3×3칸)는 3차에 걸쳐 증개축되었다.²⁶⁾ 영암사 금당지는 위계면에서는 여전히 불전지가 법당지보다 높은 상황에서 창건된 사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종의 초기정신인 법당이 중시되어 불전영역을 아우르는 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불전은 상단 깊숙이 앉히되 다채로운 석조장식으로 그 장엄을 표현해 주고, 초기법당은 동일 영역 내에 석탑을 건립하고 부속건축물들과 하나의 마당을 둘러싸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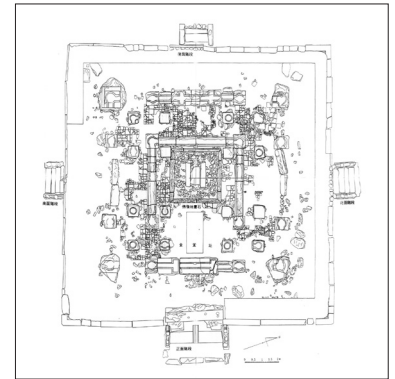


그림 3. 영암사 금당지



그림 4. 고달사 불전지

고달사 나-1건물지(불전지)는 정면 5칸(2.3m~3.7m), 측면 3칸(2.4m~4.4m~2.4m)의 남향 건물지로 고달사의 나-1건물지는 어칸 중앙에 불대좌가 안치된 불전지로, 건물지 밖 남쪽 중앙에는 나-1추정탑지가, 건물지 밖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는 나-2탑지가 발굴되었다. 이 건물지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과 그 주변으로 약 160~170cm 너비가 되게 박석을 깔아주고 면을 맞춘 기단이 조합된 이중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⁷⁾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으나, 기단이나 초석형태, 석조불대좌의 조각수법 등을 볼 때 고려초기 건물지로 추정된다.²⁸⁾

26)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5, 『陝川 靈巖寺址 I』, pp.49~51.

27) 기전문화재연구원·여주군, 2007, 『高達寺址 II』, pp.817~818.

28)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여주군, 2002, 『高達寺址 I』.

(2) 탑

사원 배치의 특징 중 고대로 갈수록 사상적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뚜렷한 중심축을 보이고 주변의 건축물들이 이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집중적인 질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질서는 집중, 장축, 직교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탑은 시대별 가람배치 변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가람의 질서체계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왕사(1067년 창건)는 2,800여 칸의 대규모 가람으로, 절 주위에 성곽을 쌓고 국왕의 모친을 위한 삼층원당과 금탑을 조성하였다. 이 사지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3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원에는 한 쌍의 팔각목탑지가 있는 쌍탑식 가람으로, ‘고구려탑의 전통과 신라의 쌍탑식 가람배치’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양 안양사지는 2008~2010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安養寺’명 기와와 塼塔址가 발굴되면서 고려 태조가 전탑을 세운 안양사임이 밝혀졌다. 그 하부에서 통일신라 후기 문화층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中初寺址 위에 安養寺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양사지 중심사역의 배치는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남측과 좌우측에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안양사지 창건과 관련된 층위는 고려전기에 해당하며, 안양사의 사세가 확장된 것은 11세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²⁹⁾

(3) 僧堂, 僧房

안양 안양사 승방지(건물지2)는 강당지(건물지1) 북쪽에 위치한다. 초석간 위치와 간격으로 볼 때 정면 9칸, 측면 1칸 이상의 세방형 건물로 추정되나 북쪽기단의 장대석렬이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북쪽 방향으로 직각에 가깝게 꺾여 ‘┐’자형일 가능성도 있다. 자연석



그림 5. 안양사 강당지·승방지 전경



그림 6. 고달사 가-1건물지, 가-12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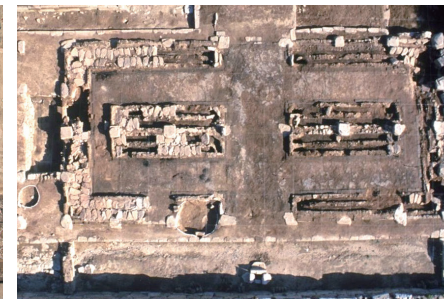


그림 7. 회암사 서승당지

초석으로 주간거리는 정면 4.1~4.3m, 측면은 5.1m이다.

승당은 선승들이 모여 좌선정진하며 공양하는 곳이다. 집단적 수도생활을 중시하는 선종사원에서는 승당과 고원의 발전을 가져왔다. 송대 선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五山十刹圖』의 그림을 보면 僧堂과 庫院이 불전의 오른쪽과 왼쪽 전면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고달사 가-1건물지(10~13세기)는 가-2건물지(법당지)·3건물지와 함께 하나의 院을 이루고 있는 장방형 건물지로, 그 위치나 규모(최대 규모일때 정면 기단길이 약 61m, 측면 기단길이 약 16.3m) 및 여러 차례의 중창 및 증개축을 거쳐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승당지로 추정된다. 이는 승려의 수나 사세의 변화에 따라 중수되어 오다가 사세가 급격히 줄어든 조선시대에 이르면 더이상 유지되지 못한 채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³⁰⁾

회암사 서승당지(14세기 후반~16세기)는 보광전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8칸(3.12~4.33m), 측면 4칸(2.8~3.11m)이며, 내부에 ‘ㄷ’자 형태로 마주보는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아궁이는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2개소씩 확인되었는데, 모두 난방이 주목적인 함실 아궁이다. 고래는 건물 내벽을 따라 만든 ‘ㄷ’자의 외곽 ‘ㄷ’자 부분은 2골씩 두고, 중앙 ‘一’자 부분은 벽체를 중심으로 총 4골을 두었다. 굴뚝은 서쪽 기단 밖의 외곽 석축단 아래에서 확인되었다.³¹⁾

30) 기전문화재연구원·여주군, 2007, 『高達寺址 II』.

31)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檜巖寺 III -5·6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pp.37~42.

29) 한울문화재연구원·안양시, 위의 보고서, 2013, p.315, p.331.

3) 下院領域

(1) 庫院

승려들의 식사와 의례에 사용되는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을 중심으로, 사원 경영을 담당하는 지사들의 요사, 의례 및 창고 등의 기능이 복합된 건축군이다. 선종사원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구로 최근 庫院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몇몇 선종사원지에서 발굴되고 있다.

굴산사 건물지3(12세기)은 정면 6칸(4.1m), 측면 4칸(2.6m-3.5m-3.5m-2.6m) 건물로 초석 21기가 남아있다. 건물 동쪽에는 별다른 시설을 두지 않은 반면, 서쪽에는 난방시설이 있다. 서쪽 세 번째 칸에는 2m 내외의 장대석을 방형으로 두른 공간(길이 2.9m, 너비 4.1m, 기단상면보다 50cm 낮음)이 있고, 그 뒤에는 부뚜막 없이 자연 석으로 축조한 아궁이와 고래, 구들장, 연도가 남아있다. 아궁이는 전면에서 취사용기나 도구가 확인되지 않아 난방시설로 추정된다. 고래는 4줄로 조성하였으나 각 2줄이 1줄로 합쳐져 'S'자형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북서쪽 외곽연도로 이어지는 형태다. 연도는 건물의 북서쪽 모서리 외곽으로 4.2m 가량 돌출된 형태로 폭은 1.4m이다. 배연구는 방형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단은 1매의 장대석으로 마감하였다.³²⁾ 이 굴산사 건물지3(12세기)은 1棟의 짝수칸 건물로 '일동이실형' 평면을 가졌으며, 실상사 부여-8호 건물지(통일신라→고려)와 유사한 구들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상사 부여-8호 건물지(고려)는 'ㄷ'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3.75m), 측면 5칸(3.02m-4.0m-4.0m-3.02m-4.65m)이다. 구들은 외출고래로 내부에 개축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북쪽 첫 번째 칸에서(우측면칸에는) 3개 영역으로 구분된 6기의 아궁이가 확인됨에 따라 난방은 물론 조리를 위한 부엌이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는 이 건물의 성격에 대해 6기의 아궁이와 고래시설 및 주변 건물지 등을 고려하여 선종사원 庫院의 중심건물인 부엌(廚)과 승려의 침식공간[僧房址]이 결합된 특수용도의 건물지로 판단하였다. 유구 중복 양상으로 볼 때 이 건물지 축조 후 그 서쪽으로 醬庫址로 추정할 불교-7호 건물지(고려)가 건립되어 있다. 정면 3칸(5.4m) 이상, 측면 3칸



그림 8. 굴산사 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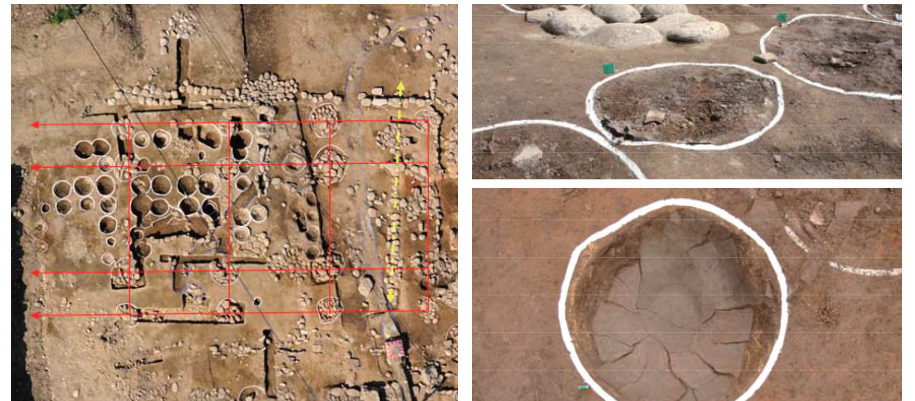


그림 9. 실상사 불교-7호 건물지, 대형옹 노출상황

(2.4m-5.4m-2.4m) 규모로, 대형옹 수혈시설 43기(옹 26기, 수혈 17기)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성토층에서는 중판선문·어골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폐기층에서는 '實相'명 기와편, 연화문 수막새, 포도당초문 암막새,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³³⁾ 1999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할 당시 고래 내부에서 청동향로편이, 내부에서 귀

32)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5,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보고서 I』, p.55.

33) 佛教文化財研究所, 2016, 『남원 실상사 일원 발굴조사(3차) 약보고서』, pp.21~29, p.34.

면와(총 13점)는 물론 박공막새, 연화문 수막새·포도당초문 암막새편이 집중 출토되었다.³⁴⁾ 이상의 출토유물을 고려할 때, 부여-8호 건물지의 성격이 승당지일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교-8호 건물지의 경우 내부에 대형 웅이 출토되었으나, 대개의 '醬庫'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장독대인 점을 감안할 때 유구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廚庫+浴室 / 製茶室

고달사 가-4건물지(11~12세기)는 마루+구들+욕실+-구들로 구성된 정면 4칸(4.3~4.6m), 측면 1칸(5.5m) 규모의 건물지이다. 실의 구성은 오른쪽(남쪽)에서부터 순으로 되어 있다. 우어칸과 좌협칸에는 방형으로 구획된 아궁이와 외출고래가 남아 있으며, 좌어칸에는 石槽(장변길이 3.21m, 단변길이는 1.49m, 높이 0.98m)가 놓여져 있고, 우협칸에는 우물마루흔적인 탄화판재가 남아있다. 탄화판재[우물마루] 상부 소토층에서는 상당량의 기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청자와 도기, 흑유완 등도 복원 가능한 형태로 출토되었고, 철정, 배목, 고리, 국화쇠 등 다량의 철물이 출토되어 廚庫+浴室 용도의 건물로 추정된다.



그림 10. 고달사 가-4건물지 유물 출토상태

(3) 방아칸

굴산사 방아시설(12세기)은 정면 2칸(3.2m-1.6m), 측면 1칸(2.6m)으로 사역중심 공간과 생활공간을 경계 짓는 담장3의 밖에 위치하고 있다. 별도의 기단 없이 장방형

벽체를 둘러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정면에는 벽체가 시설되어 있지 않아 출입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방형초석(60cm) 3기가 높여 있고 나머지 3기는 벽체 내부에 있다. 중앙에는 약 40cm 내외의 장방형 석재 2매를 평행하도록 수직으로 박아 디딜방아 거치대(볼씨)를 놓았으며, 그 동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는 방아확(내부공 지름 25cm)이 있다.³⁵⁾



그림 11. 굴산사 방아시설

4) 別院領域

고려시대 사원은 불전지나 탐지가 여러 개의 별원을 구성하는 경우(개풍 홍왕사지, 함천 영암사지), 행궁·진전·역원 등 특정 성격을 갖는 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안성 봉업사지, 파주 혜음원지, 중원 미륵리사지), 동원이나 서원 등 별도로 칭하는 원이 있는 경우(완주 경복사지), 금당과 탐이 독립된 원을 구성하는 경우(경주 고선사지) 등이 있다.

(1) 行宮

파주 혜음원지³⁶⁾는 개경과 남경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22년(예종 17)에 지은 절로 『혜음원신창기』에 따르면 원이 축조된후 행궁(별원)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원지 상단에 배치된 행궁영역은 정전(정면 3칸, 측면 3칸)과 좌

34)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9, 『實相寺 發掘中間報告』, p.177.

35)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5,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보고서 I』, p.67.

3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4차-』.

우익사(각 정면 2칸 측면 3칸)로 구성된 중심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는 부속건물들이 마당을 둘러싸고 좌우대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고, 후면에는 후원이 있다.

(2) 眞殿

장단 佛日寺는 951년(광종 2)에 창건한 왕실원찰로 광종의 어머니 神明太后 劉氏의 원당으로 삼았다. 사지는 당간지주, 오층석탑, 초석, 담장지가 잘 남아있으며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중심영역은 중문지와 석탑, 대웅전지, 강당지가 중심축선에 놓이고 좌우에 승방지가 배치되어 있다. 서편영역은 중심영역보다 한 단 낮은 대지에 조성되었는데 문지와 사면 회랑 그리고 중앙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앙전지(관음전지 추정)가 있고, 그 북쪽에는 진전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다. 이 유구를 진전지로 보는 이유는 다른 건물들과 달리 주춧돌이 특별히 장식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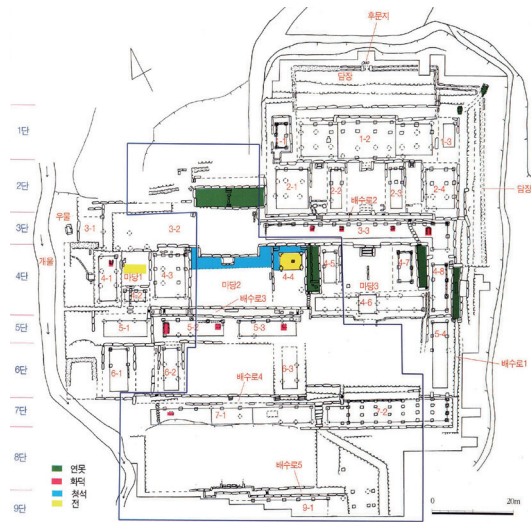


그림 12. 해음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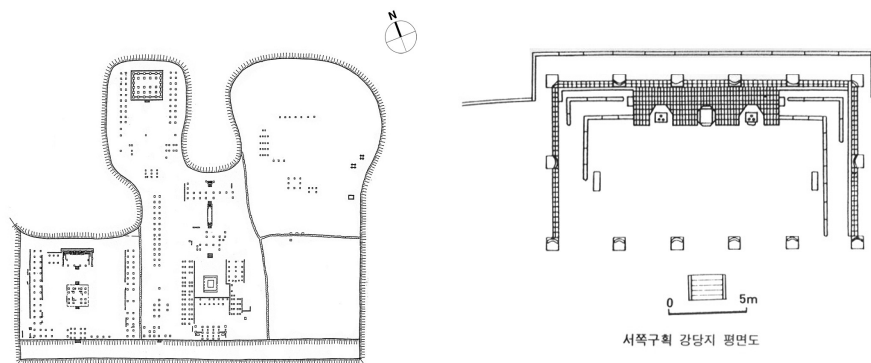


그림 13. 불일사 배치도 및 서편영역 북쪽 건물지

있는 점(건물의 중요성), 내부가 통공간으로 되어 있는 점(높은 수준의 구조), 제단과 같은 평면시설배치(제단, 향로 놓는 기초부)를 들고 있다.³⁷⁾

(3) 院館(驛院+客館),

1120~1122년에 조성된 파주 해음원지는 『惠陰寺新創記』를 통해 齋祠와 息宿, 廚庫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결과 총 9단의 축대가 확인되었으며, 영역의 성격은 행궁지, 원지, 사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음원지는 원의 배치와 건물의 성격, 출입방식, 조정시설, 배수시설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의 운영상황과 여러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중 원지영역은 불전으로 추정되는 3-3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윤장대가 설치된 4-4건물지가, 우측에는 별도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건물지의 동쪽과 남쪽에는 정면 2칸마다 화덕시설을 갖춘 측면 1칸의 긴 건물지가 놓여 있고, 그 전면에는 여러 개의 단을 이루는 회랑과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 법천사지 객관추정영역(Ⅱ구역)은 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익사 형태의



그림 14. 법천사 Ⅱ구역 객관 추정영역 및 화덕시설

37) 한용걸, 문병철, 1995, 「고려 불일사의 터자리복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3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pp.31~35.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북쪽에는 2호·4호 건물지, 석실유구 2기가 위치하고 있다. 1호 건물지의 전면에는 계단지 2개소와 보도, 차면담이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의 서쪽에는 마치 익사처럼 건물지 3호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전면에는 계단지와 보도 2개소가 놓여 있고, 담장이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문지 앞에는 차면담이 놓여 있다. 12호 건물지는 Ⅱ구역 서쪽에 조성된 건물지로 규모는 정면 12칸, 측면 1칸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ㄷ’자 형태의 화덕시설이 확인되어 객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호와 5호 건물지를 경계 짓는 격벽시설의 북쪽과 남쪽에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석실 2기가 확인되었다.

(3)苑

실상사 1호·2호 건물지(고려)는 원지와 하나의 영역을 이루며 주변을 玩賞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역의 동측면 경계부에 위치한 점이나, 먼저 축조된 1호 건물지가 입수로를 바라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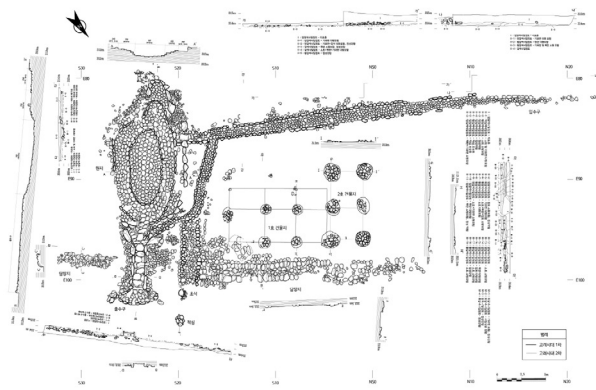


그림 15. 실상사 원지, 1호·2호 건물지, 담장지

것으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1호 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 초기 어골문 기와, 선문계 기와 등이 출토되었고, 2호 건물지 적심 내부에서는 고려시대 연화문 막새, 어골문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³⁸⁾

실상사 원지(고려)는 고려시대 목탑과 축이 일치하며, 타원형을 띠며 냇돌을 이용하여 3단으로 조성하였다. 1단은 냇돌을 편평하게 바닥에 깔고, 냇돌 사이에 황색점토와 숯을 이용하여 틈을 메웠다. 2단은 동남쪽의 출수구와 연결되며, 3단은 서북쪽의 입수

로와 연결되도록 조성하였다. 곡수로는 원지로 유입되는 물을 우회시켜 출수구로 연결함으로써, 수량 조절 및 원지의 청소, 수리, 의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인 원지 및 연못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수생식물이나 물고기를 키우지 않고, 깨끗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을 보여준다. 토층조사에서도 원지 바닥돌 상부에서 퇴적된 점질토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實相寺’명 기와편 및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³⁹⁾

(4)상장시설물

굴산사 원형유구(9세기 후반~10세기)는 승탑보다 한 단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으나 사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보도를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때, 선종공간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곽으로 보도가 시설되어 원형유구의 주변을 돌 수 있게 설계되었다. 원형유구는 남북이 동서보다 약간 긴 타원 형태를 띠는데, 남북 6m, 동서 5m이다. 원형유구는 별도의 굴착 없이 정지층 상면에 크기 30cm의 자연석을 보도와 맞물리도록 두르고 그 내부에 황갈색 및 명갈색 점토를 30cm 두께로 다짐하여 조성하였다.⁴⁰⁾

5) 생산 및 폐기 영역

(1)가마

고달사지의 사역 하단 서쪽 외곽에서 목탄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증숙실인 상단부, 격벽, 발열실인 하단부로 이루어져 있다. 증숙실은 바닥면보다 높게 조성되었으며, 남쪽 발열실의 벽체 일부와 바닥면은 붉게 피열되었다. 유구의 1/3지점에는 약 붓돌을 두고 이맷돌을 얹은 화구가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에는 목탄흔이 넓게 남아있다. 그 상부에는 피열된 석재와 와편, 소토,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⁴¹⁾

굴산사 가마(9세기 후반~10세기)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연소실과 소성실이 일부 확인되었다. 가마 내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퇴적된 목탄층이 확인

39) 佛教文化財研究所, 2016, 『남원 실상사 I』, p.71, p.269.

40)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5,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보고서 I』, p.76.

41)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여주시, 2014, 『여주 고달사지 8차 약보고서』, p.21.

38) 佛教文化財研究所, 2016, 『남원 실상사 I』, pp.80~81.

되었고, 조업면에서 별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퇴적층에서 기와편 및 도기편이 출토되어 와도겸업 가마일 가능성도 있다.⁴²⁾



그림 16. 굴산사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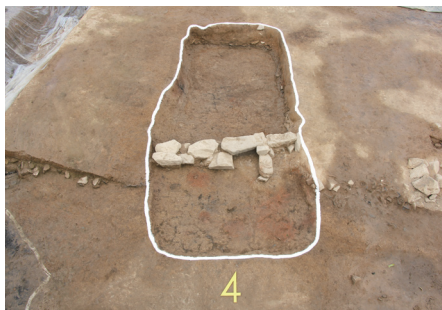


그림 17. 고달사 목탄가마

(2) 매립유구, 폐기장, 폐기구

고달사지 남쪽 외곽에서는 기와와 자·도기가 혼입된 가-매립유구(12~13세기)가, 목탄가마와 인접한 위치에는 가-목탄폐기장(12~13세기)이, 동쪽 외곽에서 가-기와폐기구가 확인되었다. 가-매립유구는 사원 내에서 사용하였던 기와와 생활용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판 구덩이로 생각되며, 가-목탄폐기장은 목탄가마 운용과 관련된 폐기장으로 판단된다. 가-기와폐기구는 사역의 동쪽 경계 밖에 위치하여 원지형의 잔존면을 따라 호상으로 길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 외곽으로 모래자갈층이 상당범위로 넓게 위치하고 있어 상당 기



그림 18. 고달사 가-매립유구



그림 19. 고달사 가-목탄폐기장, 가-기와폐기구

간 동안 넓은 범위의 물길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사원의 경계부 보축과 관련된 폐기구로 추정된다.

4. 맺음말

고려시대 불교사원은 그동안 선사상의 영향과 지방호족의 지원에 힘입어 고대 규범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조영되었고, 고려전기에는 풍수도참사상을 존중하여 지세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다양한 교리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구성을 이룬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최근 들어 사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발굴자료가 점차 늘어나면서 병행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원별 건립주체와 조영배경, 기능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건물지별 기능, 위계, 배치 등을 고려하여 上院·

42)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5,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보고서』, p.74.

中院·下院·別院領域, 기타영역, 생산 및 폐기영역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고려시대 사원의 공간구성을 파악해 보려 하였다. 향후 고려시대 사원의 전각별 용도와 구조, 내·외 부공간의 사용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더 생생하고 역동적인 고려시대 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사진 출처

- 회암사 설법전지·방장지·조사전지·영당지 /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 법천사 부도전지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 영암사 금당지 / 동아대학교 박물관 1985
- 고달사 불전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 안양사 강당지·승방지 전경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 고달사 가-1건물지, 가-12건물지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회암사 서승당지 /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 굴산사 건물지3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5
- 실상사 불교-7호 건물지, 대형옹 노출상황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2016
- 고달사 가-4건물지 유물 출토상태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 굴산사 방아시설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5
- 해음원 배치도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 불일사 배치도 및 서편영역 북쪽 건물지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 법천사 II구역 객관 추정영역 및 화덕시설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 실상사 원지, 1호·2호 건물지, 담장지 / 佛敎文化財硏究所 2016
- 굴산사 가마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5
- 고달사 목탄가마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고달사 가-매립유구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 고달사 가-목탄폐기장, 가-기와폐기구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05

고려 불교의 본산, 경기의 사찰

장일규 |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태조 왕건은 후대 국왕들에게 유언으로 ‘훈요10조’를 남겼다. 그는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호위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연등회와 팔관회의 꾸준한 시행을 부탁했다. 그는 호법(護法)을 고려 국가의 안녕과 융성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왕건은 건국 이듬해에 개경을 수도로 삼고서 법왕사·왕륜사 등 사찰 10곳을 창건한 뒤 북한산과 관악산 주변에 중흥사와 삼막사를 창건하거나 수리했다. 찬유, 여엄, 경보 등 왕건에 귀의했던 선승(禪僧)도 개경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주변에 고달사, 용문사, 사나사, 회룡사 등을 중창하거나 창건했다. 특히 봉업사는 왕건의 초상화를 모신 여러 사원 가운데 하나로 운영되기도 했다.

후삼국 통일 전후 교선합일(敎禪合一)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교종 사찰도 전통을 이어갔다. 최치원의 ‘화엄십산’ 중 하나인 청담사, 교종 불교를 아우른 선승 탄문과 관련한 장의사와 봉선사, 김제 금산사·익산 미륵사와 연고된 혜거가 창건한 도봉사 등은 경기의 대표적인 화엄종과 법상종 사찰로 자리했다.

교선 불교의 어울림 속에서, 광종은 고달원, 희양원, 도봉원에만 대장경을 소장하



여주 고달사터 전경

고, 대대로 단절되지 않도록 특별히 명령했다. 도봉사의 흔적은 온전히 확인할 수 없지만, 사방 30리의 사역에 수백 명의 승려가 주석했던 고달사에는 현재 가장 큰 불상 받침돌과 함께 웅장한 크기에 세련된 조각을 담은 승탑이 전하고 있다. 고려 초부터 지금의 경기도 사찰은 왕실의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11세기에 경기 사찰의 영향력은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되었다. 정현은 칠장사를 창건하고서 삼천사와 도봉사의 법상종을 개경 현화사로 연결했고, 원주 법천사 해린, 김계 금산사 소현과 인주이씨 이자연, 문종의 아들 도생에게도 이어지게 했다. 안산김씨 김은부의 아들 난원은 문종 아들 의천, 숙종 아들 징엄을 거쳐, 서봉사에 머물면서 부석사의 화엄사상을 아우른 인종의 아들 덕소에게 화엄과 천태 불교를 전하기도 했다. 문벌 귀족의 등장 속에서도 경기 사찰은 여전히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고려 불교계를 주도했다.

무인정권이 등장하고 연이어 몽골이 침략하자, 경기의 사찰은 여느 지역처럼 대부분 폐허화했다. 다만 교선융합과 유불교섭(儒佛交涉)의 사상 경향이 점차 성행하면서, 지눌과 제자 승형은 현등사와 보광사를 창건하여 중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14세기에



양주 회암사터 전경

들어서 지공과 제자 나옹은 꾸준히 회암사를 중창하여, 회암사를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자 경기 불교 중흥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 뒤 회암사를 중심으로 혜근과 보우는 청룡사와 태고사를 중창하거나 창건했고, 자초도 회룡사와 보광사를 중창하면서 신흥사의 대장경 불사도 이



여주 신흥사 보제존자 석종

끝났다. 특히 보우와 혜근은 사나사·고달사와 관계하면서 고려 초 경기 사찰의 사세를 다시 일으켰고, 공민왕은 봉업사를 중창하여 경기 사찰에 담긴 태조 왕건의 위상을 다시 부각했다. 이후 경기 불교계는 태조 이성계와 연고되어 조선 건국에 기여했다.

대장경, 불화로 상징되는 고려 불교는 고려 역사문화를 이룬 한 축이다. 현재 경기도의 사찰은 대체로 흔적만 남은 편이지만,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학술 조사를 통해서 그 진면목을 상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여주 고달사터 전경 / 장일규
- 양주 회암사터 전경 / 장일규
-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 장일규

06

능묘에 담긴 고려인의 삶과 죽음

이희인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I. 고려시대 사후의 공간

1. 과거를 보는 또 하나의 창(窓), 무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개성 출신 호족의 아들이었던 왕건이 고려를 열었다. 당시는 명운이 다한 천년 왕조 신라와 궁예와 견훤 등이 세운 나라가 서로의 운명을 다투던 혼돈의 시기였다. 본래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 있다가 4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고려는 935년(태조 18) 신라의 항복을 받고, 이듬해 후백제를 무너뜨리면서 '반란 세력'에서 정통 왕조가 되었다.

당시 고려의 등장은 한반도를 통치하던 왕조가 교체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 시대 구분에서 고대에서 중세의 이행기로 인식되기도 하는 나말여초(羅末麗初)기 정치·사회·문화의 변동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새 왕조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고려의 건국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처음으로 지방 세력이 주도해 건설한 왕조 고려의 등장은 한반도의 중심이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국 이듬해인 919년(태조 2) 지금의 개성에 도읍을 정하면서 사회·경제·문화의 주도권이 동남부 경주에서 중부 지역으로 옮겨졌다. 500여년 뒤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한양으로 도읍이 옮겨졌고 오늘날에는 행정수도 건설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10세기 전반부터 1,00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중심이 경기만(인천만)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나말여초 전환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곧 사람들의 삶의 흔적인 유적과 유물에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삶의 한 축을 이루는 죽음과 관련된 물질 자료도 예외가 아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의 의미와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체득하면서 죽음을 대하는 나름의 방식을 만들었다. 시대와 지역 그리고 문화마다 죽은 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물질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매장이다. 보통 사자(死者)를 안치하는 공간을 무덤이라 부르는데 그것의 형태나 규모, 묻힌 이의 신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고분(古墳), 능(陵), 분묘(墳墓), 분(墳)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지금도 그렇듯이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 등을 매장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집안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덤이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해 무덤을 조성했던 시기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이 담겨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무덤의 구조와 형태,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무덤을 만드는 제도를 묘제(墓制)라 하고 이를 포함해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제반 절차를 장제(葬制)라 했을 때 이러한 묘·장제는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 지금은 화장(火葬)이 점차 보편화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 중심의 복잡한 장례 절차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보수적인 묘·장제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당대의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무덤의 변화

고려시대 이전 한반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조성되었다. 역사시대로 한정해서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는 적석총, 신라는 천마총으로 대표되는 적석목곽분이 최상위 계층의 묘제로 적용되었다. 이밖에 묘광을 파고 벽체를 돌로 쌓은 석곽묘(石槨墓)와 흙을 파고 목관 또는 시신을 안치하는 토광묘(土塋墓), 대형 토기[甕]에 시신을 안치하는 옹관묘(甕棺墓)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조성되었다. 삼국시대 후반부터 각 나라의 상위 묘제는 저마다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통일되고 이와 함께 석곽묘가 보편적인 묘제로 자리 잡는다.

통일신라시대 성행한 횡혈식석실분은 왕실과 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굴식돌방무덤이라고도 불리는 이 묘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 또는 반 지하에 돌로 무덤방을 조성하고 여기에 묘도(墓道)와 연도(羨道)로 이루어진 널길을 연결해 외부와 통하는 구조다. 무덤방 천정은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궁륭상(穹窿狀)이다. 석실 바닥에는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시상대 또는 목관을 놓는 관대가 설치되며 그 위에는 시신의 머리와 발을 받치는 머리베개[頭枕]와 발받침[足座]이 놓여 지기도 한다. 널길을 통해 무덤방으로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안치한 뒤에 또 다른 망자(亡子)를 추가로 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무덤방에 여러 명이 안치된 유적이 확인되어 실제로 추가장(追加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곽묘는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무덤으로 삼국~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사용된다. 시신을 널길을 통해 수평 방향으로 무덤방에 안치하는 횡혈식석실분과 달리 석곽묘는 위에서 아래로 안치하는 수혈식 구조가 많다. 석곽의 하단에 간단한 묘도를 설치해 시신을 안치하는 횡구식석곽묘(橫口式石槨墓)도 존재하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수혈식 석곽묘가 보다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석곽묘에도 횡혈식석실분처럼 바닥에 시신 또는 목관을 안치하는 대(臺)가 설치되었는데 점차 별다른 시설 없이 흙바닥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고려시대 묘제로는 석실분과 판석재(板石材) 석곽묘, 할석재(割石材) 석곽묘, 토광묘가 주로 사용되었고 화장묘(火葬墓)도 성행하였다. 이상의 묘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전시기 묘제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횡혈식석실분이 사라지고 석곽묘 보다 토광묘가 가장 보편적인 무덤의 형태로 자리 잡는 변화가 나타난다.(이희인, 2017)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면 삼국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횡혈식석실분은 고려시대 들어와 소멸한다. 고려시대 석실분은 돌로 무덤방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횡혈식석실분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널길이 사라지고 천정도 궁륭상이 아닌 평천장으로 변화한다. 게다가 왕과 왕비의 무덤, 즉 왕릉(王陵)으로만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한편 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판석재 석곽묘라는 새로운 무덤의 형태가 등장한다. 판석재 석곽묘는 다듬어진 판석(板石)을 이용해 벽면과 덮개를 구성하며 내부에 벽화가 그려지기도 한다. 석실분이 축소된 형태로 인해 판석재 석곽묘는 소형 석실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고려시대 판석재 석곽묘와 거창 둔마리 벽화묘

고려시대 묘제의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 한 것은 토광묘가 널리 조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석곽묘처럼 선사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토광묘는 삼국~통일신라시대에도 축조되었지만 고려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무덤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토광묘는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무덤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토광묘가 확산되었던 고려시대는 한반도 묘제의 흐름이 석축묘에서 토축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겠다.(이희인, 2017)



고려시대 석곽묘와 토광묘

모든 시대에서 그랬듯이 고려인들은 위계에 따라 다른 무덤을 만들었다. 왕과 왕비는 그들의 무덤으로 석실을 조성했고 상류층은 판석재 석곽묘, 그 이하는 석곽묘와 토광묘를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매장 이외에 화장(火葬)도 성행했다. 화장묘는 지금까지 고고학적 자료로서 확인된 예는 많지 않은데 유골을 안치하는 용기에 따라 조립식석관묘(組立式石棺墓), 화장 용관묘 등이 알려져 있다. 이중 조립식석관묘는 각 면을 판석으로 조립해 1m내외 크기의 상자 형태로 만든 것으로 석관 외면에 사신도와 별자리 등을 새겨 놓았다. 석실분을 크게 축소한 모습으로 상위 계층에서 화장을 한 인골을 담았던 용기로 여겨진다.(정길자, 1985)

무덤에는 자기와 도기, 금속기 등을 부장품으로 넣었다. 무덤의 위계에 따라 부장품의 질과 양, 조합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는 10세기 초기 청자가 한반도에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했다. 기종은 완과 발을 중심으로 접시, 대접이 가장 일반적이며 잔, 잔탁, 편병 등의 특수 기종도 확인된다. 이전 시기부



조립식 석관묘

터 주요 부장품이었던 도기류는 편병, 반구병, 항아리 등 다양한 기종이 있다. 금속기로는 청동 합, 발, 잔, 접시 등의 기명(器皿)과 동곳, 거울, 손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동전과 철제가위 등이 주된 품목이다. 고려시대 부장품은 대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는 일용품들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자기 발과 접시, 숟가락은 고려시대 무덤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장품으로 세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II. 최고 권력자가 잠든 공간, 왕릉

1. 개성의 왕릉

전근대 국가에서 왕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래서 왕과 비(妃)의 무덤은 보통 사람의 것과 구별해 능(陵)이라 부른다. 최고 권력자의 무덤인 만큼 왕릉은 도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500여 년 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주변에는 현재 약 60여기의 왕릉이 있다. 그런데 이



개경 7릉 중 3릉

가운데 상당수는 능의 이름, 즉 능호(陵號)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름 대신 7릉폐 1릉, 2릉처럼 번호로 불리는 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왕릉을 잃어버린 것은 고려 후기 몽골과의 전쟁 그리고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관리가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들어선 후 그 실태를 살폈으나 이미 많은 왕릉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고려 왕릉은 고려시대부터 도굴로 파헤쳐 졌고, 이후 보수로 인해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개성 일대의 왕릉은 옛 도성(都城) 주변에 분포한다. 이 가운데 서쪽 만수산 일대에 가장 많은 능이 있어 태조 현릉과 공민왕 현릉을 비롯한 23기의 능이 자리한다. 만수산 일대의 왕릉 가운데 태조 현릉과 공민왕 현릉, 충목왕 명릉, 7릉폐 왕릉 군이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 가운데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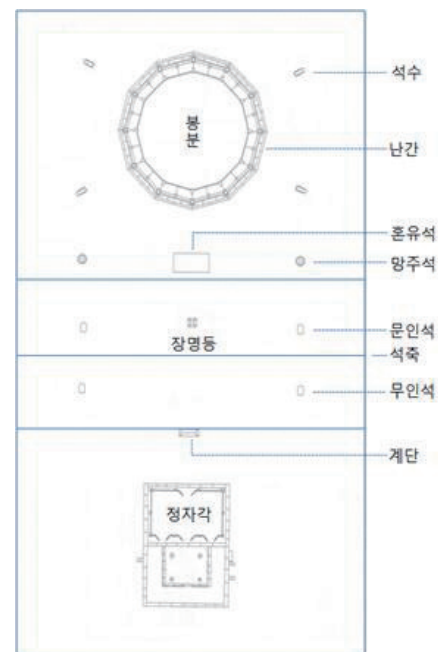
고려 왕릉은 외형적인 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왕릉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모습이다. 능역에 석인상과 돌짐승을 배치하고 12지신을 새긴 호석을 봉분 주위에 설치하는 방식은 중국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구

조는 고려만의 독특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 계승과 창조가 공존한다.

고려의 왕릉은 산 중턱 경사면에 터를 잡았다. 능 좌우로 산줄기가 감싸고 그 사이에 천(川)이 흘러가는 지형을 선호하였다. 평지 또는 낮은 구릉에 자리하는 통일신라시대 왕릉과 능선 끝자락에 조성된 조선 왕릉과 다른 점이다. 능역은 남북 길이 30~40m, 동서너비 20~25m 내외로 조성되었고 산의 경사면을 따라 3~4단의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다. 계단식 구조는 산지의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능의 위엄을 높일 수 있었다.

능역의 가장 윗 단에는 석실이 자리한다. 석실 위에는 봉분을 쌓고 주위에 호석을 두르고 돌짐승을 배치한다. 봉분의 뒷면과 측면에는 곡장(曲牆)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 아랫단에는 석인상과 장명등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제례를 지내기 위한 전각을 배치했다. 이러한 고려의 능제(陵制)는 공민왕릉에서 완성되었고 이는 조선 왕릉의 원형이 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중국처럼 왕의 사후에 묘호(廟號)와 함께 현릉, 장릉 등 우리가 익숙한 능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개경 일대의 왕릉 가운데 20여기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석실[무덤방]의 구조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왕릉은 대개 남쪽을 바라보고 조성되는데 무덤방도 이에 맞춰 남북 길이가 동서 너비보다 넓은 장방형 형태를 띠고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능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 남북 3~3.5m, 동서 2.5~3m이며 높이가 2m 내외로 사람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다. 벽체는 넓고 평평하게 다듬은 판돌을 세우거나 눕혀 여러 매를 이어 구성하기도 하며 긴 벽돌 형태로 다듬은 장대석을 층층히 올리거나 작은 크기로 깎아 불규칙하게 쌓기도 한다. 그러나 무



고려왕릉 구조 모식도

덤방의 천정은 대개 판석 3~4매를 이어 붙여 평천장을 이룬다. 남쪽으로 나 있는 무덤방의 입구에는 동서 벽체에 기둥 돌을 세우고 바닥에 문지방석을 놓은 뒤 그 사이를 대형 판석으로 마감한다.

무덤방 바닥에는 전돌이나 박석을 까는 경우가 많지만 흙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석실 중앙에는 관을 안치하기 위한 관대가 설치되고 옆으로 부장품을 놓는 부장대가 배치되기도 한다. 관대는 하나의 통돌로 제작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석재를 이어 붙이는 형태, 테두리 부분만 장대석으로 두르고 내부는 흙으로 채워 놓는 방식 등 왕릉마다 차이가 있다. 무덤방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지는데 천정에는 공통적으로 별자리가 그려지며 벽면에는 사신도나 소나무, 대나무 등의 식물을 그려 넣는다. 일부 왕릉에서는 그림을 그려 넣은 휘장으로 벽화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왕릉(강화 곤릉) 무덤방의 구조



(傳) 인종 장릉 출토유물

개성 일대의 왕릉 가운데 상징적인 유적으로 태조 왕건의 능인 현릉(顯陵)을 들 수 있겠다. 왕조 창업주의 능이면서 이장과 파괴, 도굴, 복원 등 왕조의 굴곡진 역사가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왕건은 67세에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의 서쪽 만수산 기슭에 묻혔다. 그 후로 70여년



왕건릉과 왕건상

이 흐른 1016년(현종 7)거란의 침입으로 왕건의 관[재궁]은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로 잠시 옮겨졌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에 묻었다. 1217년(고종 4)에는 몽골

군에 쫓긴 거란의 잔적이 국경을 넘어오자 다시 그의 재궁을 개경 봉은사로 옮겼고, 1232년(고종19)에는 도읍을 옮기면서 세조의 재궁과 함께 강화로 이장하였다. 1270년(원종11) 개경 환도한 뒤 임시로 개경 이판동으로 옮겼다가 1276년(충렬왕 2) 지금의 자리로 돌아왔다. 왕건은 죽은 뒤에도 그가 세웠던 왕조와 명운을 같이 했던 것이다.

현릉은 1992년 발굴되면서 구조가 확인되었다. 구릉 경사면의 반 지하에 조성된 무덤방은 남북 3.43m, 동서 3.1m 높이 2.16m의 크기다. 남벽을 제외한 무덤방의 벽체는 화강암 판돌을 3~4개씩 세워 조성했고, 입구에 해당하는 남벽은 동·서벽 양쪽에 잇대어 판돌을 각각 1매씩 놓고 그 가운데에 나무문을 설치한 뒤 바깥을 판돌로 막았다. 천정은 고임돌을 놓고 그 위를 판돌로 덮은 형태다. 무덤방 가운데에 관대를 두고 동쪽과 서쪽에 부장품대를 각각 배치했다. 벽면과 천정에는 벽화가 남아있는데 천정에는 성신도(星辰圖)를 동벽에는 매화, 대나무와 청룡, 서벽에는 소나무와 매화, 백호, 북벽에는 현무를 그렸다. 현릉의 현재 모습은 발굴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결과다. 그러나 현릉은 고려~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굴 이전의 모습도 조성 당시 그대로는 아니었다. 무덤방에서 왕건이 이곳에 묻힌 뒤 한 참 뒤인 12~13세기 청자가 발굴된 점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해준다. 왕건릉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도굴로 파헤쳐 졌고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파괴된 것을 1954년 복구했다.

한편 현릉에서 주목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1992년 10월 왕릉을 고치는 과정에 봉분 북쪽의 구덩이 속에서 왕건상이라 불리는 높이 약 1.4m의 청동상이 발견되었다. 태조 왕건을 형상화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상(像)은 좌상(坐像)으로 머리에는 황제의 관인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나신(裸身)위에 비단옷을 입고 금동과 옥(玉) 장식의 허리

띠를 패용했다. 이 왕건상은 광종 연간(949~975)에 만들어져 오랫동안 태조의 진전 사원인 개경 봉은사에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왕조가 명운을 다한 뒤에 더 이상 개경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연천으로 옮겨졌다가 세종 때 이곳에 묻혔다고 전한다. 이 왕건상에도 왕조의 흥망(興亡)과 굴곡이 담겨 있다.

2. 강도의 왕릉

고려 왕릉은 개성뿐만 아니라 강화에도 있다. 강화는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여몽전쟁기간 동안 개경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도읍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사람들은 강화를 강도(江都)라 했고 황제의 도읍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오늘날 강화는 남한에서 고려 왕릉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된다. 경기도 고양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릉이 있지만 이는 고려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 조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겠다.



강화 고려왕릉(좌 : 석릉, 우 : 홍릉)



강화 고려왕릉(좌 : 곤릉, 우 : 가릉)



천도 당시 강화로 옮겨진 태조의 재궁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지만 강화에는 강도 시기에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의 능은 그대로 남았다.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의 홍릉을 비롯해 최충헌에 의해 폐위된 후 사망한 희종의 석릉,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의 곤릉, 고종의 며느리이자 훗날 충렬왕의 어머니인 순경태후 가릉 등 4기의 왕릉이 그것이다. 이 밖에 인산리 석실분과 능내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 등 왕릉으로 추정되는 석실분 3기가 있다. 현재 주인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강화에서 사망한 왕실 인물의 능으로 추정된다.

개성의 왕릉은 도읍의 사방에 고루 분포하지만 강화도의 왕릉은 섬 남쪽에 자리한 진강산 일대에 주로 자리한다. 4기의 왕릉 가운데 고종 홍릉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강산 자락에 있으며 인산리 석실분도 이곳에 있다. 진강산은 왕릉뿐만 아니라 강도시기 무인 정권의 수장인 최항과 김취려, 유경현 등의 고위 관료의 매장지이기도 했다. 고종의 홍릉은 다른 능과 달리 강도 서쪽의 고려산 자락에 홀로 자리한다. 홍릉만 따로 떨어져 있는 까닭은 고종이 다른 능주와 달리 현직 국왕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신분상 위계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능을 설치했다고 여겨지고 있다.(이상준, 2016)

지금까지 강화에 있는 고려 왕릉 4기 가운데 홍릉을 제외한 나머지 3기가 발굴되었고 석실분 중에는 능내리 석실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강화 왕릉은 70년대에 학술조사 없이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일부 변형되었지만 전반적인 능의 형태와 구조, 축조 수준은 개성의 왕릉과 차이가 없다.

무덤방은 석릉과 곤릉은 깎은 돌을 이용해 쌓은 반면,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은 장대석으로 구성해 벽체의 축조 방식이 능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무덤방 바닥에 설



곤릉 석실

치된 관대는 모두 장대석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흙을 채우거나 전돌을 놓았다. 이러한 강화 왕릉의 무덤방 구조는 명종 지릉 등 12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개경 왕릉의 구조와 궤를 같이 한다. 능역 시설도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개경의 왕릉과 큰 차이는 없다. 한편 강화 왕릉에서는 벽화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덤방 내부에 걸개 못이 있어 그림을 그린 휘장을 무덤방에 걸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화 왕릉은 대부분 여러 차례 도굴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질 좋은 자기와 구슬, 석간(石簡), 금동제 봉황문 장식 등 수준 높은 유물이 출토되어 강도시기 왕릉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강화 왕릉에는 개성에서 보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봉분과 석실 규모가 개경 왕릉보다 작고, 봉분 호석이 12각과 함께 8각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지상식 석실이 그것이다. 강화 왕릉의 봉분 지름은 대략 4m 이하로 개경 왕릉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이며 석실의 면적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봉분과 석실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당시 왕릉이 전시 상황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희인, 2016)

고려 왕릉의 봉분 지대석이 12각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석릉과 가릉에서는 8각 구조가 확인된다. 그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은데 능주의 신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상준, 2016) 석릉에 묻힌 희종은 폐위된 왕이었고 가릉의 주인인 순경태후는 사망 당시 태자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직 왕과 왕비의 능과는 위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강화 고려왕릉 출토 유물(좌: 곤릉, 우: 가릉)



강화 능내리 석실분



강화 가릉(좌)과 능내리 석실분(우)의 봉분 지대석



지상식 석실은 가릉에서 나타난다. 고려 왕릉의 무덤방은 보통 지하 또는 반 지하에 조성되지만 가릉은 지상에 석실을 만든 뒤 주변에 석실을 보호하기 위해 깎은 돌을 쌓아 올렸다. 봉분은 무덤방 위에 올리고 돌레에 지대석을 설치했다. 이처럼 지상에 석실을 설치한 이유는 능이 위치한 지형 특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릉이 자리한 곳은 다른 왕릉과 달리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구릉 지대로 계단식 석단을 조성해 왕릉의 위엄을 내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실을 지상에 설치해 인위적인 언덕을 형성하고 그 위에 봉분의 형태를 조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희인, 2007)

한편 묻힌 이를 알 수 없는 3기의 석실분의 주인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 없으나 능내리 석실분은 희종의 비인 성평왕후(成平王后)의 소릉(紹陵)으로,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은 천도 당시 개



인산리 석실분

경에서 옮겨진 세조와 태조의 관[梓宮]을 강화에 모셨던 장소였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순경태후의 무덤으로 알려진 가릉이 실제로는 소릉이며 가릉 위쪽에 자리한 능내리 석실분은 규모와 격식이 가릉보다 정연한 것으로 볼 때 고종의 며느리로 충렬왕을 낳고 사망한 순경태후의 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상준, 2016) 물론 이는 향후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강화에 고려 왕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찌 알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왕릉이라 하기에 작고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고 무안해할 필요는 없다. 강화에 남아있는 고려 왕릉은 전쟁을 피해 도읍을 옮겨야만 했던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던 고려인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을 잇을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Ⅲ. 다양한 고려인의 음택(陰宅)

1.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왕에서 최하층 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생전의 삶에서 그랬듯이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과 사후의 안식처는 위계마다 차이가 있었다. 왕과 왕비는 별도의 도감(임시 관청)을 만들어 제례를 지내고 능을 조성했다. 이하 관료에서 최하층민까지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고려인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975년(경종 원년) 관료의 묘지 면적과 봉분의 높이를 1품에서 6품까지의 품계에 따라 제한하는 『고려사』의 기사로 보아 고려시대에 무덤을 만드는데 국가적인 규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묘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와 일반민의 무덤에 관한 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신분 또는 경제적 차이에 따라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상위 계층에서는 관과 곽에 금박으로 장식하는 풍습이 성행하여 이를 국가차원

에서 금지할 정도로 호화로운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하층민 가운데에서는 분묘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방치하거나 들짐승에 의해 훼손되도록 하는 풍장(風葬) 또는 유기장(遺棄葬)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기록에 남겨진 내용 이외에 고려인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과 사후 공간은 남겨진 무덤을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인들은 석곽묘[돌덧널무덤]과 토광묘[흙무덤]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조선시대 주요 묘제인 회곽묘가 고려 말 주자가례의 도입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 분명치는 않다. 매장 이외에 화장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 묘지석 260여 점 중 80여 점에서 화장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길자, 1985) 그러나 화장묘가 유적에서 확인되는 예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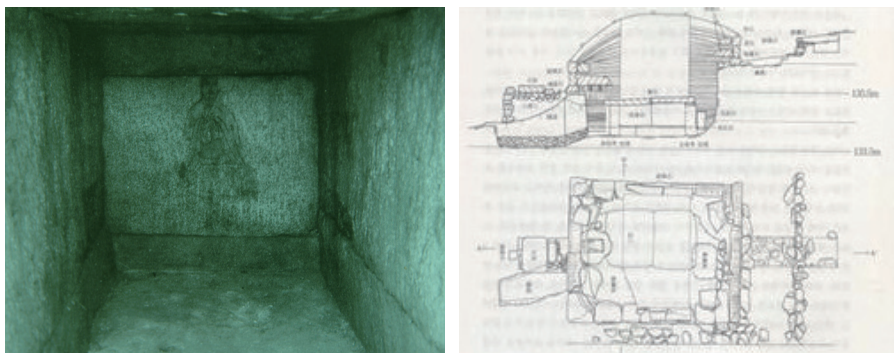
2. 남겨진 무덤들

석곽묘는 4벽을 판석이나 깎돌을 이용해 축조하고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형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석곽묘는 축조 방식에 따라 다듬어진 판석으로 사방 벽면과 덮개를 구성하는 판석재 석곽묘와 다듬은 깎돌이나 자연석을 이용해 벽체를 축조하는 할석재 석곽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할석재 석곽묘가 주로 확인되며 판석재 석곽묘는 조사 예가 많지 않다.

판석재 석곽묘는 석곽의 규모가 길이 2~3m, 너비 1m 내외, 높이 0.9~1.2m의 장방형 형태로 석실분에 비해 규모가 작고 너비에 비해 길이가 더 길어진 형태다. 잘 다듬어진 판석(板石)으로 네 벽면과 바닥, 덮개를 이루고 있고 내부에 벽화가 그려지고 묘역의 구성도 왕릉의 그것과 기본적인 구성이 비슷하다. 때문에 판석재 석곽묘를 소형 석실분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석실의 규모가 석실분에 비해 높이는 절반 이하이며 너비도 좁아 석곽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한편 왕릉에 비교하면 약식이기는 하나 묘역은 여러 단의 돌 기단으로 구분되고 봉분 주위에 곡장을 설치하거나 석인상이 배치되기도 한다.

판석재 석곽묘의 예로는 파주 서곡리 벽화묘, 밀양 고법리 벽화묘, 거창 둔마리 고

분 등이 있는데 이 중 경기도에는 파주 서곡리 벽화묘가 있다. 서곡리 벽화묘에 묻힌 이는 고려 충렬왕~충목왕대 2품 문신인 권준(權準, 1280~1352)으로 밝혀졌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이를 통해 판석재 석곽묘가 고려의 고위관료 무덤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역은 동서 14.2m, 남북 27m의 규모이며 5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하에 위치하는 석곽은 길이 2.85m, 너비 1.18m, 높이 1.28m의 크기로 동·서벽은 판석 2장, 북벽은 판석 3장으로 축조하였다. 석곽 바닥에는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다. 4벽면에는 각각 12지신 모자를 쓴 인물상이, 천정에는 성신도가 그려져 있다. 묘역에는 석실분에서 보이는 곡장과 석단이 설치되었다. 석곽 안에서는 동전 43점과 관정 등이 출토되었고 바깥에서 묻힌 이의 이력이 담긴 묘지석 3매가 발견되었다.



파주 서곡리 벽화묘의 구조

한편 판석재 석곽묘에서도 규모나 축조 수준이 서곡리 벽화묘와 같은 정연한 형태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도 있다. 이 경우 판석 1매나 2매로 벽체와 천정을 구성하는 축조 방식은 같지만 석곽의 크기가 길이 2.0~2.3m, 너비 0.8~1.0m 내외로 할석재 석곽묘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일반 석곽묘와 달리 독립된 묘역을 형성하고 석곽 주위에 곡장을 설치하는 등 여타의 무덤과는 차별된다. 강화도 허유전묘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고려 말 문신인 허유전(許有全, 1243~1323)의 무덤으로 길이 2.5m, 너비 1.05m, 높이 0.6m의 토광을 판 뒤 토광 벽에 판석을 댄 형태로 피장자의 신분에 비해 축조수준이 조악하다. 석곽 주변에는 곡장을 쌓고 무덤 전면에는 장대석을 이용 2개의 단을 설치하였다.(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88) 이와 유사한 수준의 판석재 석곽묘가 강화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차리 고분군과 석릉주변 고분군, 양오리 고분군 등에

서 독립 묘역을 갖춘 소형 판석재 석곽묘가 분포한다.

할석재 석곽묘는 깎돌을 이용해 벽체를 구성하고 그 위를 수매의 판석으로 천정을 덮는 형태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3m, 너비 0.4~0.8m 정도로 판석재 석곽묘에 비해 작다. 석곽의 내부에는 대개 별도의 시설 없이 그대로 흙바닥에 관을 안치한다.

토광묘는 구덩이를 파고 목관 또는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단순한 구조다. 토광의 규모는 길이 1.8~2.7m, 너비 0.4~0.7m 정도다. 대개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그대로 묻는 경우도 있다. 토광 내부에는 무덤의 특성상 별다른 시설은 없는데 고양 더부굴 고분군, 안산 부곡동 유적, 용인 마북리 고분군, 여주 하거리 고분군 등에서처럼 바닥에 유물을 매납하기 위한 요갱(腰坑)이라는 작은 구덩이를 조성하기도 한다.



허유전 무덤과 강화 양오리 판석재 석곽묘

고려시대에 무덤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석곽묘와 토광묘는 대개 여러 기의 무덤이 군을 이루는데 적게는 수 기, 많게는 수 백기가 하나의 공동묘지를 형성한다. 경기도에서는 내륙 산간 지대는 물론 화성 우음도와 같은 소규모 도서 지역에도 고려시대 무덤군이 발견되고 있다. 고려 무덤군은 일조 조건이 양호한 구릉의 중턱이나 말단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고려시대 무덤의 조성에는 풍수지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왕릉은 물론 상위 계층의 무덤을 조성할 경우 풍수적으로 길한 곳을 선택해 자리했다. 고려 관인층은 부모의 묘지가 자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좋은 장소를 선택하였다.(박진훈, 2006) 일반민의 무덤을 조성함에도 풍수지리가 감안될 수 있었겠지만 험준한 산지의 급경사나 북사면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는 것을 보면 무덤의 위치에 대한 절대적인 입지관념보다는 거주지의 거리나 경제적 상황, 지형 조건 등을 감안해 무덤 자리를 선택했던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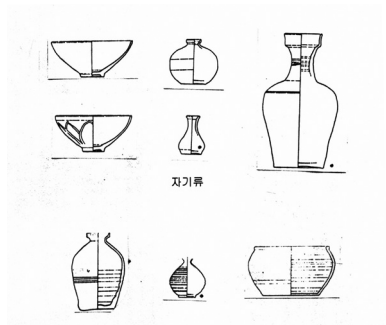
한편 석곽묘와 토광묘에는 상위 묘제에서 확인되는 외부 묘역시설이 약식화 되어 설치되는 사례도 있다. 고양 더부골 고분군과 부곡동 유적, 대부분도 육곡 고분군에서는 토광묘 전면에 2~3단의 석단이 설치되거나 안산 반월 일리 고분, 여주 매릉리 고분군 등에서는 석단과 함께 곡장을 쌓기도 한다. 이는 하층민이 무덤을 조성하면서 상층 묘제의 형식을 모방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이희인, 2004)

석곽묘와 토광묘에는 지역이나 시기별로 조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기와 토기, 금속기가 주로 부장된다. 자기류는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병, 잔, 주자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며 토기류는 병, 호, 항아리 등이 주로 출토된다. 금속기로는 청동 합, 동경, 청동 순가락과 젓가락, 동(은)곳, 철제가위, 동전 등이 주요 부장품이다. 무덤 출토품은 부장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상 생활 용품들로 사용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많아 석곽묘와 토광묘가 대체로 하위 묘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철제 교구나 청동인장과 같은 특수 유물과 잔탁과 같은 소량 제작된 고급 자기 기종도 출토되는 예도 있어 문헌 이의 계층 폭은 비교적 넓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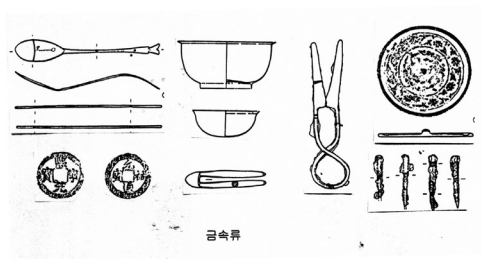


고양 더부골 고분군 / 이희인

끝으로 화장묘로는 앞서 언급한 조립식 석관묘 이외에 일상 생활 토기에 유골을 넣은 뒤 이를 구덩이에 묻은 단순한 형태도 확인되어 화장묘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수한 사례로는 석곽 안에 목관이 아닌 옹관을 안치한 형태도 있다. 경기도 안성 매산리에서 조사된 석곽 옹관묘는 방형의 석곽 안에 인골을 넣은 옹관을 안치한 것인데 인골에서는 화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주목된다. 또한 강원도 영월에서는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 고려시대 묘·장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석곽묘와 토광묘 부장품



참고 문헌

-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 천년의 문화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03, 『강화 석릉』
- _____, 2007, 『강화 고려왕릉』
-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관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한국사 연구회
- 이상준, 2012, 「고려왕릉의 구조 및 능주 검토」, 『문화재』 45-2,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16, 「강화 고려왕릉의 구조와 성격」,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학적』, 인천시립 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 이희인, 2004, 「중부지방 고려고분의 유형과 계층」, 『한국상고사학보』 45,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7, 「경기지역 고려고분의 구조와 특징」, 『고고학6-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_____, 2016, 『고려 강화도성』, 해안
-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0-2
- 장경희, 2018, 『고려왕릉』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3, 예맥
- 정길자, 1985, 「고려귀족의 조립식석관과 그 선각화 연구」, 『역사학보』 108
- 주영민, 2011, 「고려 지방 분묘 연구」,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사진 출처

- 고려시대 판석재 석곽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거창 둔마리 벽화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려시대 석곽묘 / 이희인 제공
- 고려시대 토광묘 / 이희인 제공
- 조립식 석관묘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 개경 7릉떼 제3릉 / 장경희, 2018
- 고려왕릉 구조 모식도 / 이상준, 2012

- 고려 왕릉(강화 곤릉) 무덤방의 구조 / 이희인 제공
- 傳 인증 장릉 출토유물 / 국립중앙박물관
- 왕건릉 / 정학수
- 왕건상 / 정학수
- 강화 고려왕릉 中 석릉 / 이희인
- 강화 고려왕릉 中 홍릉 / 이희인
- 강화 고려왕릉 中 곤릉 / 이희인
- 강화 고려왕릉 中 가릉 / 이희인
- 곤릉 석실 / 이희인
- 강화 고려왕릉(곤릉) 출토 유물 /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화 고려왕릉(가릉) 출토 유물 /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화 능내리 석실분1 /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화 능내리 석실분2 /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화 가릉의 봉분 지대석 /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화 능내리 석실분의 봉분 지대석 / 국립문화재연구소
- 인산리 석실분 / 이희인
- 파주 서곡리 벽화묘 / 국립문화재연구소
- 파주 서곡리 벽화묘의 구조 / 국립문화재연구소
- 허유전 무덤 / 이희인
- 강화 양오리 판석재 석곽묘 / 이희인
- 고양 더부골 고분군 / 한양대
- 청주 용암동 유적 무덤 분포 / 문화재보호재단
- 석곽묘 부장품 / 이희인
- 토광묘 부장품 / 이희인

07

고려시대 길

서영일 |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길이다. 현대의 도시와 마을은 그 내부는 물론 외부로 연결되는 많은 길들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업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사방팔방으로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공기와 같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지낸다. 하지만 공사나 자연재해 같은 이유로 일시적이거나 그 길이 막히면 생활 속에 어려움을 비로소 크게 느끼게 된다. 길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활필수품을 얻고 주변 지역 및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수단이다.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길이 있었던 덕분이었다. 선사시대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은 도시와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 활용과 의미도 확대되었다. 도시나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것은 권력이었다. 권력은 사람이나 자원을 모으고 분배하는 힘이다. 도시나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람과 물자는 물론이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길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후 길은 도시나 국가의 혈관이라고 여겨져 왔다. 도시나 국가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경제와 문화가 번성할수록 길의 정비가 더욱 촉진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길의 발달과 활용은 일종의 문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마을이 등장하고 청동기문화 단계에 이르면 권력이 등장하였다.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등장하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이어져왔다. 인류사의 보편적 발전 단계와 다르지 않다. 길의 정비와 활용 역시 다른 세계의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은 발전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이전 한국의 길에 대한 오해

아직도 19세기 이전 한국의 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더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변변한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하다. 그러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지계는 한국의 전통적인 운반도구로 얼마 전까지도 광범위하게 쓰였다. 지계의 과학성과 활용성을 미화하기도 하지만 수레와 비교해서 일종의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 현대의 대표적인 문학가 중 한사람인 이어령은 『흙속에 저 바람 속에』(1963년)라는 수필집 속에 실린 「지계를 한탄 한다」는 글에서 지계는 수레가 부족하고 다닐 수 있는 길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던 데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지계의 용도와 효용성은 산길, 논두렁길 등에서 최고였으니 이러한 인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길이 없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조선시대에 어떤 길이 있었고 그것이 왜 폐허가 되었는지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제가 건설한 ‘신작로’ 이전에는 한국의 길(도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국토개발은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작로’는 ‘새로 만든 길’이란 의미로 그 이전의 ‘옛길’ 또는 조선시대 이전의 길과는 구분되는 의미이다. 신작로가 한국의 근대화된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공헌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신작로의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여 그 이전에는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

이다.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가 기능이 약화된 결과이다. 그것이 국가 기능을 약화시킨 원인이 아니다.

조선시대 국가가 관리한 길은 역도이다. 조선 초기부터 역제를 정비하고 역도를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고 관리하였던 흔적은 곳곳에 보인다. 서울 살곶이 다리, 진천 농교 등 교량도 있다. 정조의 화성 행차 장면을 그린 그림 속에는 넓은 길과 한강의 부교가 있다. 왕의 행차를 위해 임시로 부교를 설치하고 해체하였다.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구나 상상도 아니다. 실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았거나 길이 없어서 지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다.

최근 고고학 조사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길들이 전국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길이 있었고, 길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던 관리 능력의 부재가 지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행정단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한 중앙집권국가의 등장 시기를 삼국시대, 늦어도 통일신라시대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을 관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수단이 바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그 중에서도 길이다. 중앙의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그것은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 관도, 고려와 조선시대 역도(역로) 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의 관리와 유지를 담당한 부서와 관리들이 존재했다. 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세기 조선은 세도정치의 폐해가 극심하였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조세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국가 기간도로였던 역도를 관리할 능력도 없었다. 그 결과 길은 점차 엉망이 되었다. 19세기 말 조선에 도착한 서양인들에 눈에 비친 가장 형편없는 조선의 모습은 바로 길이었다. 그들은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 몰랐다. 조선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낙후된 이유를 형편없는 도로 때문이라 생각했다. 한국의 위정자들은 길을 만들려는 의지도 없고 그들에 순응한 착한 백성들은 그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제는 식민사관을 내세워 한국은 길도 만들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다고 왜곡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전근대 국가의 길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고려시대의 길을 중심으로 그러한 편견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길의 기원

길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의문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누구나 동의하는 일반적인 것은 아직 없다. 그나마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야생동물 통로 기원설’과 ‘원시인 이동로 기원설’ 등이다.

야생동물 통로설은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사람이 이용하면서 길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인디언(Plains Indian) 길이 미국 횡단철도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대평원의 인디언은 무리지어 이동 생활하는 들소를 사냥하여 그 고기, 뼈, 가죽 등을 식량과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였다. 들소 떼는 계절에 따라 먹이를 찾아 이동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사냥하는 인디언들도 역시 그 길을 이동하면서 살았다. 이 길을 일명 인디언 통로(Indian Trails)라 부른다. 인디언 통로는 후대에 서부개척민들이 이주하면서 그 이동로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대륙횡단철도의 모체가 되었다. 들소 떼의 이동 통로가 미국 철도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원시인 이동로 기원설은 인류의 길의 기원을 신석기시대로 보고 있다. 구석기시대까지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였지만 신석기시대부터 마을을 이루고 정착생활을 하였다. 신석기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에도 농경이 확대되어 완전한 정착생활이 가능하기까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몇 군데 거주지를 번갈아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이동하던 길이 이후 완전한 정착생활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고정되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주변 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길로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신석기시대에 식량이나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 바닷가와 내륙 사이의 근거리 이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드물지만 원거리 교역의 흔적도 보이고 있다. 사람이 일정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마

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일정한 생활 구역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되었다.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교역이나 교류가 불가피하였다. 결국 교류 및 교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길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길의 처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비롯되었는지, 식량이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필수품을 얻으려는 행위와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길은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등장하여 이후 그 기능과 의미도 점차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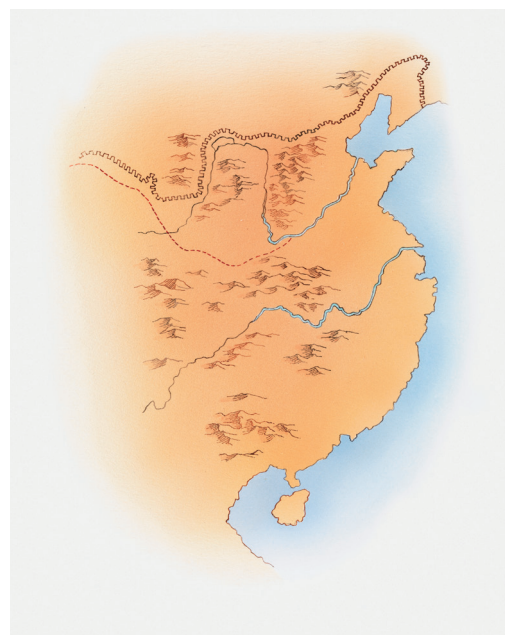
고려시대 이전의 길

최근 경주나 부여 등지에서는 유적의 정비 및 도심 개발 등 여러 이유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삼국시대 도로나 교량도 발굴되었다. 경주나 부여 등지는 당시 왕경이었다. 왕경의 도시 계획과 시설 등은 국가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다. 관청, 시전, 사원, 민간 주택 등 도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길의 건설과 유지에 국가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었다. 출토된 길은 차(수레)도와 인도가 구별되고 노면은 수레가 다니기 편리하도록 포장까지 하였다. 그 위에 수레가 지나가서 생긴 바퀴 자국도 선명하였다. 그 덕분에 수레의 크기나 종류, 이용 방법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경주나 부여는 왕경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기에 길을 잘 만들고 유지와 관리도 철저하였을 것이다. 그 외에 지방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삼국시대의 도로가 출토되었다. 경산지역에서도 신라시대 도로가 출토되었다. 신라 국원소경이 있었던 충주 탐평리에서도 시가지와 도로가 출토되었다. 서울 구로 지역에서도 삼국시대 도로가 출토되어 주목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도로의 출토 사례는 더 있다. 이러한 도로들은 삼국시대 지방 도시나 마을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도로가 존재하였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서울 세곡동 신라 마을 유적에서는 마을 안길에 여러 번 왕래한 수레바퀴 자국이 도로와 같이 출토되었다. 춘천 중도에서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경작지 가운데에서 농로가 출토되었다. 농로에도 역시 수레바퀴 자국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수레 사용을 위한 길이 마을은 물론 경작지 내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도로망과 수레 사용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소지왕 때 우역제를 실시하고 관도를 정비하였다. 관도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길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 주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문역(五門驛 : 곤문역·태문역·건문역·감문역·간문역) 등의 이름과 오통(五通 : 동해통·북해통·해남통·염지통·북요통) 등 길의 이름도 있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조의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은 662년 평양성에 고립된 당군에 식량지원을 위해 2,000여 대의 수레에 군량을 싣고 경주에서 평양으로 행진하였다. 중도에 추위를 만나서 수레를 끌고 가기 어렵게 되자 군량을 말과 소에 실어서 운송하였다. 2,000여 대가 넘는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도로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실크로드 이미지

이러한 기록과 고고학 자료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삼국시대부터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큰 길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방도로가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관련된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길에 수레와 같은 교통수단과 역과 같은 교통시설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상업이 길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서 길을 개척하고 장악하였던 사례는 많다. 비단길, 초원길, 차마고도 등

이 바로 그런 이유로 생겨나서 동서간의 교역을 위한 길로 활용되었다. 국가가 등장한 이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빈번해지는데, 이 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길이 크게 발달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길이다. 로마에서 정복지까지 군대와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한 포장된 넓은 길이 만들어졌다. 현재에도 유럽 곳곳에서 당시의 포장도로가 남아 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 사이에 국가의 생존을 건 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위정자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물자를 최대한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군사 진군로나 군사 보급로 등이 새로 개척되고 운영되었다.

신라에서 길의 건설과 관리는 처음에 군사업무를 담당한 병부에서 담당하였다. 이후 육로는 승부, 수로는 선부 등의 담당 관청이 생겨났지만, 애초에 병부에서 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는 군사 활동이 교통로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백제와 고구려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의 국가 발전 단계는 서로 비슷하고 신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 군사를 담당한 관청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신라 관도는 왕경에서 지방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도는 왕경과 지방을 잇는 혈맥과 같은 것이었다. 관도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와 군대였다. 관도를 이용하는 군인과 관리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역과 같은 교통 시설이 있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역과 같은 시설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역에서는 말과 배 같은 운송수단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관도는 군사 이동과 병참을 위한 보급로로 활용되었다. 관도가 지나가는 곳에는 경주에서 변경까지 산성이 줄지어 연결되어 있었다. 삼국이 통일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산성은 지방 통치의 중심지로, 관도는 경주와 지방을 잇고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조세를 수송하는 길로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후 신라시대의 관도는 고려시대 길의 모태가 되었다. 나아가 신라시대의 길 이 한국 전통 길의 골격이 되었다.

고려의 역도와 역제

고려시대 국가의 간선로는 '역도(역로)'라고 불렸다. 919년 고려의 왕도가 개경(개성)으로 정해졌는데, 고려 정부는 이때부터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로를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역도는 처음 군사적 목적과 관련하여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길은 후삼국 통일 및 거란과의 항쟁 등에서 군수지원에 꼭 필요한 수단이었다. 수로는 조세의 운반과 군사 보급로로, 육로는 병력이동 및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려 왕실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지방 세력을 특히 우대하였다. 이들을 포섭하여 길을 확보하고 군사지원체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당시 경기도에서는 광주, 양주, 이천, 안성 등의 지방 세력이 중용되었다. 광주, 이천, 양주 등의 지방 세력은 남한강 수로와 경주 방면 육로의 요지여서 주목되었다. 안성은 아산만과 충청 및 호남 지방으로 통하는 육로의 요지로 주목되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일대 각 시군에서는 산성 정비를 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산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려시대에 광종(949~975)에서 현종(1010~1031)때까지 대대적인 산성의 수축과 축조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천 설봉산성, 안성 죽주산성, 망이산성, 비봉산성, 평택 비파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산성들은 모두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그 주변 지역은 물론 개경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삼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최승로는 성종이 즉위하자 정치개혁안이 담긴 「시무 28조」를 올렸다. 그 중 17조에서 정(亭), 역, 도진 등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세도가들이 백성을 수탈해서 멋대로 큰 집을 지어 백성들의 고초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과 역은 교통로 변에 설치된 교통시설로 여행자들의 숙박을 지원하고 행정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도진은 강을 건너는 곳과 수로에서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육로와 수로의 요지이며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이런 지역을 장악한 세도가들이 그 이익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서 백성들을 장악

하고 세력을 확대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당시까지도 지방의 중요 교통의 요지를 중앙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성종 이후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까지 몽진을 떠났다. 그런데 중도에 교통로를 장악한 지방 세력들의 냉대가 심했다. 심지어 공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나주까지 가는 몽진 길은 직로가 아니라 우호적인 지방 세력이 있는 곳을 따라 우회하였다.

고려 중앙 정부는 이미 국토부터 이런 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광종에서 현종 대에 산성의 수축과 축조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이 산성들은 비록 경기도 일대에 위치하지만 개경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말부터 후삼국을 거쳐 고려 초까지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방 세력이 세거하던 곳이다.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고려 왕실에 협력하여 세력을 떨쳤지만 통일 후 지방통치 및 교통로 정비 과정에서 골칫거리가 되었다. 점차 왕권이 안정되면서 교통로 주변 지방 세도가를 제압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 대책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거나 새로 축조하고 지방관을 파견할 준비를 진행하였다.

당시 산성 수축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신라의 산성에 외성을 덧붙여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 큰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지방 관아를 두는 것이었다. 이는 신라시대부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산성을 활용하여 그 속에 관아를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할 수 있는 안전한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 주변 교통로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지방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에 정, 역, 도진 주변의 세도가를 제압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어쨌든 성종 이후 고려의 지방제도는 본격적으로 점차 정비되어 갔다. 먼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12목은 모두 지방 지배와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이 늘어나서 점차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역도가 완성되었다.

『고려사』에는 전국에 약 525개의 역과 이 역을 서로 연결하는 22개의 역도가 기록되었다. 다만 이 역들이 모두 한 시기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서산시 해미에 있었던

몽용역은 태조 때 설치되었다고 전하나 분명하지 않다. 충남 목천의 장지역은 청주 상당산성에서 출토된 신라 기와에 그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말부터 존재하였던 것을 고려 초에 재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몇몇 역은 이미 후삼국 시기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고려의 역도와 역제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다. 992년(성종 11)에는 주(州)·부(府)·군(郡)·현(縣)과 관(館)·역(驛)·강(江)·포(浦)의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후 현종대에도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성종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에 전국적인 역제와 역도가 서서히 완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시대 역도의 노선은 『고려사』의 기록을 참조하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2역도 중 경기도 지역에 해당되는 역도는 청교도, 춘주도, 평구도, 경주도, 충청주도 등 5개가 있었다.

청교도는 개경에서 남경(서울)에 이르는 길로 인천과 수원까지 연결되었다. 소속된 역으로는 청교역(개성), 통파역(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마산역(파주시 파주읍), 벽지역(고양시 일산), 영서역(서울), 평리역, 상림단조역(파주시 적성면), 청파역(서울), 노원역(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행주역(고양시 행주동), 종승역(김포시 양촌면), 금륜역(수원), 중림역(인천), 녹양역(양주시 고읍동) 등이 있었다. 역의 위치로 그 노선을 추정하면 개경-장단-적성-양주-서울 광진나루로 이어지는 길과 장단-파주-고양-서울-수원(또는 인천) 등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춘주도는 개경에서 춘천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소속된 역으로는 상수역(남양주), 감정역(가평), 쌍곡역(포천), 안수역(포천시 포천읍), 임천역(연천군 청산면) 등이 있었다. 그 노선을 추정하여 보면 개경-장단-연천-포천-가평을 지나 춘천으로 가는 길과 개경-서울-남양주-청평-가평 등을 거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두 길이 있었다.

평구도는 서울에서 원주로 연결되는 길이다. 소속된 역은 평구역(서울), 봉안역(광주), 오빈역(양평), 전곡역과 백동역(지평) 등이 있었다. 청교도에서 연결되어 광주-양평-지평 등을 지나서 원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지금의 중앙선 철도와 유사하였다.

경주도는 충주나 청주 방면을 통해서 경주로 가는 길이다. 소속된 역으로는 덕풍역(하남시 덕풍동), 남산역(광주시 광지원리), 경안역(광주시 역동), 안리역(이천시 신둔면), 무극역(이천시 장호원읍), 오천역(이천시 마장면), 양재역(서울 양재동), 장가역

(서울 장지동), 안업역(성남 수내동, 조선시대 낙생역), 금령역(용인 역북동), 좌찬역(용인 원삼면 좌향리), 분행역(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분행마을) 등이 있었다. 역의 위치로 추정하여 보면 경주도는 두 개의 노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덕풍역을 출발하여 광주-이천-장호원으로 연결되는 충주 방면의 길과 판교-용인-양지-죽산으로 연결되어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충청주도는 서울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길이다. 소속된 역으로는 동화역(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원천역(수원시 원천동), 청호역(오산시 대원동 역말), 가천역(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등이 있었다. 경주도의 안업역이나 청교도의 금륜역을 출발하여 오산-안성 등을 거쳐서 천안으로 가는 길이다.

역도의 실상과 운영

역도는 통행하는 사람과 수레의 수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각각의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없다.

고려시대 길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록이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이다. 송나라 사람 서공이 쓴 책으로 보통은 줄여서 『고려도경』이라고 한다. 서공은 1123년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고려를 방문하였다.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으로 예상강 하구에 위치한 벽란도를 거쳐서 개경에 들어 왔다. 『고려도경』은 그가 한 달 남짓 고려에 머무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송나라 휘종에게 바친 일종의 출장보고서이다.

원래 ‘도경’이란 책의 이름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 책이다. 책을 간행한지 2년 후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입했는데, 그 와중에 휘종에게 진상되었던 원본이 훼손되어 그림은 없어졌다. 다만 글로 기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복원되었다. 고려의 풍속과 실상 중, 중국과 같은 부분은 빼고 특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기록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머문 기간에 그가 관찰하고 들은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본 것도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 오해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록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책에는 고려시대의 길과 수레 사용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주목되었다. 서공은 고려의 길에 대해서

“산이 많고 도로가 험하여 수레로 운반하기가 불리하다.”

고 하였다. 서공의 관찰인지 전언을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기록을 그대로 이해하면 고려시대 길은 규모나 형태가 수레가 통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기록은 단순히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공의 시각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해야 한다. 기록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같은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군사(군수물자)는 수레로 운송하며, 수레는 말로 끌게 한다. 고려는 비록 해국(海國)이지만, 무거운 짐을 끌고 먼 곳을 가는 데는 거마(車馬)를 폐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가 낮고 좁으며 도로에는 모래와 자갈이 많아 중국과 비교되지 않으므로 수레의 제도와 말을 어거하는 방법도 또한 다르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서공이 말한 ‘수레로 운반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수레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레가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길의 규모나 구조가 보잘 것 없다는 이야기이다. 서공은 자기의 고국인 송나라를 기준으로 고려의 역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송나라 사람으로 고려를 소국으로 내려 보는 중화의식도 깔려 있다.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서공은 고려의 길이 송나라나 중국의 역대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이다.

고려는 조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세 운송 등 주요한 물자들은 내륙수로와 해로를 활용하였다. 고려를 ‘해국’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서공은 고려의 배가 자기가 타고 온 배에 비하여 작다는 기록도 남겼다. 하지만 고려 사람들이 배를 다루고 해로를 활용하여 원거리를 항해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를 ‘해국’이라 표현한 것이다.

서공의 의식 속에 고려는 ‘해국’이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고 있었다. 조운 등 해로

와 수로를 통해 조세 등 주요 물자가 운반되는 사정을 보았던 것이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육로와 수레의 사용은 그에 비하여 빈약하다고 보았다.

고려는 중국에 비하면 산악지대가 많다. 송나라의 넓은 평원지대의 도로에 익숙한 서공에게 고려의 산악지대 고개와 험한 지형을 통과하는 길은 규모도 작고 생소하였던 것이다. 특히 개경 주변의 지형은 상당히 험하고 고갯길이 많다. 넓은 평야도 적어서 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고려의 전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고려도경』에서도 수레를 원거리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묘사되었다. 군수 물자는 말이 끄는 수레를 활용하여 운반하였고 수레를 사용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던 것도 기록되어 있다. 고려의 길은 그 기능과 운영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서공의 기록에서 보면 고려시대 역도는 적어도 수레가 교행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너비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고갯길의 경우 수레를 사용하는데 중국과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였기에 수레를 사용하는 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군수 물자 등 중요한 물자의 운반에는 수레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역도는 주로 정치와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규모나 구조도 말이 끄는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관리되었던 것이다.

원래 중국에서는 10리에 정을 두고 30리에 역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에도 각 역도의 역은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대개 30리마다 1개 역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고려시대 역의 위치가 정확히 밝혀진 것이 드물어 각 역간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거리가 역의 설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겠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산악지형과 고갯길이 많아서 역과 역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역과 역 간의 거리는 대체로 30리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어서 국가 재정에 따라 역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되거나 다시 재설치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각 역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일단 각 역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와 일꾼들이 있었다. 각 역에는 역장 2~3명, 역정호 7~75명을 배치했다. 초기에는 중앙에서 제도순관(諸道巡官)이 파견되어 역도를 관리하였다. 현종 이후에는 그 이름이 관역사(館驛



파주 혜음원지 전경

使)로 바뀌었는데 현종의 이름이 순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에는 다시 역승(驛丞)의 지휘·감독 아래 역을 운영했다.

역도와 역을 담당하는 관청은 병부였다. 고려 교통로의 정비가 군사적 필요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 교량, 나루 등을 건설하는 책임은 토목공사를 담당한 공부였다. 역도의 관리는 병부가 하고 건설은 공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였다. 문종 이후에는 공역서가 역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였다.

경기도의 고려시대 역도는 남경 설치를 전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삼국시대부터 개성과 서울 사이의 간선은 장단-적성(호로그루)-양주-서울(광진나루) 등을 거쳐서 이천과 수원 방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였다. 12세기 이전에는 이 노선이 고려의 기본 역도였다. 하지만 고려 중기 남경이 설치(1067년)되면서 기본 노선이 바뀌게 되었다. 남경으로 가는 지름길인 장단-임진나루-혜음원-벽제-서울(남경)-사평나루(서울 한 남동)-양재-과천-수원 등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노선은 개경에서 전라도나 충청도 방면으로 갈 때 지름길이었다. 다만 영남으로 갈

때는 여전히 적성과 광진나루를 지나는 옛길이 활용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역은 행정 문서의 전달과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를 위한 시설이었다. 지체 높은 승려들도 이용하였으나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관리 중에서도 고급관리들이 주로 이용하였는데 하급관리는 이용을 제한받았다.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 여행자들을 위해서 역도 주변에는 원(院)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 있었다. 고려시대 원은 파주 혜음원과 같이 국가에서 민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 구제 차원에서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원이 처음 설치된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신라 말 국가의 공식적인 역제가 무너지면서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사원(寺院)'이란 명칭은 종교시설로서 「사(寺)」, 숙박 및 구제시설로서 「원(院)」이 결합된 사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혜음원이나 충주 미륵대원터에서는 절과 원이 결합된 사원 구조가 출토되었다.

원래 원은 사찰에서 구제 사업의 하나로 행려병자나 대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행자들이나 상인들도 활용하면서 자연히 물물교환이나 정보가 교환되는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말여초의 혼란기에 사찰은 자체의 무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호족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안전한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사찰과 원이 결합된 사원으로써 기능을 보여주는 절터들이 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였고 그 규모도 상당하였다. 원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역불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국유화 되었다. 승려를 환속시켜 원을 관리하는 원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점차 약해지면서 원주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도 그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대전 유성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길

발굴조사를 통해서 과거의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도로 유적은 현대의 도시나 도로의 하부에 매몰되어 있다. 현재에도 사람이 살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상대동 원굴 유적 - 연못 및 도로3 전경

발굴조사 과정에서 그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에 발굴된 도로들은 경주, 부여 등 고도 지역에서 도심 개발에 앞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정구역에 대하여 문화재가 잔존하는지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조선시대 이전의 도로가 발굴되기도 한다. 그 중 고려시대 유적으로 최근 가장 주목되는 것이 대전 유성 지역에서 발굴된 상대동 및 원신흥동 유적이다. 이 유적은 추정 관아(또는 원터), 객사, 창고, 집터, 도로 등이 복합된 일종의 도시 유적이다. 이 일대는 문헌기록을 참조하면 고려시대 유성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대동 유적의 도로는 서쪽 구릉지 안부에 형성된 고개에서 남쪽에 동서로 이어진 낮은 구릉의 북쪽 사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길은 고려시대 공주에서 유성을 지나 현재 대전으로 이어지는 길로 추정된다. 이 도로 남쪽에 있는 구릉지 남사면에서는 고려시대 관아 또는 원터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가 출토되었다. 이 건물터 남쪽 끝단부에 접하여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도 출토되었다. 이 도로와 앞의 북쪽 도로는 대형 건물터 동쪽 끝을 따라 지나 북쪽으로 이어진 남북 방향의 도로로 서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남북도로는 북쪽 도로와 교차로를 지나서도 계속 북쪽으로 이어졌다. 동서 방향의 도로에서는 이 보다 작은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도로 주변에서 출토된 주거지 등 생활유적들과 연결되는 길이었다. 즉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큰 도로가 교차되고 이들 도로에서 분기한 작은 도로들이 각각 도로 주변의 생활 유적과 연결되는 작은 도로가 되는 것이다.

원신흥동 유적은 갑천 서쪽의 충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방향의 도로와 남북 방향의 도로가 서로 망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노면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어서 도로로 추정되는데 유실된 곳이 많아 연결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상의 고려시대 도로는 높은 곳은 땅을 파서 조성하고 낮은 곳은 땅을 돌아서 도로의 수평을 조정하였다. 수레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노면에서는 수레바퀴 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곡식이나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면은 지반이 단단하고 비교적 높은 곳은 삭토한 생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로의 보수 과정에서 강자갈을 깔아서 사용하였던 흔적도 보인다. 도로 측면에 별도의 배수시설을 시설하기도 하지만 시설하지 않고 자연경사를 이용해 배수한 것이 섞여 있어 지형에 따라 조성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지의 도로는 자갈, 사질토 등을 깔아서 노면을 보강하였다. 사질토만 약 50cm 다진 것도 있다. 이는 일종의 도로 포장방식의 하나로 강자갈과 사질토를 깔아서 도로의 노면을 단단하게 하고 비가 오거나 수레가 지나다니면서 노면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신흥동에서 출토된 도로 중에는 이와 다르게 지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레바퀴 자국 외에는 도로의 규모나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없는 것도 있다.

도로의 너비는 약 400~500cm 정도이다. 이 정도의 너비면 수레 두 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너비이다. 이 정도 규모이면 비교적 큰 도로에 속하며 역도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상대동 유적과 원신흥동 유적은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출토된 길로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유적들에서는 도로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다수의 건물지, 주거시설, 연못, 생산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 일대는 옛 유성현으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주도로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분기된 도로에 의해서 연결된 각종 건물지와 주거지, 생활 유적 등이 유성현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 방향의 도로는 옛 유성현을 지나는 큰 길로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여기에서 분기된 도로들은 마을 내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로 추정된다.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도 고려시대 지방 군현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와 군현 내부의 도로를 대략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유적으로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실크로드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 파주 해음원지 전경 / 파주시청
- 대전 상대동 원골 유적 - 연못 및 도로3 전경 / 문화재청

읽어보기

고려의 찬란한
도자문화,
경기에서
시작되다

고려의 찬란한 도자문화, 경기에서 시작되다

임진아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고려시대 청자는 왕실과 귀족의 취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예품이다. 고려청자는 12~13세기에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처음에는 색깔과 형태가 가장 우선이었다. 좋은 청자색은 ‘비색(翡色)’이라 불리며, 이러한 고려청자의 비색을 가리켜 동시대 중국에서는 ‘천하제일’이라 일컫기도 했다. 전성기 고려청자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인물을 표현한 상형(象形) 청자이다. 상형청자의 모티프는 크게 원앙·오리, 참외·죽순·표주박 등 자연적 소재와 불상·보살상·나한상·연꽃·기린(麒麟)·봉황 등 종교적 소재로 나누어진다. 전성기 고려청자의 주된 관심과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형태보다도 상감(象嵌) 무늬로 옮겨가게 되었다. 상감청자의 무늬 표현은 높은 제작 기술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상감의 기법 자체는 중국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지만 고려청자에서 독보적으로



1. 시흥 방산동 가마 출토 청자·백자 완



2. 용인 서리 가마 출토 백자 제기

꽃피었다.

고려의 찬란한 도자문화가 시작된 곳은 10세기 무렵 경기도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의 가마이다. 시흥 방산동에서는 초기청자를 소량의 백자와 함께 제작하였고 용인 서리는 청자와 백자를 함께 만들다가 고려백자를 주로 제작하는 가마로 바뀌어갔다. 이들 가마에서는 초기에 찻그릇[완碗]을 대량으로 생산하였는데(사진 1),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던 고려에서 중국 도자기 찻그릇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고려청자 찻그릇을 만들게 된 것이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시작이다.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는 점차 찻그릇 뿐 아니라 대접·접시·잔·항아리·병·주자 등 각종 생활용기와 크고 둔중한 모습의 제기(祭器)를 생산하였다(사진 2). 우리나라 최초로 상감 기법을 시도한 것도 이들 가마이다.



3. 용인 보정동 가마 출토 청자·백자 발·접시



4. 용인 보정동 가마 출토 청자 화분·반·장고·베개

11세기 이후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이 강진과 부안으로 이동하여 12~13세기 전성기를 맞이한 후에도 경기도에서는 도자 생산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용인 보정동 가마이다.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에서 청자 생산 초기부터 백자를 함께 만들던 전통이 이어져 용인 보정동에서도 청자와 소량의 백자를 함께 제작하였다(사진 3). 뿐만 아니라 대형의 화분·반(盤)·장고와 불상·보살상·나한상 등을 생산하여(사진 4) 동시대 강진·부안의 생산품과 내용면에서 가장 유사하다는 평을 듣는다.



5.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향로



6. 청자 연꽃모양 향로



7.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두꺼비 장식편



8.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자판

경기도의 가마에서 제작한 고려도자는 주변의 사찰에서 사용되었는데, 경기도 일대에 있는 사찰은 고려시대 개경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점에서 의미가 크고 강진·부안에서 제작한 고려청자 고급품과 중국자기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주 고달사지, 여주 원향사지, 안성 봉업사지, 용인 마북동사지, 파주 해음원지 등인데, 특히 파주 해음원의 경우는 사원과 행궁(行宮)의 역할을 겸하였던 까닭에 최고급의 고려청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주 해음원지에서 출토된 향로의 파편은(사진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연꽃모양 향로〉와 비교할 수 있다(사

진 6). 파주 해음원지 출토 두꺼비장식이 붙은 청자 편(片)은 비색 상형청자의 한 예라 할 수 있으며(사진 7), 물가풍경무늬가 새겨진 상감청자 자판(磁板)도 발견되었다(사진 8).

사진 출처

- 시흥 방산동 가마 출토 청자백자 완 / 국립중앙박물관
- 용인 서리 가마 출토 백자 제기 / 국립중앙박물관
- 용인 보정동 가마 출토 청자백자 발·접시 / 국립중앙박물관
- 용인 보정동 가마 출토 청자 화분·반·장고·베개 / 국립중앙박물관
-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향로 /
한백문화재연구원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 수록
- 청자 연꽃모양 향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두꺼비 장식편 /
한백문화재연구원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 수록
- 파주 해음원지 출토 청자 자판 /
한백문화재연구원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왕실의 도자기” 수록

2018 경기 문화유산 학교

경기도 역사와 문화유산 교양강좌

기 획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편 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 031-968-5325~9 FAX : 031-968-9776

출 판 경인 M&B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TEL : 031-231-5520~7

비매품

Copyright ©2018 GyeongGi Institute of Heritage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의 동의없이
복사·전재·변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